

예천 활문화 조사 및 발전적 방안 연구

2016. 12



제 출 문

예천군 귀중

이 보고서를
‘예천 활문화 조사 및 발전적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사)환동해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영석 Ph.D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영석	강원관광대학교 교수 (관광학박사) (사)환동해연구소 책임연구원
-------	-----	---------------------------------------

공동연구원	전미경	안동시 관광두레 문학박사
	안세희	(사)환동해연구소 연구원 관광경영학 박사

연구보조	구완희	(사)환동해연구소 연구원 관광학 석사
	황지윤	(사)환동해연구소 연구원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 1) 연구배경
-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4

- 1) 연구범위
- 2) 연구방법

3. 예천 활문화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방법 5

- 1) 활문화의 의미
- 2) 활문화의 조사 및 연구방법

II. 예천의 활문화 7

1. 국궁 9

- 1) 인물
- 2) 단체
- 3) 시설
- 4) 행사

2. 양궁 37

- 1) 인물
- 2) 단체
- 3) 시설

- 4) 대회, 행사
 - 5) 지역 관계자 인터뷰
3. 시사점 58

Ⅲ. 한국과 세계의 활문화 63

- 1. 한국의 활 65
 - 1) 우리나라 활의 변천
 - 2) 우리나라 활의 종류와 구조
 - 3) 각궁의 제작
 - 4) 화살
 - 5) 활쏘기 용구
 - 6) 활터의 시설물과 규격
 - 7) 국궁의 사법
 - 8) 국궁의 경기
 - 9) 국궁의 예절
 - 10) 국궁 관련 문화재
 - 11) 우리나라의 양궁 발전의 개요
 - 12) 우리나라의 양궁장
 - 13) 활 체육 인구
 - 14) 기타 활문화 콘텐츠
- 2. 세계의 활 112
 - 1) 활의 기원과 변천
 - 2) 세계 활의 종류와 구조
 - 3) 양궁
 - 4) 활 이야기
 - 5) 세계 활 관련 박물관

6) 세계 활 축제

7) 세계 활 단체

3. 시사점 134

IV. 유사 활용사례 139

1. 인류무형문화유산 141

- 1) 인류무형문화유산 개요
- 2)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
- 3)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현황
- 4) 유사 사례

2. 국가무형문화재 기능(공예) 관련 전시관 154

3. 국내 결성 세계연맹 166

4. 시사점 170

V. 예천 활문화 발전방안 173

1. 종합시사점 175

- 1) 예천의 활문화
- 2) 한국과 세계의 활문화
- 3) 활문화 중심지 예천

2. 예천활문화전시관 179

- 1) 설치의의
- 2) 추진방향
- 3) 추진단계
- 4) 전시관의 구성

3.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83

- 1)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의의
- 2) 등재 가능성
- 3)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부합성
- 4)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

4. 세계전통활연맹 181

- 1) 세계 전통활연맹 결성의 의의
- 2) 세계연맹 결성과 실천 방향

5. 세계활축제 185

- 1) 세계활축제의 개최성과
- 2) 세계활축제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187

I .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예로부터 예천은 활 제작의 명소로 유명하였고 현재도 궁시장을 중심으로 국궁전수관과 공방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예천은 세계적인 양궁선수를 많이 배출하였고 국제규격의 양궁장을 갖추고 있으며 선수단 운영과 더불어 대회개최와 참여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궁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최근에는 “예천세계활축제”를 두 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렇듯 예천은 활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활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자료가 부족하고 향후 활 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관련 자료의 확보와 정리가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예천의 대표적 전통 문화인 활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자료와 문헌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전시자료의 수집 방안을 제시함
- 문헌조사 내용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예천활문화의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논의함
- 세계활연맹 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지속적 발전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활의 메카인 예천의 국내·외적 위상을 구체화하기 위함

2.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15년 5월 ~ 12월 (약 7개월간)

○ 공간적 범위: 예천군 외 관련 지역

○ 내용적 범위

· **활의 기원과 역사적 변천과정의 개괄적 조사**

- 한국활(국궁, 양궁)의 기원과 변천 과정
- 예천활(국궁, 양궁)의 기원과 변천과정, 타 지역과의 연계 사항 등
 - 관련 인물 및 계보, 전국 양궁대회 예천개최현황, 수상실적 등

· **활 관련 구술자료 및 유물자료의 개괄적 조사**

- 활 제작자(국궁+양궁) 구술자료 확보 및 소장 유물자료 조사
- 활 시연자(국궁+양궁) 구술자료 확보 및 소장 유물자료 조사
- 궁도장(국궁+양궁) 운영자, 활사범 등 활쏘기 관련자 구술자료 확보와 소장 유물조사

· **활 관련 의례 및 놀이 조사**

- 향사례 등 활과 관련된 의례에 대한 문헌 및 구술자료 조사
- 편사놀이 등 활 관련 놀이에 대한 문헌 및 구술자료 조사

· **예천 활의 문화산업콘텐츠로서의 개발 가능성 검토와 발전방향 제시**

- 예천활의 문화산업콘텐츠로서의 활용방안
- 세계활연맹 구성 등 국제적 연계방안 모색
-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적절성 검토 등

3. 예천 활문화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방법

1) 활문화의 의미

- 문화를 생산하는 인간의 행위는 공시적 의미에서 일정한 범주와 사회적 공유를 기반으로 함¹⁾
- 더불어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통시적인 의미에서의 문화적 생산물의 공유를 의미하기도 함²⁾
- 따라서 문화는 역사적, 동시대적 소산을 바탕으로 미래를 생산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음³⁾
- 결론적으로 활문화란 활에 관련된 역사적, 동시대적 인간의 소산인 활문화가 상징적·예술적 가치로 드러나 공유되고 미래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미래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교육적 가치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특히 본 연구에서 활문화는 예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에 관련된 전통, 관습, 가치, 문화재, 인물 등과 같은 유·무형적 가치를 기저 자원으로 함
- 그리고 예천 활문화의 미래적 가치는 경제적으로는 예천의 지역마케팅과 지역브랜드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예천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더불어 교육적으로 활문화 관련 교육과 정보 전달의 기능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음

1) 장호찬·라선아(2010). 「관광행동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 김창남(2010).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3) 김영석·전미경(2013). 문화콘텐츠체험이 지역브랜드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7(2), 221-242.

2) 활문화의 조사 및 연구방법

- 문헌연구: 활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조사, 활 관련 현황 조사
- 인 터 뷰: 활 관련 관계자 인터뷰(서면조사 포함)
- 종합분석: 문헌연구 결과 및 인터뷰 결과 종합분석

Ⅱ . 예천의 활문화

1. 국궁

1) 인물

(1) 공장

- 예천 공장의 계보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권계황장군의 후손으로 타계한 과거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보유자였던 권영록의 가계이고, 두 번째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보유자인 권영학의 가계이며, 또 세 번째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전수교육조교로 예천공장 전수관을 지키고 있는 김성락의 가계임
- 예천의 공장은 태사공 권행(權幸)을 시조로 하는 안동 권씨 추밀공파 중 예천읍 왕신동에 정착하여 입향조가 된 절충장군 익철공(翼撤公) 권계황의 후손을 중심으로 가장 오래된 계보의 공장가를 형성하고 특히 해방 후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음, 현재 예천에서는 직계 자손에 의한 대가 끊어졌고 다만 출향하여 서울무형문화재 제23호 공장으로 인정받은 권무석과 그의 아들 권오정에 의해 가업이 이어지고 있음
-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예천뿐만 아니라 출향한 여러 공장이 전국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나 탁월한 공장들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유명을 달리하거나 병환이나 판매부진 등으로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상태가 됨
- 예천의 공장 계보 1
 - 권황(權晃): 개성에 묘소
 - 권계황(權繼黃): 조선 숙종 때 절충장군(折衝將軍)⁴⁾으로 예천으로 낙향하여 군창(軍倉)을 책임짐, 안동 권씨의 예천 입향조가 됨⁵⁾
 - 권광필(權光弼: 권계황의 자) -> 자 권휘일(權輝一) -> 자 권운인(權運仁) -> 자 권성은(權聖殷)
 - 권희직(權熙直: 권성은의 자): 조선 영조(英祖) 때 활 10만개를 나라에 올려 교위(敎尉), 용장(勇將)의 관직을 하사 받음⁶⁾

4) 조선시대 무신 정3품 당상관의 품계명(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1, 한국학중앙연구원)

5) 매일신문, 2014.08.27.

- 권순익(權舜益; 권희직의 자) -> 자 권만영(權萬永) -> 자 권병위(權丙禕) -> 자 권중락(權重洛)
- 권태선(權泰善)과 권태욱(權泰郁): 권중락의 두 아들
- 권영록(權寧綠; 권태선의 자, 1916~1986):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1971. 09. 13 ~ 1986. 05. 10), 한 때 전국 활의 70% 정도를 공급함
- 권영호(權寧浩; 권태욱의 자)
- 권오규(權五奎; 권영록의 자):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전수교육조교(1984. 12. 01 ~ 1991. 08. 28)⁷⁾
- 권무석(權武奭; 권영호의 제): 서울무형문화재 제23호 궁장(2000. 04. 20 ~)⁸⁾
- 권오정(권무석의 자): 서울무형문화재 전수자

○ 예천의 궁장 계보 2

- 권우갑(權又甲)은 조부 권오련(權五連, 한학자)과 부 권한규(權漢奎) 등의 뒤를 이어 각궁 제작을 가업으로 일으킴, 권우갑은 권선복에게서 1935년부터 사사하였다고 함: 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6호 예천궁장(1980. 12. 30 ~ 1989. 3. 15)⁹⁾
- 권영학(權寧鶴; 권우갑의 자): 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6호 예천궁장(1989. 5. 30 ~ 2015. 05. 26),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2015. 05. 27 ~)¹⁰⁾

○ 예천의 궁장 계보 3

- 김형준(권태욱에게 사사)¹¹⁾
- 김봉원(김형준의 자, 진해 거주)
- 김성락(김봉원의 자, 김박영¹²⁾에게서도 사사):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전수 교육조교(2009. 09. 17 ~), 예천국궁전수관 관장

6) 동아일보, 1991.07.25

7) 문화재청, <http://www.cha.go.kr>

8) 서울무형문화재 홈페이지 <http://www.seoulmaster.co.kr>

9) '80년도 제2회 지방문화재위원회지정 조사보고서(경상북도문화재, <http://www.chis.go.kr>): 권우갑이 부친과 조부에게 활 제작을 배웠다고는 하나 여러 기록과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 윗대에서는 생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권우갑이 윗대가 아닌 다른 궁장에게 사사하였다는 기록이나 인터뷰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궁장의 본격적인 가업은 2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10) 서울무형문화재, <http://www.seoulmaster.co.kr>; '80년도 제2회 지방문화재위원회지정 조사보고서(경상북도문화재, <http://www.chis.go.kr>): 권무석 인터뷰

11) 상계 자료

12)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부천, 1996.12.10 ~ 2011. 04. 11)



<권영록 무형문화재 47호 궁시장>
1980년대 초반 예천 한천 고수분지에서 활
제작 후 활의 시위를 당기는 모습
자료: 경북일보 2015. 10. 06. 1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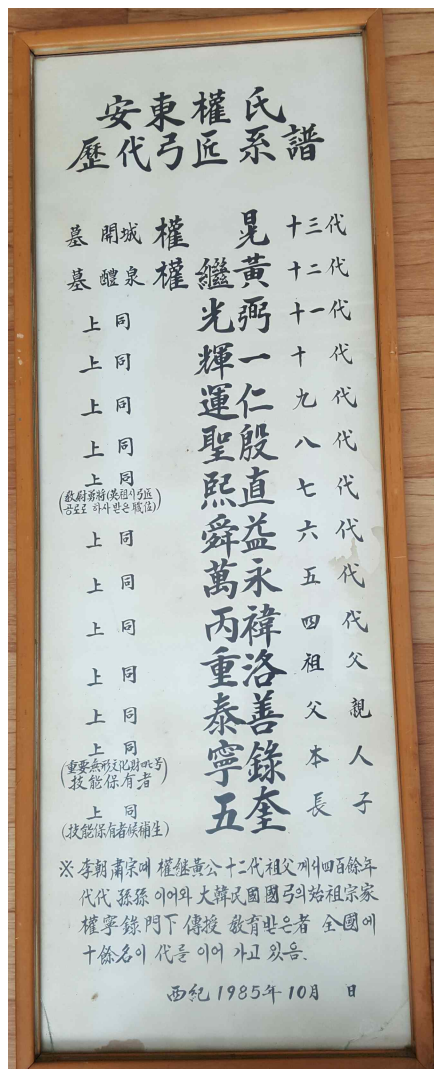
<권영학 무형문화재 47호 궁시장>
활의 강도와 균형 대칭 등을 맞추기 위해
활을 당기고 구부리는 작업
자료: 경북일보 2015. 10. 06. 16면

○ 예천궁장에 대한 기록(1981년 기준, 본적/주소/비고)¹³⁾

- 권우갑(權又甲) 왕신리, 남본리, 권선복(權先福)의 제자, 도지정무형문화재 6호, 일제시대부터 종사, 1988년 3월 사망
- 석계수(石桂水) 청복리, 권선복의 제자, 일제시대부터 종사, 사망
- 권선출(權先出) 왕신리, 왕신리, 권선복의 제자, 9세 일제시대에 시작하여 70여 년 간 조궁함
- 권영록(權寧錄) 왕신리, 서본리, 인간문화재 궁시장(弓矢匠) 47호, 일제시대부터 종사, 사망
- 권영호(權寧浩) 왕신리, 왕신리, 권영록의 4촌, 한국전쟁 후에 종사, 중단했다가 1981년부터 다시 종사
- 권태흥(權泰興) 왕신리, 전남 광주, 3대째 가업으로 전수, 권태기와 형제 간임
- 권태기(權泰基) 왕신리, 경남 울산, 3대째 가업으로 전수, 권태흥과 형제 간임
- 김대진(金大振) 왕신리, 왕신리, 권우갑에게 배우다가 중단
- 최성옥(崔成玉) 왕신리, 왕신리, 권영호에게 배우다가 중단
- 권영출(權寧出) 왕신리, 충남 강경, 권영호에게 배우다가 강경으로 이주하여 종사

13) 김택규(1981), 「무형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경상북도, 매일원색정판사.

- 권인수(權仁秀) 왕신리, 경남 울산, 권영호의 제자, 울산으로 이주하여 시장(矢匠) 조명제와 합작하여 조궁 종사, 사망
- 권오수(權五洙) 왕신리, 경남 마산, 권영호의 제자
- 배재현(裵在賢) 왕신리, 왕신리, 권영호의 제자, 사망
- 권종익(權鍾益) 왕신리, 경기 수원, 권영호의 제자
- 이치우(李治雨) 왕신리, 왕신리, 권영식 아버지의 사위로 권영식의 제자
- 권영식(權寧植) 왕신리, 왕신리
- 김봉원(金奉元) 왕신리, 경남 진해, 아버지(김형준)의 제자, 일제시대부터 종사
- 정태수(鄭泰洙) 지보면, 지보면, 왕산골 김씨의 제자, 일제시대부터 종사, 사망
- 권영덕(權寧德) 왕신리, 전북 정읍
- 박찬석(朴贊錫) 왕신리, 강원 원주, 권우갑의 제자, 자립하여 나감



<권영록 궁시장 계보, 제작 작품 및 궁시장의 자택 앞 단체 사진>
궁장은 가운데 앉아 한복차림으로 있음(자료: 권오규씨 자택 보유)

금지로 이어온 「造弓家」 4百年

37년:醴泉 權五奎씨

중국의 창과 일본의 칼
그리고 우리의 활을 일
원삼이다.

왔다.

리민족(東夷)이라고 불렀다. 이중夷자를 풀어보면 큰대(大)와 활공(弓)자가 된다.

[illegible]

그는 이후 37년째 한
한편 안팎도 두루히 학

조선조 肅宗때 절충장
군을 지낸 12대조 權繼



만물을 만들어왔다.
활한대 만드는데 걸
리는 기간은 4개월. 4
백여차례나 손이 가야 하
는 복잡하고 정교한 작
업이다.

[illegible]

중요한 부분이다. 이곳이
약하면 활은 당기자마자
그대로 부러져 버린다.
물소뿔은 태극과 말레
이시아에서 수입해 쓴
다. 그러나 최고급물소

즐궁궁나무 대나무 참나무 등 활 한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는 많다. 또 풀은 휘어도 이물새가 떨어지지 않는 부레를 (서해산 민어에서 뿜는) 을 쓴다.

중국 四川省 산. 權씨의 선조들은 모두 四川省 산 물스발을 들었다. 權씨 만들었다. 때문에 權씨의 소위도 이발을 들었다.

과장처럼만이라도 이뤄진
다. 길을 재는 자나
강도를 다그쳐서 물어
아예 없다.

중요하다. 정심정념(正心正念)。오늘의 삶에만 몰두해야 좋은 삶이 만들어진다.

보통 50만원꼴을 받는다. 재료값은 15만원. 1년에 1백개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순이익은 3천5백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매달 20만원씩의 전수비를 받아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권씨는 요즘 조국헌
전수 때문에 시름이 많
다. 장남이 곧이 마다하
는 바람에 현재 그의 전
수생은 전문대출신인 박

『나야 옛날에 선친의
얼굴에 꿈쩍 못하고 다녔
지만 요즘 젊은이들이야
어디 그럴습니까. 싫다』

는것을 억지로 시킬 수
는없는일이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조금가의 종손인 權씨의
얼굴은 그리 밝지않은

안다.
△醴泉崔和敬기자△

다선조들의 활 못지않
는 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조금가의 종손인 權씨의
얼굴을 그리 박자만은
않다.

〈醴泉崔和敬기자〉

잔손질 4百여번 가는 정교한작업

“7가지 秘法중 角弓만 알아 안타깝다”

1 대에 50萬원... 年100여대 생산

조궁가의 종손權五奎씨. 37년째 활을 만들어 온 외갓 인생이다.

先親불호령에 17세부터 修業



<권오규(작고) 인터뷰: 금지로 이어온 조궁가 400년>

자료: 동아일보 1991.07.25. 16면

(2) 시장

○ 김종국(金鍾國)¹⁴⁾

- 조명제의 제자, 국가무형문화재 47호 궁시장(2008. 05. 07~)
- 1938년 일본 히로시마 출생(등록 1940년)
- 전라남도 여수에서 고등학교까지 성장
- 1960년 5월 ~ 1962년 경남 마산시 추산동의 전방(箭房)에서 조명제에게 사사
- 1962년 예천으로 독립하여 전방을 차림
- 1978년을 궁시장 전수 장학생에 조삼래(조명제 아들)와 함께 선정
- 점반죽법(點斑竹法) 복원
- 김민철(아들, 대구)과 김병욱(포항)이 전수를 하고 있음

(3) 관계자 인터뷰

□ 권오진

○ 인터뷰 날짜: 2016. 08. 05

○ 인터뷰 장소: 경상북도 예천 자택

○ 인적 사항: 권영록 궁시장의 7형제 중 5남

○ 주요 인터뷰 내용: 권영록 궁장의 계보와 가업 단절의 내력

○ 인터뷰 내용

- 권영록 궁장의 작품은 국민들에게 선물로 제공된 경우가 많음(미 레이건 과 당시 부시 부통령, 일 후쿠다 수상 등)
- 예천국궁전수관과 예궁정(예천양수발전소 내)에 권영록 영상 자료 제공
- 권영록 궁장의 자료는 거의 유실 됨
- 조선시대 활 10만장을 헌납함
- 권영록 궁장이 김동학 전통장, 유영기 궁장을 국가문화재로 추천함
- 권영덕 전수자(영주)는 현재 알콜중독으로 국궁제작이 어려움
- 권영록 궁장은 한글학자 한갑수, 이성근 동국대 총장, 정진동 국회의원, 김수학 국

14) 한국문화재단, <http://www.chf.or.kr>

세청장(도지사) 등과 교류

- 물소 뿔 수입에 어려움(콜레라 전염병)을 정부(청와대)에서 해결해 줌
- '71년에서 '84년 무렵까지 활 제작의 전성기를 이룸
- 국풍81 당시 KBS촬영 후 귀갓길에 무단행동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신체적 어려움을 겪음
- 권우갑 공장과 친분이 깊었음, 아들 권영학은 교사를 하다 40세 이후에 활을 배움
- 대학교수(영대 또는 경대)에 의해 권영학 공장의 계보가 잘못 소개되어 소송으로 비화되고 장남 권오규와 시비가 일어남
- 김성락 전수조교는 권영호에게서 사사
- 천안 권영무, 전주 권오철, 마산 권오수 공장이 같은 계보임
- 국궁은 지금의 골프에 해당했음(부유층 들이 활을 쏘)
- 예천 한천이 활터였음
- 이승만 대통령이 뿔 수입이 가능하도록 함(일제시대에는 뿔을 수입할 수 없어 10년 정도 활을 계속 제작하기 어려웠음)
- 필리핀, 버마에서 활을 수입함
- 조궁작업은 앉아서 상체만 사용하여 건강에 좋지 않음
- 권오규(1남), 권오덕(3남, 실력이 더 뛰어나다 함)에게 전수
- 양궁도 국궁을 바탕으로 발전한 것으로 봄
- 권기철(권오규 장남, ㈜동양산업 부사장)이 활 제작을 배우고 싶어 함
- 권무석 공장은 황학정 사범을 하다가 제작을 하게 됨
- 활고자로 제작자와 솜씨를 구분하였음
- 유영기 공장이 관련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
- 화피는 임진강, 대나무는 담양
- 부레와 소힘줄(수작업, 2마리 등심줄이 활 하나 제작)을 전국적으로 수배
- 최규하 국무총리 시절 활 한 장에 300만원 정도
- 한글, 활자, 활이 한국을 대표함
- 제작과정 중 심농이가 가장 어려운 과정으로 기억함

□ 김성락

○ 인터뷰 날짜: 2016. 08. 05

○ 인터뷰 장소: 경상북도 예천국궁전수관 내 공방

- 인적 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전수교육조교
- 주요 인터뷰 내용: 경기궁과 예천궁과의 관계와 발전 방향
- 인터뷰 내용
 - 도산어른 권태욱(권영록의 삼촌, 권영덕의 부)에게서 김형준(조부)이 사사한 후 김봉원(부, 진해)과 김기원(삼촌, 부천공방 이수자)에게 전수함¹⁵⁾
 - 김성락 본인은 '83년(중 3) 양궁을 먼저 시작하고 대학졸업 무렵 국궁을 배움
 - 부천에서 제작한 김장환 공장은 개성에서 활을 제작하다 이주(조부와 부의 대를 이어 개성에서 활을 제작하다 이주)
 - 예천 왕신1리 출신의 김박영 공장은 왕신2리 고종사촌형 이치우에게서 먼저 사사를 하고 부천 김장환 공장 문하생으로 28세 경 들어가 전수하여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었으며 현재 아들 김윤경이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됨
 - 김성락 본인은 김기원(숙부)의 천거로 김박영 공장(왕신1동 출신으로 이치우에게 사사 후 28세 경 부천으로 이주)에게 사사하고 김윤경과 함께 전수교육조교(2009년 9월)로 지정됨
 - 예천궁과 경기궁 모두 배우게 됨
 - 예천궁은 경기궁에 비해 복원력이 보다 강하여 다루기 어려움(힘줄과 민어부레를 섞어 다루는 것이 다름, 예천궁은 유강하게 제작함)
 - 예천궁은 기궁되었을 때 굴곡(3자형)이 보다 현저함(쭈뚱의 곡선이 있음, 마지막까지 힘을 실어 가는 추진력이 좋음, 살이 끝까지 살아서 날아가고, 맞는 소리가 강하며 낮은 곳에서 솟아오름)
 - 경기궁은 사용하기 편하고 예천궁은 다루기 까다로움
 - 다른 나라 활과 다른 점은 복합강궁이라는 점
 - 운동용은 300m 정도 가고 살상용인 막막강궁이 되면 400m까지도 갈 수 있음
 - 전투용 활은 자료가 남지 않았고 각궁의 제작에 대한 설명만 무기도설에 있음
 - 터키는 사슴의 힘줄과 철갑상어의 어교를 사용하여 복합궁을 만들고 다른 나라의 복합궁은 힘줄이 없거나 힘줄을 사용해도 어교 없이 감아서 사용하기도 함
 - 역사적 활을 만들려면 생업에서 벗어나야 함
 - 우리나라 활을 만드는 사람은 13명 정도 됨, 기성 재료를 활용하여 기계로 제작함(5년이면 전체 제작과정을 익힐 수 있음, 그렇지만 보다 어릴 때 배워야 제대로 된 기술이 전수됨)
 - 대표적인 공장은 김성락(예천), 김윤경(부천), 권오철(전주), 주장웅(세종시), 권영덕

15) 김장환의 아들 김기원과는 서로 다른 사람

(영주) 등이 있음

- 예천궁은 제작 시 뿔을 매는 방식이 경기궁과 다름
- 국궁은 양궁보다 몸으로 익히는 것이 많음(운7기3)
- 국궁 회원이 활축제 덕분에 20여명에서 80여명으로 늘어남
- 권영학 공장은 제작을 멈춘 지 20년 정도 됨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뿔을 수입함



<김성락 전수교육조교>

자료: 매일신문 2014.07.11



<권영학 궁시장>

자료: 연구자(궁시장의 자택 공방)

□ 권영학

- 인터뷰 날짜: 2016. 08. 27
- 인터뷰 장소: 경상북도 예천 자택
- 인적 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 주요 인터뷰 내용: 예천 궁의 역사와 가업 그리고 발전 방향

○ 인터뷰 내용

- 예천 활에 대한 객관적 기록과 연구가 필요함
- 우리나라 활 국궁은 복합단궁으로 승마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짧고 강한 활로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짐
- 우리나라의 활은 10여 가지가 있었으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심신수련용인 각궁만 남게 되었음
- 고구려 때 중국에 조공한 맥궁은 박달나무활을 의미함
- 활과 화살의 원형은 그림으로만 남아 있음
- 서양의 활은 옛 활의 실물이 존재함
- 예천 활 제작의 시작은 1920년대로 왕산골 안동 권씨의 집성촌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짐
- 전선궁술대회(全鮮弓術大會)등에 공급됨
- 이북(함경, 평양 등)이 활성화 되어있었음
- 경궁(서울 활)이 예천활보다 3배 비싼 값을 받았음
- 개성, 서울, 예천, 전주, 여수, 광양 등에서 활이 생산되었음
- 1937년 중일전쟁 무렵 활쏘기가 중단되고 활 만들기도 중단됨
- 1953년 한국전쟁 휴전까지 활 만들기가 중단됨
- 1954년부터 예천과 서울(장진섭, 장문환, 장기홍 등)에서만 활을 다시 만들기 시작함(재현기)
- 가게에서 봄에 20장 가량을 생산함
- 왕신동에서 여러 사람이 활을 만들기 시작함(농사보다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됨)
- 활 제작은 온 집안이 참여해야 함
- 1960년대 중반에는 부자의 생산량으로 남부지역의 소비를 소화함
- 당시 서울에서는 하대를 하기도 하였지만 그 무렵 활 품질에 대해 인정받아 남부지역보다 더 받게 됨
- 활을 만들기 어려워져 다른 지역 사정의 관리인으로 나가 활을 만들기도 함
- 본인은 활을 제작하면서 활을 쏘아 인정(30여년 우승) 받았음
-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활 작업 밖에 할 수 없게 됨(4남3여 모두)
- 시장이 활성화되어 활 120장, 150장, 200장 생산함, 활 1장에 논 한 마지기를 살만큼 잘 팔림
- 예천여중의 양궁부를 창설을 주도하고 13년 동안 운영에 역할 함
- 1983년 금호그룹 부회장 박종구와 협의하여 대한궁도협회에서 양궁협회(현대 정몽구)를 분리함

- 1970년에 창단하여 197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등 5개국 참가)에 김진호(고2)가 후보로 출전(대한궁도협회 신동업회장)하여 5관왕을 차지하였고 그 성과로 예천군 공설운동장 옆에 진호양궁장이 건설됨
- 국가적 관심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앞 다투어 양궁선수단이 창설되고 예천이 활 제작과 활쏘기의 중심이 됨
- ‘활의 고장 예천’ 특허
- 부는 권선복에게서 사사함(활쏘는 과객에게서 활을 배우게 됨, 1920년대)
- 가게의 5대조가 예천 왕신동 입향조임
- 김장환(부친)은 활 제작에 앞서 활쏘기와 활 판매(중개)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함
- 김한영씨와 협력하여 양궁부 창설, 필드하기 선수인 김진호, 황숙주, 남옥순 등을 선발함(장용수 체육선생이 반대함)
- 군수가 예천궁도협회장(조용수)을 맡아 예천양궁실업팀을 운영함
- 제자가 12명이 있었고 아들 권창훈, 권동훈을 전수자로 신청함
- 활의 값을 대한궁도협회에서 균일하게 책정하고 판매자를 지정하여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함

□ 김동학

- 인터뷰 날짜: 2016. 08. 27
- 인터뷰 장소: 경상북도 경주민속공예촌 내 조선목기공예 공방
- 인적 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93호 전통장
- 주요 인터뷰 내용: 예천 궁과의 관계와 발전 방향
- 인터뷰 내용:
 - 전통 공급을 위해 국가무형문화재인 권영록 궁시장을 찾아가 70년대부터 20여 년간 함께 활동함
 - 인간문화재 용어를 처음 쓰고 발굴한 예용해(한국일보 기자출신 민속학자)가 예천의 활을 발굴하고 권영록 궁장의 문화재 지정에 관여함
 - 예천 남본동, 왕신리에서 권씨들이 활을 제작함
 - 권영록 궁장은 개성에서 활을 제작하다 예천으로 이주함(장단은 화살이 유명함)
 - 권영록 궁장에 의하면 권율장군 때부터 집안에서 활 만들기를 시작한 것으로 들음

- 권영학 공장은 활터에서만 만남(활을 엮고 부친의 활을 판매함)
- 권영록 공장의 활은 권오규씨가 활을 팔러 다녔고 권영학 가게와 서로 경쟁함
- 국궁의 사용법, 재료 수입의 어려움 그리고 대한궁도협회의 제한 때문에 선물 외에 일반적 판매가 어려움
- 전통무예의 문화재 작품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함
- 대한궁도협회에서 원주 권오철의 물소 뿔 수입에 관하여 조사한 것으로 기억함
- 권영학 공장과는 거래가 많지 않았음
- 국궁 제작의 발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존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전국적으로 전파된 활 제작자는 권영록 공장의 집안임
- 권태은의 제자인 경주의 박극환도 권영록 공장의 계보이지만 품으로 더 이상 작업을 못함
- 김종국 시장은 마산의 조명제 궁시장에게 사사함
- 유영기 시장은 실력이 출중하였던 부친(개성 반장)에게서 전수함
- 권영록 공장에게서 사사하던 김박영 공장은 부친의 김장한 공장에게 사사 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됨



<김동학 전통장>

자료: 한국문화재단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fpcp2010>



<김윤경 전수교육조교>

자료: 경기신문 2013.08.08

□ 김윤경

- 인터뷰 날짜: 2016. 09. 02
- 인터뷰 장소: 경기도 부천시 성무정 내 공방
- 인적 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전수교육조교
- 주요 인터뷰 내용: 예천 궁과의 관계와 비교 그리고 발전 방향
- 인터뷰 내용
 - 부친 김박영 공장과 조부(김흥경)도 왕신동에서 농한기를 중심으로 활을 제작함
 - 김장환 공장은 장단에서 활을 제작하였음
 - 부친은 조부를 일찍 잃고 예천의 고종사촌인 이치우에게서 활을 사사함
 - 김박영 궁시장은 활 제작이 바쁜 시기에 예천에서 부천에 올라와 활 제작을 돕다가 김장환 궁시장의 눈에 들어 1965년경 자리를 옮기게 됨(당시 부천이 예천보다 규모가 크고 체계적이었음)
 - 이수자였던 김장환 공장의 아들 김기원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김박영 공장이 계보를 잇게 됨
 - 예천의 김성락 전수교육자는 예천 출신이며 진해에 거주하던 김봉원(김기원의 형)씨의 아들
 - 재료를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 제작이 점점 어려워짐
 - 우리나라 활 유물은 없지만 제공 기술이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음
 - 다른 나라의 활 유물이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는 활터에서 계속 사용되어 남아 않은 것으로 보임
 - 활의 곡선, 고자 등이 많이 변해 옴
 - 예천 활은 투박한 느낌이 강하고 부천 활은 날렵한 느낌
 - 연간 70장에서 100장정도 생산하는 실정이고 많아지면 품질이 떨어짐
 - 제작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 독일 수집가에 의해 과학적 자료가 정리되었으나 소실됨
 - 예전에는 국궁과 양궁을 같은 장소에서 쏘았음
 - 국궁은 활쏘기가 어려워 대중적 접근이 어려움
 - 활터가 많이 있어 국궁 제작의 명맥이 전승됨
 - 천안민속궁대회에서 세계 활을 비교해 볼 수 있음

- 다른 분야로 응용시킬 수 있는 공예가 아니고 10년은 되어야 활을 배울 수 있음
- 1년이 지나야 전체 과정을 한 번 경험하게 됨
- 학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적 토대나 확장방법이 없음



<유영기 궁시장>

자료: 한국문화재단



<권무석 공장>

자료: 뉴스천지 2012.02.27

□ 유영기

- 인터뷰 날짜: 2016. 09. 30
- 인터뷰 장소: 서울특별시 서울국가무형문화재전수회관 내 공방
- 인적 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 주요 인터뷰 내용: 시장과 공장의 관계, 예천 활과의 관계
- 인터뷰 내용
 - ‘전통’보다는 ‘동개’가 더 평가를 받았고 제작도 어려움¹⁶⁾

16) 동개는 순수한 우리말로 시복과 궁대를 결합하여 왼쪽어깨에 매어 겨드랑이에 차는 기구로 고건, 궁 시대라고도 함. 조선후기 순조 때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창복이라 함(창은 활을 넣는 활통이고 복은 화살을 넣는 통). (자료: <http://www.emuseum.go.kr>)

- 권영록 공장과 선친(유복삼)이 친분이 많았음 장단에서 함께 활동함, 당시 북쪽에는 활을 만드는 사람이 없어 활을 만들어 우편 또는 직접 판매함
- 판매지역은 북으로는 나남, 웅기, 만주의 도문까지 남으로는 남해까지 판매함
- 예천은 활로 유명하고 장단은 화살로 유명하였음
- 양궁이 발전되어 있지만 국궁은 멋있고 유연함
- 양궁은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 들어가지만 국궁은 만작에서 편하여 활을 유연하게 조작할 수 있음
- 선친은 예천 김종국 공시장의 스승인 조명제 공시장(선친의 이종사촌 동생, 전주, 마산 등으로 이주)과 교류하였음
- 제일 제주가 좋았던 윤영빈씨가 선친의 조교로 활동하다 이북으로 감
- 파주에 있는 가계의 선산에 영집공시박물관을 설립함, 현재는 아들인 유세현 전수 조교가 실질적으로 운영함
- 선친은 장단에서 조부(유창원)와 개풍 출신의 창훈씨에게 사사함
- 화살은 7개 또는 10개를 한 조로 제작함(1순은 5개)
- 활은 습관, 힘, 자세 등에 따라 취향이 다름
- 점수는 부천의 활이 더 잘 나온 것으로 기억함
- 화살대는 3년생 이하를 사용함(오동도의 대가 유명하였음)
- 전국으로 대를 구하러 다녔음
- 한 달에 100개까지 생산하였고 선친 때는 화살 하나에 쌀 한 말
- 일제 강점기에는 쌀 한 말에 쇠고기 한 근에 해당
- 손자(유호상)도 전수생으로 활동함
- 정부는 부족한 지원에도 전수생을 키우길 요구함
- 궁도협회는 전통공시가 아닌 개량공시를 사용하게 함
- 박물관 설립 후 전국적 조사와 고증을 통해 시대별 화살을 재현하고 있음
- 육사 군사박물관과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화살을 복원하였음(신기전 등)
- 화살의 현대화도 중요함
- 차경연이라는 분이 프라스틱활을 처음 실험하였고 후에 이병준(개성사람으로 성균관대 출신)과 함께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여 개량궁을 실험하여 제작하였으며 김종국 공시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예천 화살의 축은 길고 현재는 짧았음 현재는 적중되어 들어가지 않아도 됨으로 짧아짐(내축에는 자신의 호를 넣어 사용함)
- 구별을 위해 축에 무엇(라벨)을 씌우거나 들기름 등으로 닦으면 화살의 걸음이 달라짐
- 화살은 지푸라기로 때를 닦아 보관함

- 활터에서 관중하면 이름을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었음(관중이 되면, ‘~나리, ~시에 관중이요’하고 소리침)
- 골편사 시 증손자가 관중하면 조부가 춤을 춤(3, 4대가 같이 어울림)
- 백정, 기녀, 서민이 노는 활터가 따로 있었음
- 가문의 활터는 정해져 탄 곳에서 쏘지 못하게 하였음
- 활은 우선 높고 멀게(위로 100보 아래로 100보) 쏘도록 하고 처음부터 과녁을 맞히지 않음(전통불기: 제대로 못하면 전통으로 불기를 침)
- 사두와 임원은 높은 자리에서 활을 쏘

서울무형문화재 제23호

궁장 권무석



궁장 권무석

안동권씨 추밀공파 권무석 궁장은 300년 동안 내려온 가업을 잇고 있다.

궁장계보

안동권씨 추밀공파 역대궁장계보
(安東權氏 樞密公派 歷代弓匠係譜)

11代組
계황(繼黃)

10代組
광필(光弼)

9代組
휘일(輝一)

8代組
운인(運仁)

7代組
성은(聖殷)

6代組
희직(熙直)

5代組
순익(舜益)

高祖

만영(萬永)

會祖

병위(丙禧)

祖父

중락(重落)

父

태욱(泰郁)

兄

영호(寧浩)

12대 궁장
무석(武奭)

권무석 궁장은...

권계황은 활을 예천 관아에 납품하는 궁장(弓匠)이었다. 그가 죽자 아들이 활을 만들었다. 그 아들이 죽자 손자가 활을 만들었다. 그 손자가 죽자 또 그 아래가 활을 만들었고, 자, 그리하여 권계황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안동 권씨 34세손 권무석(權武奭)이 지금 활을 만들게 됐다.

모든 게 광속(光速)으로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권무석 궁장은 300년 동안 가업(家業)을 잇고 있는 무시무시한 고집쟁이다.

권무석 궁장은 서울 종로구 황학정의 사범과 경찰대학교 국궁지도 강사, 육군사관학교 국궁지도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전통문화학교의 지도 강사로 활동중이다

권무석 궁장의 활은 현재 1년에 100여개 남짓 생산이 되며, 각궁을 쓰는 궁도인들에게 판매가 되거나, 선물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권무석 궁장의 각궁은 2008년 한미 정상회담의 대통령 교환 선물로 쓰이기도 했다.



<권무석 궁장의 계보>

자료: 권무석 궁장의 서울무형문화재 돈화문 교육전시장 내 공방

□ 권무석

- 인터뷰 날짜: 2016. 10. 14
- 인터뷰 장소: 서울특별시 서울무형문화재단화문교육전시장 내 공방
- 인적 사항: 서울무형문화재 제23호 공장
- 주요 인터뷰 내용: 예천 공장의 계보
- 인터뷰 내용
 - 300년의 가업을 이어옴(권영록 공시장과는 사촌 임, 권영록 공시장의 선친은 권태 선이고 권무석 공장의 선친은 동생 권태욱 임)
 - 큰형인 권영호 선생을 서울(반동 무허가 주택)로 모셔와 활제작을 배우고 황학정의 활사범으로 가게 됨(1980년 추석 권영호의 권유로 조공 시작)
 - 장진섭(작고) 공장에게서도 조공을 배움¹⁷⁾
 - 장석후 명예사범에게 활의 내력과 전통사법에 대해 배움¹⁸⁾
 - 권영학은 2대째로 선친이 가게의 먼 친척에게 배움(10촌 정도의 할아버지, 권선복 추정)
 - 김성락 전수조교의 부친(김봉원)은 진주 벽해정과 부산의 사직정의 사범을 하였음
 - 4년 전 예천에 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¹⁹⁾
 - 그렇게 예천국제활축제 개최에 힘을 실었으나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함
 - 2008년 정부지원(2천만원)으로 미국에서 국궁을 소개하였고 지금도 교류함
 - 이명박 정권 시기 활 3장을 외교 선물로 가져감
 - 권영록 공장의 동생으로 제궁 솜씨가 출중하였던 권영덕 선생(영주 이산면 거주)은 주사가 심하여 희망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활을 제작하기 어려움
 - 김성락의 조부는 권영록 공장과 친구 사이였음
 - 예전에는 활 제작을 뽕나무로 제작하였고 지금은 아가시아로 함
 - 아들 권오정이 전수자로 있음
 - 옛 활을 구입하여 서울역사박물관, 육사박물관 등에 기증하고 하나는 지니고 있음
 - 예천에 집이 마련되면 내려가고 싶은 마음
 - 권영학 공장의 부친은 조부(권중락)에게서도 배움

17) 장진섭 공장은 고종황제의 활을 만든 가게의 서울무형문화재 공장

18) 1901년에 출생한 장석후 명예사범은 서울무형문화재 제7호 활쏘기 장인으로 16세에 집궁하여 1997년 타계시까지 80년을 집궁함.

19) 실제 예산을 확인한 결과 국비지원 없이 도비와 군비만으로 행사가 개최되었음

- 예천활은 무디고 부천활은 날렵함
- 권영록 공시장은 일제 강점기에 개성에서 활을 제작하다 도박을 해서 어려워지자 예천으로 내려오게 됨
- 권영학 공시장의 조부(권오련)는 한학선생으로 활을 제작하지 않았음
- 김성락 전수조교의 조부(김형준)와 권영학의 선친이 친척 할아버지에게서도 활 제작을 배움(권중우로 기억)
- 무학정은 대심동에 있었으나 61년 남본리(남산)으로 옮겨짐(이사 과정에서 선친과 큰아버님의 이름이 사라짐)
- 석호정에서 국궁을 하던 석봉근 감독이 양궁의 김진호 선수 등을 가르침
- 해외 국가대표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음(감천 온천 등의 개발이 필요함)



<김종국 공시장>

자료: 데일리안(2008.05.13); 한국문화재단

□ 김종국

- 인터뷰 날짜: 2016. 11. 12
- 인터뷰 장소: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2016 대한민국무형문화재대전
- 인적 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 주요 인터뷰 내용: 예천 시장의 시작과 예천 활의 제작
- 블로그: <http://blog.daum.net/ccojun/10701045>
- 인터뷰 내용
 - 기록에 근거하여 계보 등 활 관련 내용을 정리해야 함
 - 마산에서 조명제 선생에게서 죽시 제작 기술을 터득함
 - 권도갑, 권우갑, 권선출 등이 마산에서 활을 잘 팔았음
 - 예천군 지보면 정태수와 친분(마산에서 수금을 해주기도 함)이 깊어 활 제작을 사 받음
 - 1962년 왕신으로 옮겨 죽시공방(화살방)을 열게 됨
 - 권영록은 예천읍에서 활 제작을 함
 - 권도갑, 이치우, 권태후(샘집), 권선출, 석계수(은고개) 등이 활을 만들었음
 - 중앙일보 이종석기자가 예천활의 원류를 고전 등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함
 - 다만 일제강점기 통제부 기록 중 대심동(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서 운영되던 국내 유일한 쇠고기통조림공장이 그 원류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함
 - 그 이유는 쇠심줄을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함
 - 예천에서 이수자가 되고 후보자가 된 후 2008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음
 - 권영록공장의 가게가 양반의 집안이라면 누대에 걸쳐 활 제작을 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려움(왕신의 권태구씨와 권씨 파벌에 대한 다툼이 있었음)
 - 일제 강점기에도 지역 유지들이 계속 활을 쏘았음
 - 70년대에 황주용회장이 주축이 되어 지역 기관장들이 참여하여 무학정(남산)에서 활을 많이 쏘아 활성화 됨
 - 무학정에서 회원 중심으로 대갈림으로 편사놀이를 하기도 함
 - 양궁 봄에 힘입어 차경현(궁도협회전무이사)이 조립식 개량궁을 제작하여 국궁의 변화를 도모함

- 한국화이버와 같이 직접 개량궁을 개발하여 실용신안 등록도 함(1970년대)
- 처음에는 개량각궁을 만들기도 함
- 아들(김민철)이 대구에서 개량궁을 만들고 있음(죽시도 전수하였음)
- 포항의 김병욱씨가 1964년경부터 계속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음
- 현재는 죽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이수자에게 전수하고 있음
- 현대에 맞는 개량궁 등 작업이 필요함
- 권선출 아들은 포항에서 작고, 권인수 아들 권오수(마산)와 권오철(전주), 권영무(천안, 형 권영익에게 사사, 권영익은 권영호에게 사사), 권영우(원주, 권영록에게 사사, 작고) 등이 출향하여 활을 제작함
- 부천 감장환씨의 아들 김기원씨과 친분이 있었음
- 활은 지속적으로 보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제작한 활을 사용하게 됨
- 국궁의 인간문화재는 과학적 검정을 통한 인증이 필요함
- 과학적 기록은 전수와 발전에 필요함
- 석계수(권선복에게 사사), 이치우(권태규에게 사사, 권태규의 사위) 등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활 제작 평판이 좋았음
- 학생들이 활을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
- 활 생산은 각 재료에 품질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기초적 자료 축적이 필요함
- 죽시는 3만원, 카본시는 8만원 수준이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궁도협회에서 입문자는 개량궁을 쓰게 하고 적정 수준이 되었을 때는 각궁을 쓰게 해야 함
-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심신을 단련하면 5발 중 3발을 맞추는 3중 무사, 2중 무사, 시수꾼²⁰⁾ 등 과거의 등급이 사라지고 일본식 등급을 사용하고 있음

□ 김동순

- 인터뷰 날짜: 2016. 11. 17
- 인터뷰 장소: 전화(영주 집 연결)
- 인적 사항: 권영록 궁시장의 사촌동생인 권영덕의 처
- 주요 인터뷰 내용: 작업 내력과 중단 사유

20) 관사(官射) 과녁에 화살 50개를 쏘아 25개 이상을 맞히는 사람(자료: 국립국어원)

○ 인터뷰 내용:

- 예천에서 50여 년 전에 결혼할 당시 권영덕씨는 활을 제작하고 있었음
- 결혼 6년 후 대전(6년), 부여(6월), 정읍(7년), 구례(4년), 예천(1년) 등 여러 지역에 머물며 활을 제작하였음
- 이 후 영주에 정착한지가 30여년이고 5년 정도 전부터 활 제작이 중단됨
- 중단된 이유는 심한 음주 때문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 활 제작은 두 명이상이 하여야 하기 때문에 활을 같이 만들었고 특히 부레, 쇠심줄 관련 작업을 많이 하였음
- 자녀로 딸만 있어 더 이상 가계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성에 거주하는 처남인 김동만(현 67세)씨가 23, 4세 경에 활을 사사하여 계속 권영덕씨의 작업을 전수자로서 도왔으나 최근에는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활 제작 도구를 보관하고 있음

2) 단체

□ 무학정(예천군체육회 가맹단체)

- 1934년 10월 예천 대심리 봉덕산 중턱에 무학정 건립, 황병택 초대 회장
- 1951년 10월 경북궁도협회 인준
- 1961년 6월 남산 이전(1대 회장 한태섭)
- 2005년 10월 제1회 예천군수배 남녀궁도대회 개최
- 2016년 8월 제10회 예천군수배 남녀궁도대회 개최

3) 시설

□ 향사당(鄉射堂)²¹⁾ 터

- 예천읍 서본2리 향사당골에 있었다고 함
- 향사당(鄉射堂), 향사우(鄉祠宇), 향현사(鄉賢祠), 향현사 강당(鄉賢祠講堂), 향청(鄉廳), 유향소(留鄉所), 사당(祠堂) 등으로 불림
- 1488년(성종 19년)부터 복립(復立)을 준비하여, 1492년(성종 23년)에 착공하여 이듬해(1493년) 준공됨
- 좌·우동(左右棟)과 주소(廚所) 등 20칸의 건물
- 임원은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2명을 둠

□ 군창지

- 비룡산 원산성(圓山城)²²⁾ 내 군창지(軍倉址) 유적이 남아있음
- 흑응산성(黑鷹山城)²³⁾ 내 군창지에는 농막이 있고 산 정상에는 성황당이 남아있음

21) 향사당(鄉射堂)은 향당(鄉黨)의 나이 많은 어른들이 모여서 향중(鄉中)의 여러 일들을 의논하거나 향사(鄉射: 향원들이 서로 편을 갈라 활쏘기 재주를 겨루는 의식)·독법(讀法: 향민을 모아 놓고 법령을 읽어 알리는 의식)을 하며 향안(鄉案)을 보관하고 삼향임(三鄉任: 좌수·좌별감·우별감)이 상시 근무하던 청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22) 성벽 둘레는 1,000여 미터이며 성벽의 높이는 지형에 따라 약 1.5~3m로 축적된 토석 혼축성(자료: 현장 유적 안내 표지)

23) 해발 100m의 흑응산 정상에 흙과 돌을 섞어 쌓은 산성으로 내성과 외성 이중으로 이루어졌고 덕봉산성 또는 봉덕산성으로도 불림, 성벽의 둘레는 1,900m, 높이 3~4m임, 내성 안에는 우물 2개와 연못 1개가 남아있고 민무늬토기와 신라 토기의 조각이 발견되었으며 고인돌 3기가 발견되어 부족국가 시대에 축조된 성으로 추정함(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44호,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산14번지, 자료: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무학정기, 무학정 이건기 그리고 현재의 무학정>

자료: <http://cafe.naver.com/kwangdukjung/512>; 권창훈(2004), 경북 예천 궁도가 한국 궁도계에 미친 영향, 30-31.

□ 무학정

○ 주소: 경북 예천군 남본리 176-1

○ 개관일: 1934년 10월

○ 남산 무학정 규모(2001년 이후)

- 부지면적: 33,028m²
- 건축연면적: 273m²
- 경기장면적: 3,053m²

○ 연혁²⁴⁾

- 1934년 6월 1일 예천읍 대심동 봉덕산 중턱에 건립
: 사장 황병택, 총무 이정백, 배태후 등
- 1961년 6월 대심리의 옛 사정(목조건물)을 지금의 예천읍 남산공원 내에 이전
- 1983년 부속건물 건립
- 2001년 5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철근 구조로 된 현재의 사정 신축

□ 예궁정

○ 예천 양수발전소 내



<예궁정>

자료: 국궁신문(2013. 03. 18)

□ 예천국궁전수관

○ 주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왕신길 245

○ 소유자: 예천군

24) 권창훈(2004), 경북 예천 궁도가 한국 궁도계에 미친 영향, 석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운영형태: 민간위탁(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전수교육조교 김성락)
- 입지여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함
- 건립비용: 6억원(국비 3억. 지방비 3억)
- 개관일: 2006년 9월 1일
- 규모: 부지면적-1,000㎡, 건축연면적-284.47㎡
- 구성: 전시실(54.7㎡), 로비(27.6㎡), 작업실1(48.6㎡), 작업실2(36.4㎡)
- 보유자료:

영상물 (2점)	사진 (50점)	도서 (20권)
문서/기록물 (2점)	실물자료-의상 (30점)	도구 및 악기 (20점)



<예천국궁전수관>

자료: 국립무형유산원, <http://www.nihc.go.kr>

4) 관련 행사

□ 전조선궁도대회

○ 3군연합궁술대회(예천군, 상주군, 김천군)

- 1925년 5월 31일
- 장소: 한천 사장(射場)
- 상주군 황봉주 1위

○ 3군연합궁술대회(예천군, 상주군, 김천군)

- 1930년 4월 2일
- 장소: 무학정
- 1위 남사 김홍수(예천), 여사 박금희(김천), 편사 김성문(김천)

○ 4부군 궁술대회(대구부, 예천군, 상주군, 김천군)로 확대

- 1932년 5월 28일, 29일
- 장소: 한천 사장
- 1위 홍윤길(대구)

○ 전조선궁도대회로 승격

- 무학정 주최,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지국 후원
- 1936년 5월 18일 ~ 21일
- 장소: 한천 사장
- 참가자 전국 100여명
- 1위 남자부 이규평(경주), 여자부 장계사(경주)

□ 경상북도민체육대회

- 1971년 제9회 도민체전 궁도 우승(궁도종목 처음 추가)
- 1972년 제10회 도민체전 궁도 단체 1위
- 1974년 제12회 도민체전 궁도 단체 우승, 개인 2위
- 1975년 제13회 도민체전 궁도 남일부 단체 우승, 남일부 개인 2위

- 1976년 제14회 도민체전 궁도 남일부 단체 우승
- 1977년 제15회 도민체전 궁도 남일부 단체 준우승, 남일부 개인 1, 2위
- 1979년 제17회 도민체전 궁도 남일부 단체 우승, 개인 1, 2, 3위
- 1980년 제18회 도민체전 궁도 일반부 단체 우승, 일반부 개인 1, 2위
- 1981년 제19회 도민체전 궁도 일반부 단체 우승, 일반부 개인 2, 3위
- 1982년 제20회 도민체전 궁도 일반부 단체 우승, 일반부 개인 1위
- 1983년 제21회 도민체전 궁도 일반부 단체 우승, 개인 1위
- 1984년 제22회 도민체전 궁도 일반부 단체 우승, 개인 1, 2위
- 1987년 제25회 도민체전 궁도 일반부 단체 2위, 개인 2위
- 1990년 제28회 도민체전 궁도 일반부 단체 우승, 개인 1, 2, 3위
- 1991년 제29회 도민체전 궁도 일반부 단체 2위
- 1993년 제31회 도민체전 궁도 일반부 단체 2위, 개인 2, 3위
- 1994년 제32회 도민체전 궁도 일반부 단체 우승, 개인 2위
- 1996년 제34회 도민체전 궁도 일반부 단체 2위, 개인 2위
- 1997년 제35회 도민체전 궁도 일반부 단체 2위
- 1998년 제36회 도민체전 궁도 일반부 단체 2위
- 2000년 제38회 도민체전 궁도 일반부 단체 2위
- 2000년 제43회 도민체전 궁도 남일반부 단체 2위, 개인 1위
- 2006년 제44회 도민체전 궁도 남일반부 단체 3위
- 2009년 제47회 도민체전 궁도 남일반부 단체 3위

□ 예천군수배 남녀궁도대회

- 2005년 10월 제1회 예천군수배 남녀궁도대회 첫 대회 개최
- 2016년 8월 제10회 예천군수배 남녀궁도대회까지 계속 개최

□ 예천세계활축제

○ 제1회 예천세계활축제

- 기간: 2014. 10. 15(수)~19(일), 5일간
- 장소: 한천체육공원, 남산공원 일원
- 공식행사: 개장식, 개막식, 심포지엄, 폐막식
- 체험행사: 활쏘기체험, 필드아치리(활사냥 체험), 활로 켜는 악기교실, 활과 새총으

로 풍선터트리기, 룰렛으로 점보기, 대나무 활 만들기, 대형새총 만들기, 아동
편사, 무예24기 체험, 멀티미디어쇼

- 전시: 주제관, 글로벌 활 홍보존, 세계문화관
- 공연: 무예24기 공연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24가지 기예’, 글로벌 전통 활 시연단,
포토존 판토마임 퍼포먼스, 예천 편사 뮤지컬 ‘민족정기 활’
- 기타행사: 활 캐릭터 코스프레 대회, 읍면대향편사대회
-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

○ 제2회 예천세계활축제

- 기간: 2015. 10. 15(목)~18(일), 4일간
- 장소: 한천체육공원, 남산공원 일원
- 행사: 거리퍼레이드, 개막식, 글로벌교류행사, 외국 활시연단 초청행사, 폐막식
- 전시: 세계의 활과 화살 전시, 3D애니메이션, 예천50년사 사진전
- 공연: 불꽃쇼, 택견놀이, 마상무예연극, 주제공연, 풍물공연, 농요시연, 청단놀음, 색
소폰공연, 민요국악공연, 지역동아리, 음악공연
- 체험행사: 국궁양궁 활쏘기 체험, 활사냥체험, 양궁서바이벌게임, 로빈훗체험, 양궁
골프게임, 선비국궁체험, 활화살만들기, 캐리커처 및 타투, 목공예만들기, 오물
쫄물자연물만들기, 전래동화이야기, 캐릭터비즈공예, 비누방울체험, 부메랑 만
들고 날리기, 스마트폰 이용체험, 금붕어뜰채잡기, 황토공예체험, 전통놀이체
험, 어린이활쏘기, 참여인증샷, 전통옹기, 전통두부만들기, 어린이놀이동산
- 공모행사: 전국활화살만들기 공모전, 전국디지털사진공모전, 예천문화제전국학생백일장



<예천세계활축제>

자료: 매일신문, 2014.10.15., 2016.10.22

2. 양궁

1) 인물

(1) 국가대표 외

☐ 김진호(1961년 ~)

- 예천읍 출신
- 예천여중 2년 양궁 입문
- 국가대표(9년간)로 37개 공인·비공인 신기록 수립
 - 1978년 12월 방콕아시아경기대회 거리별 전 종목 석권(5관왕)
 - 1979년 7월 서독 베를린 제30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5관왕(기록경기 중 첫 세계재패)
 - 1981년 5월 제9회 스위스 오넥스 골든헬멧 국제양궁대회 60m, 70m 2위, 단체 1위
 - 1981년 6월 제31회 이태리 폰타알라 세계선수권대회 단체 은
 - 1982년 7월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주선수권대회 5관왕
 - 1982년 11월 뉴델리 아시안게임 2위
 - 1983년 4월 제3회 아시안컵대회 개인, 단체 우승
 - 1983년 8월 제99회 전미오픈대회 개인, 단체 우승
 - 1983년 10월 제32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인, 단체 우승 (5관왕)
 - 1984년 1월 제2회 아시아오세아니아주선수권대회 개인 2위
 - 1984년 8월 LA올림픽 개인 3위
 - 1985년 7월 제4회 아시안컵대회 개인 2위
 - 1985년 10월 제33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인 3위
 - 1986년 9월 서울 아시안게임 60m, 30m, 단체종합 1위 (3관왕)
- 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황숙주(1960년 ~)

- 예천읍 출신

- 예천여중 2년 입문, 예천여고, 계명대 교육학과 졸업
- 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 은
 - 1978년 12월 방콕아시아경기대회 개인 6위, 단체 2위
 - 1979년 7월 제30회 베를린세계선수권대회 단체 금
 - 1981년 5월 제9회 스위스 오넥스 골든헬멧 국제양궁대회 60m, 70m, 단체 1위
 - 1981년 6월 제31회 이태리 폰타알라 세계선수권대회 단체 은
- 양궁심판



<1975년 예천 여자중고등학교 양궁선수단>
 왼쪽상단부터 황진경, 김복순, 박태희(주장), 이해숙, 남옥순, 조인숙, 서정숙, 변정순, 김혜숙, 강
 미숙(코치), 김영옥, 김진호, 황숙주 (자료: 경북일보, 2015.10.08)

□ 김수녕(1971년 ~)

- 서울 태생으로 청주에서 성장(덕성초 4년 입문)
- 1987년에 국가대표(청주여고 1학년)

- 예천군청실업팀 소속: 2000년 ~ 2010년²⁵⁾
- 올림픽에서 금 4개, 은 1개, 동 1개
 - 1987년 COQ 국제양궁대회(프랑스) 2관왕(세계신기록)
 - 1988년 인도 뉴델리 아시안컵 5관왕
 - 1988년 서울올림픽 개인 금, 단체 금
 - 1989년 1991년 세계선수권 2년 연속 2관왕
 - 1989년 거리별 공인 6종목 세계신기록
 -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단체 금
 -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단체 금
 -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인 동, 단체 금(예천군청실업팀 소속)
- 세계양궁협회에서 20세기 최고의 여자 양궁선수로 선정
- 현, MBC(해설위원), 국제양궁연맹(규정위원)



<1978년 방콕아시아경기대회>

예천읍 카퍼레이드(문형철감독, 김성훈 코치, 김수녕, 장용호 선수)와 기념사진(김진호, 황숙주 외)
(자료: 경북일보, 2015. 10. 08.)

□ 장용호(1976년 ~)

- 전남 고흥 출신, 정암초에서 입문
- 1995년 국가대표 선발

25) 예천군청(2010). 예천체육사.

- 1993년 7회 프랑스 COQ대회 개인 1위, 단체 2위
-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단체 은
- 2000년 시드니올림픽 단체 금
- 2001년 유럽그랑프리 3차대회 개인 3위
- 2004년 유럽그랑프리 2차대회 개인 우승
-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남자단체 금
-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단체 금
- 2004년 유럽그랑프리 2차 대회 개인 우승
-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양궁 남자단체 금
- 2006년 제4회 양궁월드컵 개인 금
- 2009년 아시아 그랑프리대회에서 전 종목 석권

○ 현, 예천 양궁실업팀 플레잉코치, 선수(1999년 입단)

□ 한희정(1972년 ~)

- 예천초 4년 입문, 예천여중고 졸업
- 1990년 제106회 전미오픈대회 개인 3위, 단체 1위
- 1994년 히로시마아시안게임 개인, 단체 3위
- 현, LH 여자 양궁 코치

□ 김미자(1968년 ~)

- 예천여중 1년 양궁 입문, 경주여고, 안동대 진학
-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개인 50m 은, 개인종합, 개인 30m 동
- 1990년 12회 서독 국제양궁대회 단체 준우승
- 1992년 전미오픈선수권대회 3위

□ 윤옥희(1985년 ~)

- 예천동부초 4년 입문, 예천여중고 졸업
- 2002년 제7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단체 금
- 2005년 국가대표 선발
 - 2005년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인 2위
 -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개인 은, 단체 금
 - 2007년 제15회 아시아양궁선수권대회 단체 금
 - 2007년 제7회 코리아국제양궁대회 개인 동
 - 2008년 FITA월드컵 파이널대회 3위
 - 2008년 제29회 베이징올림픽 개인 동, 단체 금
 - 2008년 제4차 양궁월드컵 개인, 단체 금, 3차대회 개인 금, 1차대회 개인 금
 - 2010년 FITA 양궁월드컵 파이널 개인 우승, 4차 대회 리커브 혼성 금, 리커브 개인전 금, 리커브 단체 금, 3차 대회 단체 금달, 개인 동
 - 2010년 제16회 광저우아시안게임 양궁여자 개인 금, 단체 금
 - 2013년 세계양궁연맹월드컵 파이널 리커브개인 금, 4차대회 개인 금메달, 단체 은, 혼성부 금, 2차대회 리커브개인 은, 1차대회 리커브개인 금
- 현, 예천 양궁실업팀 선수(2004년 입단)

□ 문형철(1958년 ~)

- 전북 부안 출신
- 1984년 예천군청 양궁실업팀 코치(1983년 예천군청팀을 창단)
- 1989년 제6회 아시안컵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수단 코치
- 1990년 ~ 한국양궁실업연맹 이사
- 1991년 ~ 경상북도 양궁협회 전무이사

- 1997년 ~ 대한양궁협회 전무이사
- 2000년 예천군청 양궁실업팀 감독
- 2008년 한국실업양궁연맹 이사, 경상북도 양궁협회 전무이사, 제29회 베이징올림픽 양궁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
- 2015년 대한양궁협회 이사, 양궁 국가대표팀 총감독
- 2016년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팀 총감독
- 김진호, 허복자, 김미자, 양승현, 한희정, 김성남, 장용호, 김수녕, 호진수, 최원종, 윤옥희 등 많은 국가대표 선수 양성²⁶⁾

□ 박태희(1957년 ~)

- 1975년 예천여자중고등학교 양궁선수단 초대 주장
- 예천중(1979년), 동부초(1980년), 예천초(1982년) 양궁부 창단 시 코치

□ 이병탁(1936년 ~ 2008년)

- 예천읍 노하리 출생
- 예천체육회사무국장 1967년 ~ 1976년
- 한국양궁실업연맹 초대, 2대 회장
- 경북양궁협회장(4대 ~ 8대, 1987년 ~ 2008년)
- 삼성토건 이사, 고려산업 대표
- 1980년 한국실업양궁연맹 창설

26) 제47회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 선정 발표, <http://www.mcst.go.kr>

- 한국중고연맹을 인수, 33대와 34대 회장
- 1983년 예천군청 남녀 실업팀 창단(사비 5천만원)
- 예천양궁을 위해 매년 5천여만원이상 지원

(2) 관계자 인터뷰

□ 김진호

- 인터뷰 날짜: 2016. 11. 05
- 인터뷰 장소: 예천진호국제양궁장 내 양궁협회사무실
- 인적 사항: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주요 인터뷰 내용: 예천 양궁의 시작, 향후 계획
- 인터뷰 내용
 - 중1(1974년) 말 양궁을 하던 언니 친구의 동생(동기)의 추천으로 양궁을 보고 매력을 느껴 참여하게 됨
 - 필드하키가 폭력으로 2년 정도 중단 되었다가 양궁팀으로 전환됨
 - 어릴 때부터 남산에서 국궁을 쏘던 모습을 많이 보았음
 - 활은 여고선배들에게서 배웠음
 - 중2 때 이후 강미숙, 박세광 등의 코치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코치한 분이 없었음
 - 감독으로 온 정삼갑 체육선생이 일본책을 번역하여 지도해 줌
 - 고2 7월부터 국가대표가 됨
 - 활축제는 예천을 알리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여김
 - 일반인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되면 좋겠음
 - 필드아치리에 관심이 있어 독일에서 참관하기도 함
 - 국궁을 한 경험이 전혀 없고 교류하는 사람도 전혀 없음
 - 양궁 은퇴 후 국궁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국궁과 양궁은 방법이 서로 달라 융합되기 쉽지 않음
 - 예천에 돌아와 클럽이나 클릭닉스쿨 같은 것을 운영할 예정임

□ 문형철

○ 인터뷰 날짜: 2016. 11. 05

○ 인터뷰 장소: 예천진호국제양궁장 내 경상북도양궁협회사무실

○ 인적 사항: 예천군청 양궁실업팀 감독, 경상북도양궁협회 부회장

○ 주요 인터뷰 내용: 예천 양궁과의 인연과 발전, 국궁과의 협력 방향

○ 인터뷰 내용

- 이병탁 경상북도양궁협회부회장의 요청과 은사의 추천으로 예천에 내려옴(1984년)
- 실업팀 코치로 온 뒤 결혼을 하고 정착하게 됨
- 예천은 체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지역이고 타지 출신이라 더욱 열심히 하게 됨
- 초창기는 양승현, 호진수 등이 90년대 이후에는 장용호, 김수녕(북귀팀), 윤옥희 등이 기억에 남음
- 지자체 팀이라 투자비가 부족하여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어렵지만 부단한 훈련을 통해 좋은 선수로 양성함
- 실력이 부족한 선수가 크게 성장되었을 때 큰 보람을 느낌
- 처음에 국궁과 양궁이 하나의 협회라 국궁을 통해 활을 배우게 됨
- 현재는 양궁 나름의 체계가 잡혀 국궁과 교류가 없음
- 처음에는 미국과 소련의 기술을 가져 왔지만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점차 체계화 되어 유소년부터 장년까지 개인적 특성에 따른 한국적 훈련체계가 이루어짐
- 한국은 특히 내면적 능력과 외적 기술력이 결합됨
- 양궁은 인프라를 쉽게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체육화가 되기 어려움
- 해외에서는 자부담의 클럽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예천에는 컴파운드 클럽이 하나 운영되고 있음(우리나라는 지자체 등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 80년대 중반 호명면에 필드아처리경기를 3년여 개최하고 해외 탐방도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중단됨(일본도 처음에는 활성화 되었으나 현재는 쇠퇴된 것으로 보임)
- 리커브는 전문 체육인 중심으로 일반인은 편한 컴파운드를 중심으로 경기함
- 양궁 은퇴 후 국궁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운영시스템이 다르고 서로 교류가 없어 국궁과 양궁은 결합하기가 어려움
- 시합에서 예천군청 복장을 입고 있으면 양궁선수라는 것을 쉽게 인지함
- 김진호는 세계적 수준에서 예천 양궁의 상징임

- 활축제도 긍정적이고 앞으로 테마파크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함
- 아처리스쿨(클리닉), 클럽 등을 만들어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음
- 일본, 중국, 동남아 학생들을 위한 양궁연수 프로그램
- 전시관, 만들기, 연습 등 수학여행 프로그램 운영 등

2) 단체

☐ 경상북도양궁협회

- 1983년 3월 경북궁도협회에서 분리 발족, 초대회장 조용수 예천군수
- 1983년 예천군청 양궁실업팀 창단 지원
- 1984년 3월 안동대학교 남·여 양궁팀 창단 지원
- 1985년(1995년 이전) 진호국제양궁장(진호궁도장) 건설 지원
- 1989년 7월 경상북도지사 종별양궁대회(1991년 7월 이후 중단)
- 1996년부터 영호남 정기 양궁교류전(격년)
- 1996년 한국중·고양궁연맹 유치
- 2002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양궁경기 유치
- 2004년 경상북도지사기 전국 초중학교 양궁대회 신설

☐ 한국중·고양궁연맹

- 1973년 6월 창단
- 1996년 1월 예천군으로 유치
- 2013년 ~ 2016년 제19대 회장을 군수가 겸임함
- 매년 한국중·고양궁연맹 회장기 대회를 개최함

□ 예천군청 양궁실업팀

- 1983년 4월 남·여 양궁선수단 창단
- 초대 구성
 - 단장 이영석, 감독 김종직, 코치 오선택, 주무관 윤윤식
 - 남자선수단: 오선택, 김윤식, 이세일, 김홍복
 - 여자선수단: 현정열, 백현옥, 박윤재, 박미숙, 김숙자, 전선희
- 장용호, 김성남, 김수녕, 한희정, 김미자, 최원종, 윤옥희, 김규찬 등 다수의 국가대표 배출
- 2000년 시드니올림픽 남·여 단체 1위 등 국·내외 대회에서 300여회 입상

□ 예천동부초등학교 양궁부

- 1980년 3월 창단, 소년체전 초등부 3위
- 1980년 12월 공도시범학교 지정
- 제22회, 제26회, 제42회, 제43회 전국소년체전 여자단체 금메달 등 전국 대회 다수 입상
- 국가대표 김진호, 윤옥희의 모교

□ 예천초등학교 양궁부

- 1981년 12월 창단
- 제45회, 제44회 전국소년체전 금메달 등 전국대회 다수 입상
- 국가대표 최원종 모교

□ 예천남부초등학교 양궁부

- 2004년 12월 양궁부 창단
- 2008년 해단

□ 예천여자중학교 양궁부

- 1973년 3월 양궁부 창단
- 제5회, 제6회, 제34회, 제44회,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등 전국 대회 다수 입상
- 국가대표 황숙주, 김진호, 윤옥희의 모교

□ 예천중학교 양궁부

- 1979년 3월 양궁부 창단
- 전국대회 실적
 - 1981년 제10회 전국소년체전 남중 단체 1위
 - 1982년 제11회 전국소년체전 개인종합 1위
 - 2010년 제39회 전국소년체전 개인 2위, 제25회 전국실내양궁대회 개인 1위 및 3위, 제44회 전국종별양궁선수권 대회 개인 3위, 경북 소년체육대회 단체 1위 및 개인 1위, 중·고연맹 전국양궁대회 단체 3위 및 개인 3위,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인 2위, 화랑기 전국양궁대회 개인 2위
 - 2011년 경북 소년체육대회 단체 1위 및 개인 1위
 - 2012년 제46회 전국 남녀 양궁종별선수권대회 중등부 단체전 2위, 개인전 3위
 - 2013년 제26회 전국 실내 양궁대회 중등부 단체 종합 3위, 개인전 1위

☐ 예천여자고등학교 양궁부

- 1975년 1월 양궁부 창단 (정삼갑 체육교사 주도)
 - 1975년 8월 전남 부안 제1회 문교부장관기 쟁탈 전국양궁대회 첫 출전 2위
 - 2004년 10월 전국체전 단체 1위
- 국가대표 황숙주, 김진호, 서현주, 서은정, 한희정, 윤옥희의 모교

☐ 양궁을 사랑하는 모임

- 2001년 예천 관내 초·중·고 양궁선수를 둔 학부모들의 모임으로 양사모를 발족(예천초, 동부초, 남부초, 예천중, 예천여중, 예천여고)

3) 시설

☐ 예천진호국제양궁장

- 주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 설립연도: 1996년
- 부지면적 79,969m²
- 건축연면적 2,832m²
- 경기장 면적: 49,850m²(예선 220m × 120m, 결선 80m × 100m)
- 수용인원: 2,893명(주경기장 1,326명, 결승경기장 1,567명)
- 주차면수: 250명
- 설립경과: 예천여고(3년) 소속 김진호선수의 제30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5관왕 획득을 기념하여 예천공설운동장 옆에 1980년(1988년 완공) 진호궁도장 설립(국비 외)
 - 진호궁도장 규모: 2천3백여평, 폭45m 길이 135m 및 합숙소



기후여건 양궁에 적합...김진호등 배출

<진호공도장>

자료: 동아일보(1991.07.12) 28면

- 1995년 10월 현 위치 새 경기장 준공(예천양궁경기장)
 - 1995년 제7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 1996년 선수합숙소 건립
 - 1999년 선수대기석 설치
 - 2001년 문화체육센터 완공
- 2001년 12월 ~ 2003년 8월 시설 확장
- 2002년 7월 예천양궁경기장에서 예천진호국제양궁장으로 명칭 변경
-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양궁대회 개최
- 매년 10여 차례 전국 및 도 단위 양궁대회 개최
- 국내외 대표선수단 전지훈련장으로 활용
- 2013년, 해외 5개, 국내 28개 팀 총 33개 팀 1,850명 전지훈련, 국내외 대회 13차례 21,068명, 양궁체험 708회 15,226명 등 합계 38,099명 방문²⁷⁾

27) 매일신문, 2014.09.03

- 2016년, 해외 5개, 국내 25개 팀 총 30개 팀 2,0073명 전지훈련, 국내외 대회 12차례 12,000명, 양궁체험 2천80회 16천여 명 등 합계 3만여 명 방문²⁸⁾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자료: 예천인터넷방송, 2007.09.18

□ 활 체험장(예천스포츠프라자 내)

- 주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 개장시기: 2010년 5월 1일
 - 2005년 5월부터 양궁 체험의 날 등 운영
 - 2009년 4월 이 후 상시 운영으로 전환(사전 신청), 선수 출신 강사 지도, 무료
- 부지면적 1,493m²
- 내용: 군민 여가 선용과 체력증진에 기여,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

28) 매일신문, 2016.12.13



<양궁체험장>

자료: <http://korean.visitkorea.or.kr>; 매일신문 2014. 09. 03

□ 양궁인의 집

- 주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 설립연도: 2006년 10월
- 부지면적 7,008㎡
- 건축연면적 349㎡
- 선수 숙소 6실, 지도자 숙소 2실, 식당 및 휴게실
- 용도: 예천군청 양궁실업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숙소



<양궁인의 집>

자료: 예천신문 2005.12.23; 예천인터넷방송, 2006.10.02

□ 양궁장 선수단 생활관(구)

- 주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 설립연도: 1996년 7월 19일
- 건축연면적 493m²
- 용도: 대회 부대시설로 활용(양궁인 쉼터 등)

4) 대회, 행사

□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 1975년 제4회 전국소년체전 양궁 여중부 단체전 2위, 개인전 3위
- 1975년 제56회 전국체전 양궁 여고부 단체전 2위, 개인전 1위
- 1976년 제5회 전국소년체전 양궁 여중부 단체전 1위, 개인전 1위
- 1976년 제57회 전국체전 양궁 여고부 개인전 1위
- 1977년 제58회 전국체전 양궁 여고부 단체전 2위, 개인전 1위
- 1978년 제7회 전국소년체전 양궁 여중부 30m 2위
- 1978년 제59회 전국체전 양궁 여고부 단체전 2위
- 1979년 제60회 전국체전 양궁 여고부 단체전 1위, 개인 2, 3위, 일반부 개인 1위
- 1980년 제61회 전국체전 양궁 여고부 30m 2, 3위, 50m 1, 2위, 60m 1, 3위, 70m 1, 3위, 개인종합 1, 2위
- 1984년 제65회 전국체전 양궁 70m 1위, 50m 1, 2위, 30m 2위, 개인종합 2위
- 1985년 제66회 전국체전 양궁 단체종합 1위, 개인종합 1위, 90m 1위, 50m 1위, 30m 2위, 70m 3위
- 1986년 제67회 전국체전 양궁 남일부 90m 3위, 단체전 3위
- 1987년 제68회 전국체전 양궁 여일부 단체종합 1위, 개인종합 3위, 60m 3위
- 1988년 제69회 전국체전 양궁 남일부 단체종합 3위, 개인종합 1위
- 1989년 제70회 전국체전 양궁 여고부 개인 50m 2위, 60m 3위, 여일부 단체 2위, 개인 30m 1위, 50 3위
- 1990년 제71회 전국체전 양궁 남일부 70m 2위, 개인종합 2위, 여일부 70m 2위, 개인종합 3위, 단체 3위
- 1990년 제72회 전국체전 양궁 여일부 30m 1위, 50m 1위, 60m 2위, 단체종합 2위

- 1991년 제73회 전국체전 양궁 남일부 30m 3위, 70m 2위, 90m 3위, 여고부 개인 50m 1위, 개인종합 3위, 여일부 50m 3위, 60m 1위, 70m 1위
- 1993년 제22회 전국소년체전 양궁 여초부 20m 1위
- 1994년 제23회 전국소년체전 양궁 여초부 20m 1위, 개인종합 3위
- 1995년 제76회 전국체전 양궁 단체 3위
- 1996년 제77회 전국체전 양궁 남일부 개인종합 2위
- 1997년 제26회 전국소년체전 양궁 여초부 20m 1위, 개인종합 3위
- 1998년 제79회 전국체전 양궁 남일부 70m 1, 3위
- 1999년 제79회 전국체전 양궁 남일부 30m 1위, 50m 3위, 70m 1, 2위, 단체전 2위
- 2000년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양궁 여중부 50m 2위, 20m 2위, 개인종합 2위
- 2000년 제81회 전국체전 양궁 남일부 30m 3위, 50m 1위, 70m 1위, 단체전 2위, 여일부 60m 1위, 70m 1위, 개인전 1위, 단체전 2위
- 2001년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양궁 여중부 30m 3위
- 2001년 제82회 전국체전 양궁 남일부 90m 1위, 30m 3위, 여고부 개인전 1위, 여일부 50m 1위
- 2002년 제83회 전국체전 양궁 남일부 90m 1위, 50m 2위, 여일부 50m 2위
- 2003년 제32회 전국소년체전 양궁 여중부 50m 3위, 30m 3위, 개인종합 3위, 단체종합 3위
- 2003년 제84회 전국체전 양궁 남일부 90m 1, 3위, 단체전 3위, 여고부 30m 2위
- 2004년 제33회 전국소년체전 양궁 여중부 50m 3위
- 2004년 제85회 전국체전 양궁 남일부 70m 2위 여일부 70m 3위, 60m 3위

□ 대구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

- 기간: 2003년 8월 24일 ~ 29일(7일간)
- 장소: 예천진호국제양궁장
- 27개국 선수 181명(남 111명, 여 70명) 참가
- 양궁장 진입로, 시가지, 주요도로 등에 꽃탑, 꽃길 조성
- 관람객 총 1만1천여명(24일 2천, 25일 2천8십, 26일 1천7백, 27일 1천8백6십, 28일 1천3백, 29일 2천)

- 2003년 8월 예천군 서포터스 발대식 300명, 양사모 자원봉사 활동
- 기록원: 예천대창고(12명), 예천여고(19명), 예천군청(2명), 안동대학(6명)
- 여자 개인 1, 2, 3위, 남자 개인 1, 2위, 남자, 여자 단체 우승
- 여자 컴파운드 1위, 남자 컴파운드 2위
- 남자 컴파운드 단체 1위, 여자 컴파운드 단체 2위

5) 지역 관계자 인터뷰

- 활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발전적 방안 도출에 참고하기 위하여 14개의 개방형 문항을 구성하고 서면으로 지역 내외 관계자 30여명에게 배포하여 17명의 응답을 회수하여 정리함
- 1. 국궁과 양궁 전체적인 측면에서 활문화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극복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변확대를 위해 접근성과 개방성 제고
 - 국궁과 양궁을 같은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복장에 대한 연구
 - 놀이적 특성의 강화
- 2.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양궁선수와 세계 최고의 전통 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민적 참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활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지기 위한 귀하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 마을단위, 학교, 직장 등 소규모 동호회의 확대를 지원하고 사대 설치의 확대
 - 국궁과 양궁에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사거리 등의 다양화
 - 군민체전 등 생활체육에 국궁을 포함
 - 홍보를 위한 다양한 아이템이 개발

- 3. 전통 활의 핵심 기술인 궁시제작의 산업적 발전과 사회문화적 활성화를 위한 귀하의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궁시제작을 위한 기술학교 설립이나 기술과정의 지원
 - 개량궁 등 현대화 작업과 전통적 제궁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병행
 -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 4. 예천은 우리나라 활문화 발전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중장기적인 발전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양궁과 마찬가지로 국궁도 조기교육이 가능한 환경
 - 전국단위 대회 개최의 확대
 - 조궁술 및 경기개최 등 해외교류를 위한 노력
 - 예천 출신의 전국 궁장들과의 교류와 연대

- 5. 예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세계활축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다 다양한 형태의 활쏘기 체험(먼장질²⁹⁾, 거리별, 회전목마 등)
 - 수렵활쏘기 등 주요 아이템의 상설화
 - 국궁, 양궁 대회와 동시 개최(국궁대회는 무학정보다 개방된 공간 활용)
 - 보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

- 6. 예천에서는 활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산업적 활성화를 위하여 수렵활대회장(field archery course)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건설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흥미로운 프로그램 도입(말이나 모형 동물 타고 쏘기, 탐험형 등)
 - 협소한 남산보다는 보다 접근하기 쉽고 넓은 장소 활용
 - 실제 사냥과 연계하는 방법

29) 먼발치로 총이나 활 따위를 쏘는 일, 표적 없이 멀리 쏘기(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 7. 예천에서 국궁과 양궁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국궁 실업팀 창단과 지원
 - 활체험지도사 양성
 - 국궁선수의 조기 양성 프로그램
 - 국궁, 양궁 동시 대회 개최 등의 교류 활성화

- 8. 예천에서 다른 나라의 활 중심도시와 연계하여 세계활연맹을 구축한다면 해외 어떤 도시(나라)와 우선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천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중국, 일본, 몽골과 협력
 - 활 문화권 나라(몽골, 영국, 터키, 프랑스, 일본 등)
 - 전통 활이 국민에게 보급된 나라(몽고, 부탄, 프랑스, 터키, 인도네시아, 일본 등)

- 9. 우리나라 활문화의 발전을 위해 예천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국내의 도시(지역)를 그 이유와 함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창(전국 최대 국궁장), 하동(경남 최대 국궁장), 포항(경북최대 국궁장), 부천(활 콘텐츠 활용), 서울(활 인구 최대), 국궁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 10. 예천에 활기념관을 만든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활테마파크, 국궁장, 수렵활대회장 등의 체험과 연계
 - 전통(국궁)에서 현대(양궁)으로 이어지는 체험 중심
 - 국궁과 양궁을 연계할 수 있는 장소
 - 군민의견의 적극적 수렴
 - 활의 전체적 역사와 예천의 특성 반영

- 11. 우리나라의 활 명예의 전당을 만든다면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포함될 수 있을지 그 이유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다수 추천).
 - 권계항(개성에서 활을 들여옴), 권희직(나라에 활을 반침), 김진호, 고주몽(동명성왕), 이순신, 이성계, 궁예, 김경옥, 한승훈, 그밖에 예천의 궁장과 시장, 양궁 감독/선수 등 역사적 인물과 현대적 인물로 나누어 의견이 나타남

- 12. 우리나라 전통 활과 관련된 문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활 제작 과정 영상화
 - 차별성과 보존가치 부각
 -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와 협력
 - 제작과정과 궁시 특성의 과학적 분석

- 13. 귀하가 간직하고 있는 활과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나 알리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함

- 14. 활문화의 발전과 자료정리를 위해 보유하고 계신 활 관련 사료와 유물을 경중과 관련 없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함

3. 시사점

1) 국궁

- 예천은 경기와 예천으로 양분된 제궁 전통의 한축을 담당하였음
- 일제 강점기에도 제궁이 이루어졌고 70~90년대 가장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에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 1981년 무형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예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궁장 20명이 보고되었음³⁰⁾
- 예천의 궁장 계보는 크게 셋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나는 권영록 궁시장의 가계이고 둘은 권영학 궁시장의 가계이며 다른 하나는 김성락 전수교육조교임
- 권영록 궁시장의 계보는 위로는 12대 절충장군 권계항, 7대 교위 용장 권희직으로부터 이어지지만 아랫대에서 계보가 끊어짐 다만 방계인 서울 무형문화재인 권무석 궁장으로 이어지고 있음
- 권우갑(부)이 권선복에게서 사사하여 권영학 궁시장 계보가 시작되었으나 더 이상 조궁과 전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권영록 궁시장의 숙부인 권태욱에게서 조부 김형준이 사사하여 김성락 전수교육조교의 계보가 시작되었고 현재 예천국궁전수관을 근거지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음
- 전통화살 제작자인 김종국 궁시장은 타지에서 예천에 정착하여 50여년 죽시를 제작하고 전수자를 양성함
- 권영록 궁시장의 5남은 김성락 전수교육조교도 가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권영록 궁시장의 전수자를 통해 전국적으로 조궁기술을 전파하였음을 주장함

30) 11쪽 예천궁장에 대한 기록 참조

- 김성락 전수교육조교는 경기궁과 예천궁의 전통을 함께 이었음을 설명하고 전수과정을 익히는데 최소 5년은 소요됨을 설명함
- 권영학 궁시장은 예천에서 활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1920년대로 제시하고 일제강점기 말에서 한국전쟁 종료 시까지 조궁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제시함
- 경주 거주 김동학 전통장은 권영록 궁시장 가게와 권영학 궁시장 가게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권영록 궁시장의 전수자가 전국적으로 진출하였음을 설명함, 더불어 궁시제작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존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함
- 부천 거주 김윤경 전수교육조교는 조궁의 전통이 예천에서 시작되었음을 설명하고 부천에서 조궁의 계보를 잇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으며 10년은 되어야 조궁술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음을 설명함
- 서울 거주 유명기 궁시장은 선친과 권영록 궁시장과 친분이 있었으며 멀리 만주까지 활을 판매하였음을 설명하고 파두의 사립박물관인 영집궁시박물관 설립과 다양한 재현과 복원 작업에 대해 설명함
- 권무석 궁장은 권영학 궁시장, 김성락 전수조교가 권영록 궁시장의 가게의 조궁술과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함
- 김종국 궁시장은 일제강점기 통제부 기록 중 대심동(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운영되던 국내 유일한 쇠고기통조림공장이 쇠심줄 제공 역할을 하여 조궁이 집성된 것으로 제시하고 누대에 걸친 권영록 궁시장 계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전국적으로 권영록 궁시장의 계보가 진출하였음을 설명함, 더불어 궁시 제작의 발전을 위해 과학적 분석제도의 도입을 제시함
- 예천의 국궁 체육활동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지고 구성된 무학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예천세계활축제 이후 회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국궁과 관련된 예천의 유적은 향사당 터와 군창지가 있고 예전에 한천의 독에 마련된 사장에서 습사하였음
- 국궁과 관련된 시설로는 무학정, 예궁정, 예천궁장전수관 등이 있음
- 국궁관련 대회로는 일제강점기에 전조선궁도대회로 발전한 3군연합궁술대회가 있었고 경상북도민체육대회에 궁도대회가 1971년부터 실시되었고 2005년부터 무학정에서 예천군수배 남녀궁도대회가 개최되고 있음
- 국궁과 양궁 그리고 지역산업(특산물)을 결합한 예천세계활축제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됨

2) 양궁

- 1973년 예천여자중학교에 양궁부가 창단된 이래 김진호 선수와 문형철 감독을 비롯하여 예천과 우리나라를 세계 양궁의 중심에 올려놓은 걸출한 다수의 선수와 지도자를 배출하였고 이병탁 회장과 같은 후원자들이 예천 양궁의 발전에 이바지함
- 김진호 교수는 국궁과는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어린 시절 무학정에서 이루어지던 습사를 자주 접하였음, 활축제는 예천을 알리는 매우 긍정적인 아이템이고 추후 예천에 양궁클럽 등을 운영하고자 함
- 문형철 감독은 현재 국궁과 양궁이 서로 교류가 없지만 과거에는 하나의 사정에서 경험을 공유하였고 예천은 활의 중심이며 양궁의 축적된 시스템과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산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초등학교에서 실업팀까지 (대학은 안동대) 선수의 양성을 위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한국중·고양궁연맹, 경상북도양궁협회를 중심으로 한 대회 개최 그리고 선수들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양사모까지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
- 예천 양궁의 핵심적 시설인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은 국제적 대회에서부터 전지훈련 그리고 개인적 양궁체험까지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예천은 유소년에서 실업팀까지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와 같은 국제적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지니고 있음
- 관계자 설문 결과 국궁과 양궁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제안되었고 활축제개최를 통해 얻게 된 긍정적 추진동력을 높이기 위해선 수렵활대회장 설치 등 주요 프로그램의 상설화가 주장됨
- 다음으로 국궁과 궁시제작에 대한 과학적 현대화 그리고 타 지역이나 국가와의 기술적 연계와 스포츠 교류에 많은 관심이 표명되었음

3) 결론

- 예천의 궁시유물과 유적
 - 향사당터, 군창지, 한천사장, 무학정
 - 각 궁장 가게에서 보유한 궁시 작품과 제작도구 등 관련 유물
 - 궁시제작의 전통적 공방은 공동으로 작업하던 시기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었고 현재는 궁시장과 전수교육조교의 공방으로 확인할 수 있음(영상자료 등을 바탕으로 과거 공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현재의 예천의 궁시 제작
 - 김종국 궁시장(2008년 ~)
 - 권영학 궁시장(2015년 ~)
 - 김성락 전수교육조교(2009년 ~), 예천국궁전수관 관장
- 예천 전통 활 대회나 축제
 - 2005년부터 예천군수배 남녀궁도대회 개최
 - 2014년, 2015년 두 차례 예천세계활축제 개최
- 예천의 양궁은 초등학교부터 실업팀까지 전문적 체육활동과 지원체계가 전체적으로 갖추어져 있음, 반면 동호회나 개인적인 여가활동으로써의 생활체육은 저조함

Ⅲ. 한국과 세계의 활문화

1. 한국의 활

1) 우리나라 활의 변천

□ 고대의 활³¹⁾

- 한반도와 만주: 한국형 돌화살촉 발견(단양 수양개 신석기 선사유적)
- 고조선 건국 시기 활의 사용이 확인됨³²⁾
- 예(濊)의 단궁(檀弓)³³⁾
- 삼국지 위지 동이전(서진(西晉)의 진수(陳壽), 233~297): 활쏘기에 뛰어난 민족
- 중국 시경(詩經) 소아(小雅)에 각궁(角弓)³⁴⁾ 등장
- 동이족: 동쪽의 활을 잘 쏘는 민족(夷 -> 大弓)
- 부여: 무기로는 활과 화살, 칼과 창이 있다
- 읍루: 활을 잘 쏘아 사람의 눈을 맞출 수 있다. 활은 4자인데 노만큼 세다. 살은 광대싸리로 만들고 길이가 1자 8치다. 푸른돌(靑石, 黑曜石)로 축을 쓰는데 독을 발라 맞으면 죽는다.
- 마한, 진한, 변한: 활을 호(弧)라 한다, 마한은 활, 창과 방패를 잘 쓴다
- 고구려
 - 맥궁(貊弓) 또는 각궁(角弓), 222년(산상왕 26), 楛矢(싸리나무), 무용총 수렵도
 - 우부강표전(虞溥江表傳): 오나라 손권 때에 고구려 사신이 각궁을 바쳤다(고구려 산상왕 26년, AD 222)
 - 동명성왕 고주몽(高朱蒙, 추모)의 뜻: 활을 잘 쏘는 사람³⁵⁾

31) 김이수(2016), 전통 활쏘기의 풍속(風俗)과 사풍(射風)에 대한 연구, 「국체육철학회지」 24(1), 221-237.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32) 구석기시대에 사냥용으로 활을 발명했고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가벼운 화살 멀리 날아갈 수 있게 개선했음. 고조선시대에는 쇠뇌(crossbow)도 발명됨.

33) 우리 활 첫 기록: 삼국지 濊傳 後漢書 東夷列傳

34) 각궁: 뿔로 장식한 활, 기능이 좋은 활(주희의 시경집주)

35) 김아네스·최선휘(2009).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신원문화사; 국방일보, 2010.03.04

- 거기서 아주 좋은 활이 나오는데 이는 맥궁이다³⁶⁾
- 활과 화살, 칼과 창을 잘 다룬다³⁷⁾
- 아이들은 결혼 전까지 이곳에서 밤낮으로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힌다³⁸⁾
- 무기는 활, 칼, 창이 있고, 풍속은 활쏘고 말타는 것을 중히 여긴다³⁹⁾

○ 신라: 포궁(砲弓), 558년(진흥왕 19) 신득(身得)

- 8월15일에 잔치를 벌이고, 벼슬아치에게 활을 쏘게 하여 상으로 말과 베를 준다⁴⁰⁾

○ 백제: 비류왕,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활쏘기 대회를 열고 활 쏘기를 권장함, 고이왕은 직접 산야로 나아가 궁시(弓矢)로 사냥함

○ 신라: 한가위 활쏘기, 화랑도

○ 동국세시기: 향사(鄉射), 예를 함양함, 편사에 대한 내용 ‘서울과 지방의 무사들 및 동리사람들이 모여 과녁을 세우고 편을 나누어 활쏘기대회를 열어 승부를 겨룬다. 그런 다음 술을 마시며 즐기는데 가을철 에도 똑같이 한다.’

○ 우리나라 最古의 활: 광주 신창동 출토, BC 1세기, 철기~원삼국시대⁴¹⁾

○ 고려시대에는 도성에 활터 설치

□ 군례(軍禮)로써의 활⁴²⁾

○ 조선조에 새롭게 나타난 군례인 사단의(射檀儀)는 세종대에 24개 절차의 사간사단의(射干射檀儀)로 정착되고 민간의 습사문화로 확대됨

36) 後漢書 東夷列傳, 三國志 魏書 東夷列傳

37) 南史 東夷列傳

38) 舊唐書 東夷列傳

39) 周書 異域列傳, 北史 百濟

40) 隋書 東夷列傳

4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42) 특히 군대의 의식과 예절을 다루는 군례는 국왕의 五禮인 길례, 가례, 군례, 흉례, 빈례 등 중 하나이고 이는 일반 가정의 冠婚喪祭와 비교할 수 있음, 周禮에 바탕을 둔 오례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조선조에 절정을 이루게 됨(이왕무, 2014, 조선전기 軍禮의 정비와 射禮의 의례화, 『동양고전연구』 54, 319-348.)

- 조선 초 무과의 선발 조건 초장(初場)은 보사(步射)로 200보 내에서 편전(片箭)을 사용하고 중장(中腸)은 기사(騎射)로 직배(直背) 5발을 사용함
- 세조 시기에는 군사훈련과 사례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관사(觀射)에 왕실 여성을 동반하기도 함
- 중종 시기를 전후하여 관사와 습사가 쇠퇴됨
- ‘조선 왕조 실록’ 숙종 45년 1월조의 기록에 핵심 부대인 훈련도감 대장(大將)이 “근래에 각궁은 종자가 멸절돼 각 군문(軍門)의 활을 만들 수 없다”고 보고함⁴³⁾

□ 대사례와 향사례⁴⁴⁾

- 조선 초 활쏘기는 덕을 쌓는 기본 소양(유교적 사고) 즉, 육례(六禮) 중 하나인 향사례(鄉射禮)로써 장려함, 또한 궐내에 사청(射廳)을 두어 활쏘기를 장려함
- 사례는 대사례와 향사례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임금이 주관하면 대사례, 대부분 지방관이 주관하면 향사례라 함
- 성종⁴⁵⁾ 시기에는 성균관에서 공식적인 대사례(大射禮)가 거행되어 교육체계에 포함되었고 지방에서는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공식적인 향사례를 치르게 됨
- 대사례는 1477년 성종 8년에 공식적인 기록이 나타남
- 왕이 성균관에 나와서 선성(先聖)들에게 석전(釋奠)의 예를 드리고 명륜당(明倫堂)에서 제목을 내어 과거를 보인 뒤 사단(射壇)에 나가 대사례를 행함
- 대사례에는 종친을 비롯해 3품 이상의 문무관원이 참가하였음

43) 국방일보, 2004.09.23

4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

45) 1488년(성종 19년) 사신으로 조선을 방문한 명나라의 동월(董越)은 “조선의 활이 중국 것과 유사하지만 크기가 작으면서도 화살을 쏘는 힘은 더 맹렬하다”고 평함(국방일보, 2004.08.12)

- 대사례의 진행내용은 먼저 행사관(行射官)·시위대(侍衛隊)·종친·문무백관·성균관유생들은 지정된 장소에 나열해 대기하고 왕이 행차하여 어좌에 앉으면 음악에 맞추어 4배로 알현의 예를 드리는 것으로 의식이 시작됨
- 먼저 왕이 나서면 상호군 두 사람이 임금의 활과 살을 시종들고 병조판서가 시작을 알리면 음악에 맞추어 활을 쏘게 되고 활을 쏘 때 대사악장(大射樂章) 7절의 음악에 맞추어서 활을 쏘는데 제4절에 첫 살을 쏘아서 매 음절에 한 발씩 쏘아 7절이 끝나면 4시(四矢)를 맞히게 됨, 이 때 과녁을 맞혔으면 ‘획(獲)’이라 하고, 화살의 방향이 표적보다 낮으면 ‘유(留)’, 높으면 ‘양(揚)’, 왼쪽으로 갔으면 ‘좌(左)’, 오른쪽으로 갔으면 ‘우(右)’라고 소리쳐 그 결과를 왕에게 보고함
- 왕이 활쏘기를 마치면 시사관들이 나서 5발씩 음악에 맞추어 쏘고, 과녁에 맞혔으면 북을 쳐서 명중을 알림, 쏘기를 모두 마치면 과녁을 맞힌 자와 맞히지 못한 자를 동서로 갈라서 세우고, 맞힌 자에게는 상품으로 옷이나 채단 같은 것을 하사하고, 맞히지 못한 자들에게는 벌주(罰酒)를 주어서 후일을 경계하고 왕에게 4배함으로 예를 마치게 됨
- 향사례(鄉射禮)는 예(禮)와 악(樂)의 확립을 통해 성리학적인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의례로 중국 주(周)에서 향대부(鄉大夫)가 3년마다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왕에게 천거할 때, 그 선택을 위해 활을 쏘던 의식에서 유래함
- 조선 성종은 성리학적인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맹동(孟冬, 음력 10월)에 개성부와 주(州), 부(府), 군(郡), 현(縣)에서 길일을 택하여 향음주례를 행하고,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향사례를 시행할 것을 명함
- 초기에 안동, 영천, 광주에 향사당이 설치됨
- 예천(醴泉)의 권오복(權五福)이 1585년에 지은 「향사당기(鄉射堂記)」에 이르기까지 “지금 국가에서 옛 법을 좇아 예교(禮敎)를 숭상하고 향사(鄉射)의 예(禮)를 마련하였다. 아, 활을 쏘는 것[射]은 한 가지 기예(技藝)에 불과하다. 그러나 손님의 차례를 정하고 좌주를 드는 예가 이 의식(儀式)에서

거행된다. 그리하여 한 고을의 선(善)과 악(惡)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 고을의 부로(父老)들이 명칭은 비록 향사당이라고 하였지만 권장하고 징계하는 깊은 뜻이 실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함⁴⁶⁾

- 향사례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행해지기보다 중삼(重三, 3월 3일), 중구(重九, 9월 9일)의 향약 집회 때에 부속 행사로 행해짐
- 향사례의 거행은 하루 전에 주인(主人, 所在官司)이 빈(賓)에게 알린다. 이때의 빈은 효제충신(孝悌忠信)하며 예의(禮儀)를 좋아하고 행실이 난잡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택됨
- 사단(射壇)은 학당(學堂) 근처에 만들고 단(壇)과 후(侯)와의 거리는 90보(步)로 정해짐. 주빈(主賓)이 서로 예(禮)를 행하고 제자리를 잡으면 술을 세 순배 돌리고 사례(射禮)를 시행함
- 사사(司射)가 빈에게 활쏘기를 청하면, 빈이 이를 허락하고 사사가 주인에게 고하고 서계(西階)로 내려와서 제자(弟子)에게 명하여 사기(射器)를 바치게 됨
- 사사(司射)가 활을 가지고 네 대의 화살을 등에 꽂고 사단으로 다시 올라와서 활을 쏘고 주빈이 임시로 서로 짝을 지어 화살 세 대를 등에 꽂고 한 대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서 차례대로 활을 쏘게 됨
- 절차에 맞추어 화살을 쏘 때마다 풍악이 시작되고, 활쏘기를 마치면, 맞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에 의거해서 벌주(罰酒)를 마시게 함
- 끝으로 평소처럼 주인이 예(禮)를 갖추어 문 밖에서 참석자를 배웅하는 것으로 향사례를 마치게 됨

46) 권오복(權五福)이 1585년(선조 18년)에 지은 시문집으로 종손 권문해(權文海)에 의해 3권 2책으로 편집·간행되었고 유향소(留鄉所)를 비롯한 조선 전기 사족들의 향촌의 지배체제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도서관 소장

□ 근대의 한국 활

- 갑오경장(1895) 이후 전체 활터를 폐쇄
- 고종: 활 장려 칙령(1899), 경희궁 내 황학정 설치를 개기로 다시 부흥
- 1908년 8월 무관학교에서 무도기계체육부 발족하여 활쏘기
- 1909년 7월 사궁회(이상필 외) 조직
- 동아일보사 등 궁술대회 개최(1920년대)
- 조선궁술연구회 발족(1922. 7. 11): 대한궁도협회 모체, 초대회장 성문영
 - 조선궁도회로 개칭(1926. 5. 20)
 - 조선궁도협회로 개칭(1946. 2. 10)
 - 대한궁도협회로 개칭(1948. 8. 25)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가입(1954. 3. 16)
 - 북한 국제양궁연맹에 가입(1961)
 - 미군 에로트 중령(Milan E. Elotte) 석호정(장충단공원)에서 양궁 시범(1962)
 - 국제궁도연맹(F.I.T.A) 가입(1963. 7. 27)
 - 대한궁도협회의 규약을 개정하고 양궁종목을 삽입(1963)
 - 서울 성동중학교 궁도부 창설(석봉근)
 - 제8회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한국양궁 최초 국제대회 개인 금메달(김진호)과 단체 준우승, 1978.12)
 - 제30회 세계양궁 선수권대회 참가(독일 서 베를린, 한국 첫 세계대회 참가, 김진호 3관왕, 단체전 금메달, 1979. 7)
 - 대한체육회에서 국·양궁 분리 결정(1983. 1.14)
 - 대한양궁협회 창립 총회(초대회장: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 1983. 3. 4)
 - 양궁 최초 상비군 결성(1983. 4. 28)
 - 한국양궁 올림픽 최초 참가 및 금메달 획득(제23회 L A 올림픽 서향순, 1984. 8)
 - 제 33회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 서울 개최(육사 화랑 연병장, 1985.10)
- 황학정 외 활터 폐쇄(1922): 등과정(登科亭)⁴⁷⁾ 자리로 이전

47) 등과정은 무사들의 궁술 연습장, 조선시대 서울에는 궁술 연습을 위한 서촌오사정(西村五射亭)이 있었음, 인왕산 아래 필운동(弼雲洞)의 등과정(登科亭), 옥동(玉洞)의 등룡정(登龍亭), 삼청동(三清洞)의 운룡정(雲龍亭), 사직동(社稷洞)의 대송정(大松亭), 누상동(樓上洞)의 풍소정(風嘯亭) 등(두산백과,

- ‘조선의 궁술’ 발간(1929)
- 제1회 조선궁술대회 개최: 1932년(조선궁술연구회)
- 2016년 10월 현재 대한체육회 등록 궁도인 10,690명(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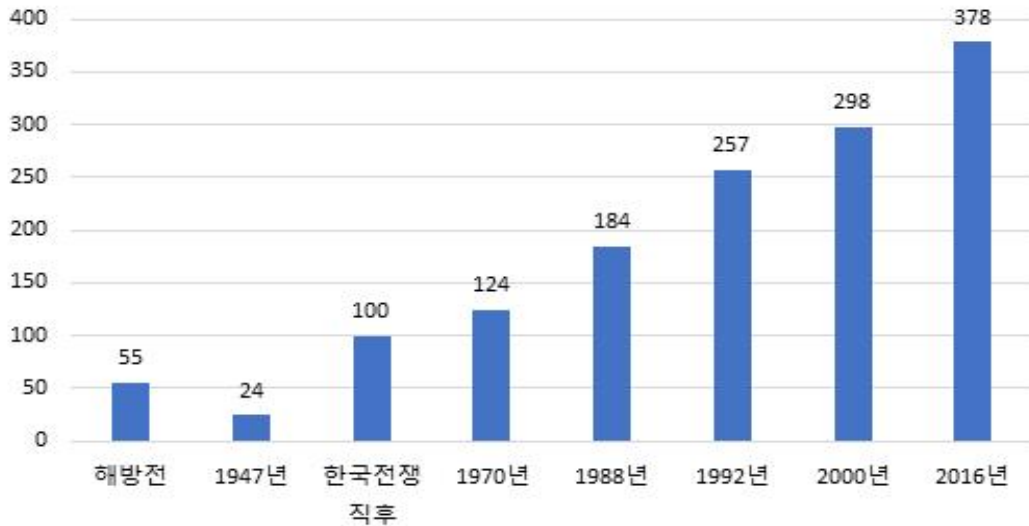
□ 사정(射亭)의 변화⁴⁸⁾

- 도성에 활터를 설치한 최초 기록은 고려 선종8년(1091) 호부남랑(戶部南郎)에 사장(射場)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 조선 태조는 도성 동편에 교장(敎場, 훈련원)을 설치하였고 태종은 이곳에 사청(射廳) 설치함, 인조는 훈련원과 함께 모화관(慕華館)을 설치하고 무과시험과 습사를 함
- 또한, 궁중에는 창경궁 후원에 춘당대(春塘臺), 경복궁 후원에 경무대(景武臺)를 두었고 지방에는 부(府), 주(州), 목(牧)에 장대(將臺), 연무대(練武臺), 관덕정(觀德亭) 등을 설치하였음
- 민간 사장은 임진왜란 이후 선조가 경복궁 동쪽에 오운정(五雲亭)을 설치하여 개방한 것이 시초가 되어 각지에 개설 되었다고 함
- 해방 전: 55지역 이상
- 1947년: 24개 정
- 한국전쟁 직후: 100여 개 정
- 1970년: 124개 정
- 1986년: 184개 정
- 1992년: 257개 정

<http://www.doopedia.co.kr>)

48) 정진명(2001), 국궁 대중화의 현황과 과제, 육군참모총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21세기 국궁발전의 방향과 과제」;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 2000년: 298개 정
- 2016년: 378개 정(대한궁도협회 등록)



<우리나라 사정의 변화>

2) 우리나라 활의 종류와 구조(재료와 형태에 따른 활의 종류)⁴⁹⁾

- 철궁(鐵弓): 철, 전시용, 110cm
- 단궁(檀弓): 박달나무, 수렵
- 죽궁(竹弓, 병테기 활): 대나무, 궁중연락, 전시, 수렵
- 철태궁(鐵胎弓): 전쟁과 수렵용, 각궁과 유사하되 幹을 철재로 제작
- 목궁(木弓): 일반병사용, 보조 활⁵⁰⁾
 - 앓기찌나무(弓幹木)와 산뽕나무(弓幹桑)를 주로 사용
 - 경궁: 떡갈나무
 - 호궁(弧弓): 뽕나무·광대싸리나무(활고자는 뽕나무, 활채는 광대싸리)
 - 회목궁: 회나무
 - 교자궁(交子弓)
- 단순궁: 한 가지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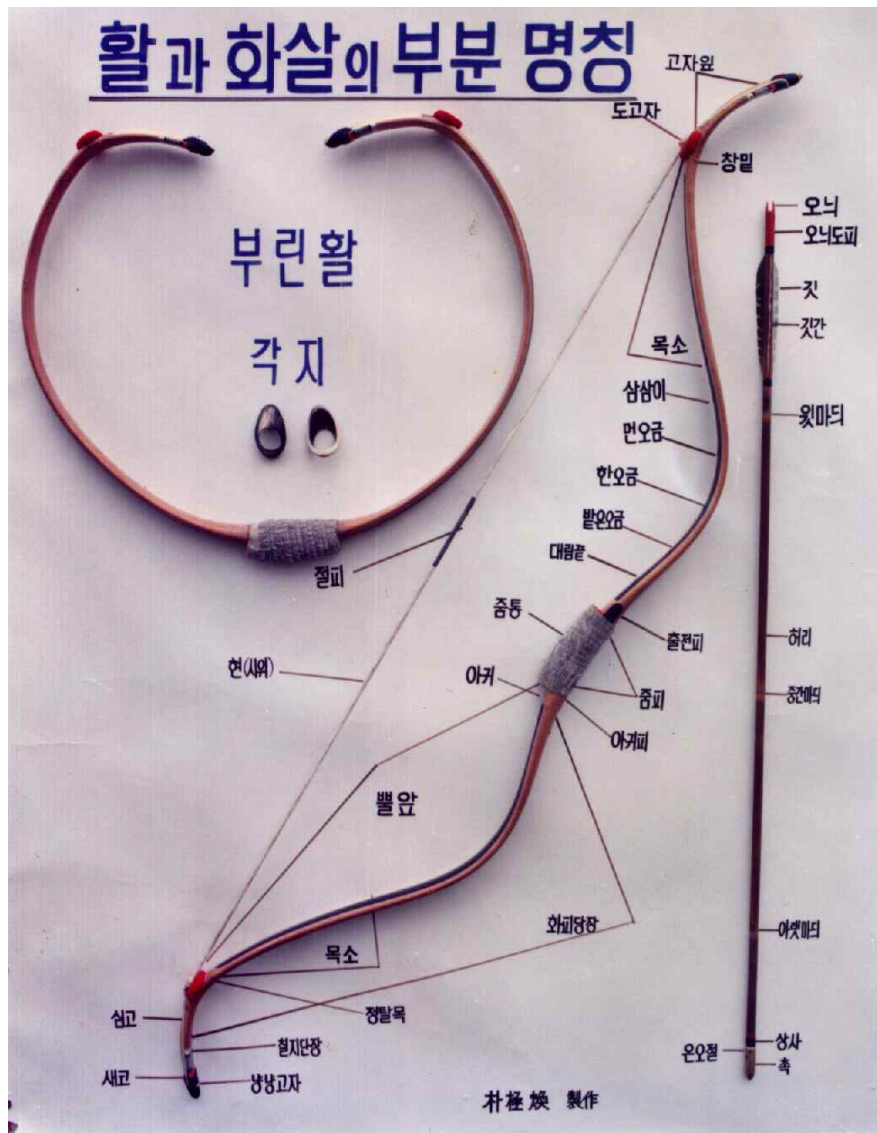
49) 정재성(2011), 전통시대 활쏘기 문화의 특성 소고, 『무예연구』 5(1), 71-89.

50) 국방일보, 2004.09.23

- 복합궁: 여러 재료, 각궁(물소 뿔, 쇠심줄, 뽕나무, 대나무 등)
- 동개활: 활과 활을 가죽주머니에 넣는 작은 활, 기사용, 전쟁과 수렵
- 정량궁: 큰활, 과거시험(초시, 복시) 용 강궁 5자5치(167cm)
- 예궁(대궁): 6자(182cm) 대궁, 궁중행사(연사, 燕射), 반궁대사례(泮宮大射禮), 향음주례(鄉飲酒禮)에 사용
- 포궁: 신라(진흥왕, 19) 신득, 성위에 설치하거나 수레에 장착하는 기계활
- 구궁노(九弓弩): 일시에 많은 화살을 발사하는 기계활
- 그 외: 신기전, 쇠뇌, 수노기, 노궁, 동궁, 호미각궁

□ 각궁과 개량궁

- 한국의 전통활 각궁의 재료: 물소 뿔, 산뽕나무, 소힘줄, 민어부레풀, 참나무, 대나무, 화피, 자작나무껍질
- 각궁은 彎曲弓으로 길이가 짧고 가벼움
- 세계의 활(민속궁) 중에 비거리가 가장 깊
- 1970년대 중반부터 신소재(카본 등) 개량궁 양산, 각궁보다 10cm이상 깊, 충격 흡수가 각궁에 비해 약함



<한국 활과 화살의 부분별 명칭>

자료: 박극환(Duvernay T., 2000)⁵¹⁾,

<http://www.webring.org/l/rd?ring=traditionalarche;id=2;url=http%3A%2F%2Fhornbow%2Ecom%2F>

- 51) 개포면 이사리 출신, 63년 예천중 졸업, 66년 전남 광주에서 매형 권태은(權泰殷)에게 사사, 75년 경주시 인왕동으로 독립하여 활동하고 있는 각궁(角弓) 제작자. 87년 부산 MBC 궁도 소개, 93년 대한궁도협회공인 1급 심판자격 취득, 92-99년 경북궁도협회 경기이사, 95-97년 경주시 궁도협회 호림정 부회장, 95년 울산MBC 각궁 제작과정 소개, 96년 인간문화재 공예작품 특별전, 96년 미국 궁도 잡지에 소개,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에 활 비디오테이프 기증, 96년 2여 년에 걸쳐 활 제작 전 과정 비디오 제작, 96년 SBS 특집 '출발 모닝와이드'에 소개, 96년 제17회 신라미술 대전 출품, 96년 제16회 대구공예대전 출품, 96년 경주체육50년사(궁도부분) 집필, 97년 활제작 신비법 발간, 97년 사단법인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회원, 95년 제20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수상, 96년 제21회 전승공예대전 입선 등 궁도대회 경북협회장기 외 3회 1위 입상, 96년 우즈베키스탄 문화성 초청전, 10여 차례에 걸쳐 방송과 신문 보도, 토마스 두버나이씨의 미국 궁도잡지와 인터넷에 소개되어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다. 그가 만든 활의 장점은 심을 곱게 찌고 얇게 여러 번 붙여져 장심(長芯)이 완실(完實)하여 견고성과 장력(張力)이 뛰어나. 지금까지 2,500여 장을 만들어 전국 각지에서 사용하고 있음 (<http://www.ycg.kr/open.content/ko/participate/free.bulletin/?id=5ada120be16c4b6595c324cd6d86b111&page=198>)

3) 각궁의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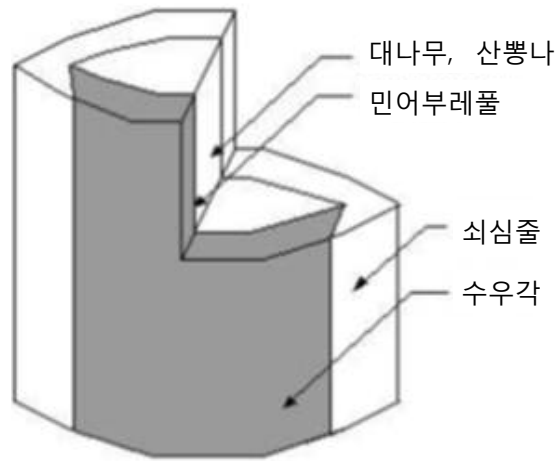
□ 각궁의 특징

- 유연하고 강한 탄력을 지닌 살아있는 활(동물과 식물의 결합)
- 각궁은 온도에 민감(각궁이 숨을 쉰다), 겨울 활과 여름 활
- 사용 시 잔여충격이 없음
- 길이가 짧음(기마가 주력)
- 최대 사거리 약300m

□ 각궁의 재료

- 물소 뿔: 조직이 치밀하고 무른 뿔, 인각, 백각, 투각 등, 활의 바깥에서 버티는 작용(황해도와 제주도에서는 황소 뿔 사용⁵²⁾)
- 쇠심줄: 황소의 등 척수에서 한 등 반 정도 추출, 활의 안쪽에서 수축력 지지
- 민어 부레퓔: 접착력 우수하고 유연하나 습기에 약함
- 대나무: 화의 중심에 사용, 3~4년 전에 준비
- 산뽕나무(弓幹桑): 고자부분에 사용, 3~4년 전에 준비, 최근 아카시아 나무로 대체
- 굴참나무: 활의 손잡이 대림목, 가볍고 단단함

52) 황소뿔을 사용한 활은 삼각궁(三角弓), 향각궁(鄉角弓), 백각궁(白角弓)으로 불렸고 한국전쟁 전후에도 제작됨(국방일보, 2004.08.19)



<각궁의 단면도>

자료: 이용희(2001). 각궁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육군참모총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21세기 국궁발전의 방향과 과제」.

□ 각궁의 제작과정

- 재단, 연소하기, 부각 풀결음, 부각, 뒤깎기, 뒤조름, 심풀들이기, 심놓이, 건조 및 점화, 해궁, 화피단장, 서피 싸기, 칠지 단장, 도고자 붙이기, 줌 만들기 순으로 진행됨

□ 각궁 올리기와 관리

○ 각궁 올리기

- 도구: 뒤집, 도지개, 궁창
- 순서: 점화장에서 꺼내기, 활펴기, 도지개 채우기(궁창 이용), 현걸기, 도지개 풀기, 현과 줌통 중심선 일치, 줌 불 보이기, 줌 내리기, 목소 불 보이기, 오금 불보이기, 삼지(보궁) 채우기, 궁대 매기, 활이 식으면 궁대와 삼지 풀기 순으로 진행됨

○ 각궁의 관리

- 활이 뒤집히지 않도록 주의
- 太平弓(편하게 활을 올릴 수 있음)이 되도록 초기 관리가 중요
- 낮은 온도에서 보관

- 한 달에 2~3번 활을 얹고(도지개 사용) 틀어진 곳 교정
- 살은 한두 순에서 서서히 늘어 갈 것
- 점화장에서 습기 제거: 여름 25~35°C, 겨울 15~25°C
- 자익 보관 시 심한 건조를 피함

4) 화살⁵³⁾

□ 화살의 재료에 따른 종류

- 목전(木箭): 축을 나무로 둥글고 가름하게 만들어 무게가 8전(錢, 약30g), 깃은 작은 새의 깃털로 좁게 배열, 240보(299.448m)에서 발사, 교습용
- 철전(鐵箭, 육량전 六兩箭, 아량전 亞兩箭, 장전 長箭): 쇠로 축을 만든 전투용 화살이고, 육량전은 무게가 여섯 냥(240g), 싸리나무(楷), 대나무(竹), 철(鐵), 쇠심줄, 깃(羽), 복숭아나무 껍질(桃皮), 아교(阿膠) 등 7가지 재료로 만들며, 아량전은 무게가 4냥(약160g), 장전(長箭)은 1냥(약40g)~1.5, 1.6냥(약60g) 정도의 화살임

□ 화살의 기능에 따른 종류

- 예전(禮箭, 大弓乘矢): 3자(약91cm), 큰 깃
- 편전(片箭, 애기살, 사거리 500m): 조선의 장기(長技)이자 비밀병기, 고려전(高麗箭), 통전(筒箭), 변전(邊箭) 등으로 기록, 주척(周尺)으로 1자2치로 약25cm, 덧살인 통아(桶兒)에 넣어 쏘는 방식
- 동개살(대우전, 大羽箭): 동개(筒箇)⁵⁴⁾에 넣어 이동하면서 기사(騎射)에 유리하게 고안, 깃을 크게 만듦(정확성 제고)
- 세전(細箭): 격서(檄書)를 보낼 때 사용, 연습 시 280보(약349.4m)

53) 정재성(2011), 전통시대 활쏘기 문화의 특성 소고, 『무예연구』 5(1), 71-89.

54) 동개는 궁대와 시복(矢服)을 합친 것이고 시복은 돼지가죽이나 사슴가죽 혹은 천으로 만든 길이 10~30cm 크기의 화살 주머니로 실전 상태에서 화살을 용이하게 뽑을 수 있음. 화살의 끝 부분만 살짝 꽃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소형 시복도 있음. 조선 후기 기병은 장전 20발과 편전 15발을 휴대함. (국방일보, 2004.11.25)

- 장군전(將軍箭): 무게가 3근(1.8kg)~5근(약 3kg), 포노(砲弩)로 발사, 선박 등의 파괴용
- 유엽전(柳葉箭): 시재(試才)와 전쟁 및 사냥 등에서 사용 가능, 과거 버드나무 잎을 닮은 뾰족한 축, 지금은 둥근 축만 사용, 과거(科擧)에서 120보(149.724m) 거리 5발, 지금은 145m
- 효시(嘯矢): 살상용 명적(鳴鏑)과 소리만 나는 향전(響箭)으로 나누어짐
- 화전(火箭): 불을 붙여 쏘는 화살

□ 전통 죽시(竹矢): 유엽전, 시누대(海藏竹)

- 죽시의 재료: 대, 싸리, 도피, 꿩깃, 쇠심줄, 부레풀, 축 등
- 죽시의 길이: 2자 5치 ~ 2자 8치
- 죽시의 무게: 6돈 ~ 1냥
- 죽시: 조직이 치밀하고 탄력이 좋은 신우대를 열처리하여 반듯한 모양이 나오도록 하여 사용하고 깃은 꿩깃으로 우궁깃과 좌궁깃으로 형태로 사용

5) 활쏘기 용구

□ 箭筒(화살통): 화살을 충격과 습기로부터 보호

- 재료: 대나무가 대부분 이나 오동나무, 거북딱지, 화피(백두산 벗나무 껍질), 투갑상어 껍질 등으로 제작 최근은 종이, 가죽, 인조가죽 등 사용
- 운동용 화살통: 길이 89~100cm, 둘레 15~25cm
- 전쟁용 화살통: 길이 40~50cm, 둘레 49cm

□ 깍지: 쇠뿔로 제작

- 깍지 종류: 암깍지, 숫깍지, 자웅깍지, 턱깍지
- 깍지 재료: 뿔 외에 금속, 플라스틱, 나무

□ 그 외 용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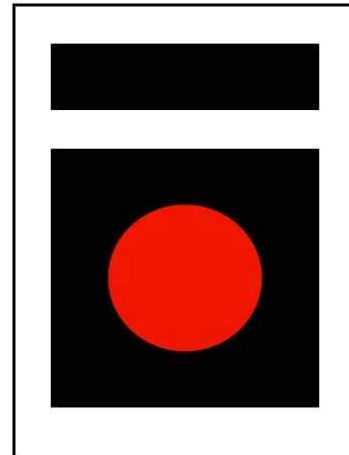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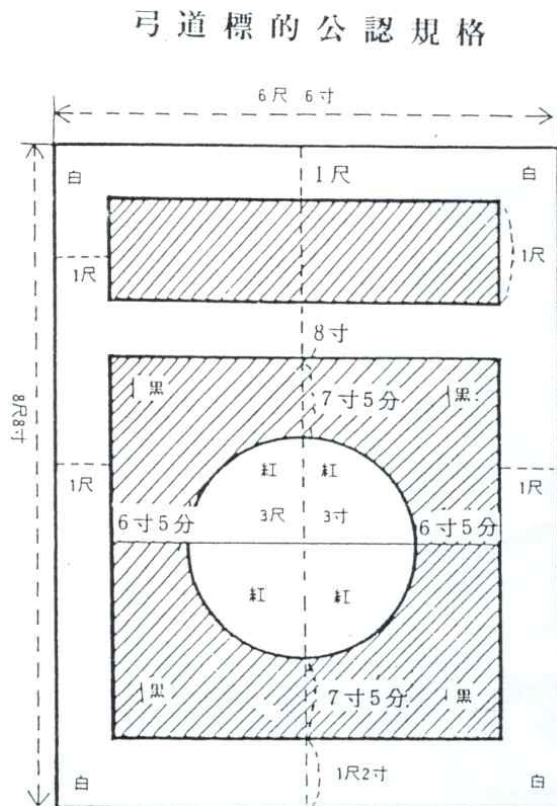
- 궁대(弓袋): 활 넣는 주머니, 허리에 묶어 화살 지참, 단전 부위에 묶어 복심을 도움
- 삼지(삼지끈): 활이 넘어가지 않도록 채움
- 시복(矢服·矢箠): 화살을 넣어 두는 주머니, 돼지가죽으로 만들고 띠는 사슴 가죽을 씌
- 동개(筒箇): 화살을 넣어 등에 매는 군장(궁대와 시복의 결합)
- 팔찌: 옷소매 묶어 고정, 腕帶
- 축도리: 화살촉 조정, 뽑기
- 복식: 옷거름 없이 왼쪽으로 여밈(좌임), 통 좁은 소매

6) 활터의 시설물과 규격

□ 현대 국궁과녁과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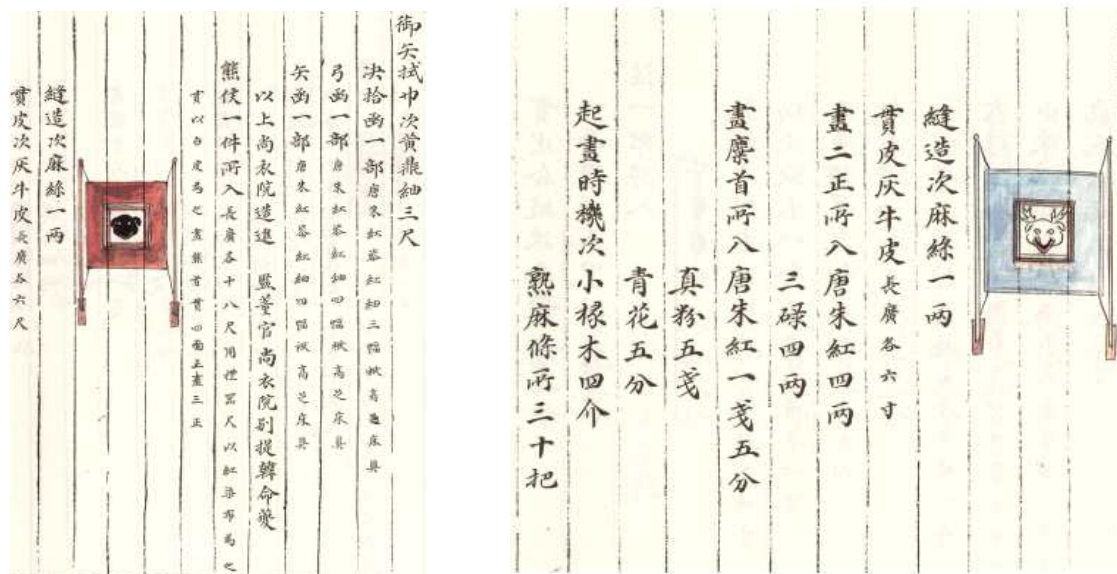
- 현대의 국궁과녁은 대한궁도협회에서 1948년 제정⁵⁵⁾
- 높이 2.67m, 폭 2m, 기울기 15°, 거리 145m

55) 최석규(2014). 국궁과녁의 변천과 정체성, 육군참모총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21세기 국궁발전의 방향과 과제.



<현대의 국궁 과녁>

자료: <http://blog.naver.com/bich2002/220545728599>; <http://cafe.naver.com/thecrossbow/41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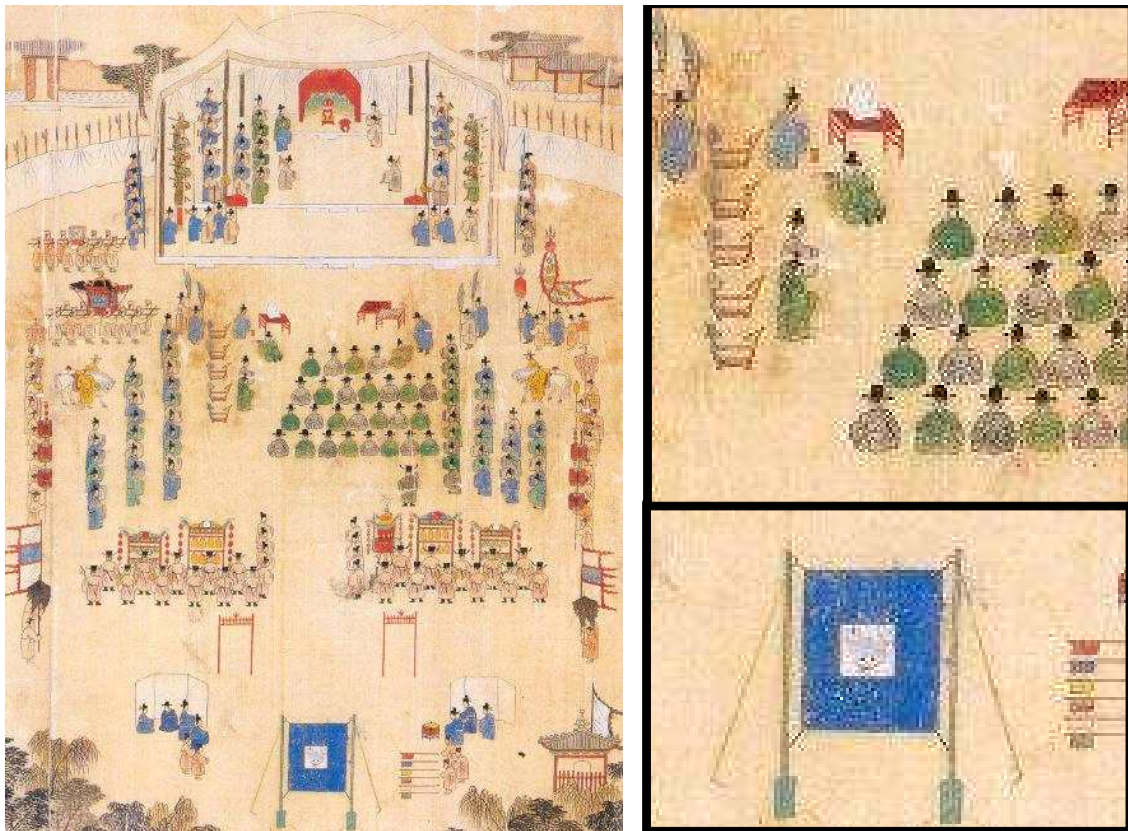


<옹후(좌)와 미후(우)>

자료: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 조선시대 과녁의 그림

- 황제는 과녁에 ‘호후’(虎侯)라고 해서 호랑이 얼굴이 크게 그려진 과녁
- 국왕은 한 단계가 내려간 ‘웅후’(雄侯)라고 해서 하얀 칠을 한 가죽에 곰의 얼굴이 그려진 붉은 베 바탕의 과녁으로 대사례 시 붉은 대나무와 붉은 줄을 사용하여 후단 위에 설치함, 높이와 너비는 1장 8척으로 하고 너비를 3등분 하여 정곡(正鹄)이 가운데 1등분을 차지하며 너비는 6척임
- 신하들은 국왕보다 한 단계 내려가 ‘미후’(麋侯)라고 하는 큰사슴(순록)의 얼굴이 그려진 과녁, 푸른색 베로 감쌌
- 군사들은 ‘시후’(豕侯)라고 하는 멧돼지 얼굴이 그려진 과녁



<조선의 대사례도>

조선 후기 국왕과 신하들이 함께 활을 쏘던 의식을 그린 '대사례도'. 임금은 붉은 바탕에 곰의 얼굴을, 신하들은 푸른 바탕에 사슴 얼굴을 쏘다. 그림 하단을 보면 푸른 바탕에 사슴 얼굴(위 확대 그림 참조)이 있으니 신하들이 활쏘기를 마친 것이다. 그림 중간을 보면 신하 중 한 명이 무릎을 꿇고 별주 받는 모습(아래 확대 그림 참조)이 그려졌다 (국방일보, 2013.11.13)

7) 국궁의 사법

□ 국궁 활쏘기의 기본

- 발로 서기: 非丁非八
- 만작: 아녀자가 물을 가득 담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려고 들어 올리듯이
- 줍손: 줍통을 흘려 잡아 태산을 밀 듯이
- 살 먹이기: 절피에 오늬를 끼움
- 깍지손: 시위를 엄지로 걸고 검지와 중지로 당김
- 발시: 後握虎尾, 호랑이가 꼬리를 채듯이(온깍지, 깍지손은 앞으로 팔려가지 않는다)⁵⁶⁾

□ 활쏘기 연속 동작

- 발디딤, 손가짐, 살 먹이기, 들어올리기, 밀며당기기, 만작, 발사, 잔신

□ 활쏘기 세부 동작

예비동작	01. 발모양 02. 손가짐 03. 살메우기
본동작	04. 걸치기 05. 죽올리기 06. 엄지발가락누르기 07. 깍지손끌기 08. 온작 09. 발시
마무리동작	10. 거두기

자료: 모창배·정진명(2007), 국궁 사법의 원형에 대한 실태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1

56) 요즘에는 개량궁의 사용이 늘고 입사가 중심이 되어 반깍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짐(정재성·최미애(2011). 한국 활쏘기 문화의 현황적 특성, 스포츠인류학 연구 6(2), 173-188.)

8) 국궁의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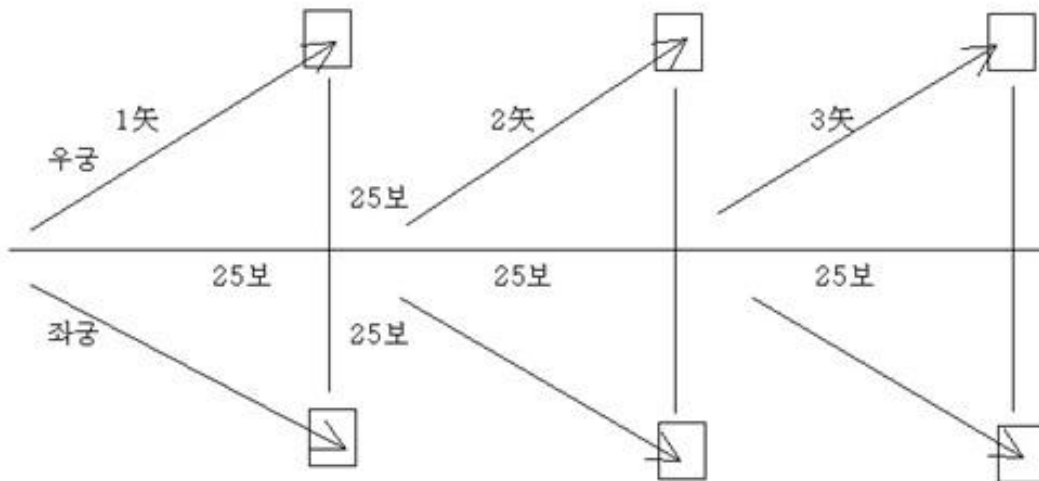
□ 과거의 경기⁵⁷⁾

○ 立射 (서서 활쏘기)

- 세종 11년(1428년) 무과시험의 활쏘기의 사거리는 3가지
- 성종11년(1471년) 경국대전
- 원거리: 240보 (약 178m)
- 중거리: 180보 (약 134m)
- 단거리: 80보 (약 60m)
- 직사각형의 과녁에 변과 관을 표시하고, 50발(10순)을 발사함, 변에 맞으면 1점, 관에 맞으면 2점 기록(정조)

○ 步射 (걸으며 활쏘기)

○ 走射 (달리며 활쏘기)



○ 騎射 (말 타고 활쏘기)

- AD 4C 고구려 고분 벽화 ‘무용총’ 기마 수렵도, 기사에 대한 시험 장면 그림(안악3호분: 前射, 側射, 背射의 3가지 방식이 표현됨)
- 고려(918-1392년) 궁술과 마술 교습하여 경궁, 사궁, 정노, 강노 등의 특수부대인

57) 상계서: 김현구(2000), 국궁 세계화 방안, 육군참모총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21세기 국궁발전의 방향과 과제.

특과병 조직

- 태조 이성계는 한양 도성 동편에 궁술 교육장을 설치하고 射廳(활쏘기를 지도 관리하는 관청)을 열어 군사들의 활쏘기 장려
- 세종 6년(1424년) 11월 27일 경복궁 경회루에서 기사를 실시함
- 세종 11년(1429년) 1월 24일 확정된 武科 殿試儀에 步射와 騎射에 대한 규정 제시
 - : 기사와 과녁은 좌우에 3개씩 설치하고 그 사이는 25보이고 3개의 과녁간의 거리는 모두 50보(일직선상으로는 75보)
 - : 좌사는 좌편 과녁에, 우사는 우편 과녁에 3발씩 쏘
 - : 과녁직경은 1척 2촌 (37cm)이고 1개 과녁마다의 간격은 25보에서 세종 29년에는 과녁의 간격이 35보(약 26m)로 늘어남
 - : 경기규칙은 달리면서 우궁은 홍적만 쏘고 좌궁은 백적만 쏘며 활을 충분히 당기지 못한 거나 말을 빨리 달리지 못한 것 그리고 채찍을 버릴 때는 감점 처리 함
 - : 세종 24년에는 좌우 5개의 과녁을 놓고 좌우 갈지자로 달리면서 쏘
- 효종 6년(1656년) 무사들에게 말을 달리면서 활 쏘는 시험을 보게 함

○ 편사(便射)⁵⁸⁾

- 최소한 5백년의 역사를 지닌 풍속
- 편사놀이는 편을 짜서 하는 활쏘기 놀이로 갑·을·병 3등급으로 나누어 경기를 함
- 첫째, 유희적인 성격이 강하고, 예절(禮節)과 절차를 엄숙하게 함
- 둘째, 양편(兩便)의 사원을 15명씩 선정하여 삼순(三巡)을 겨루는 경쟁하는 형식
- 셋째, 편사의 종류는 10여 가지 종류로 터편사, 골편사, 장안편사, 사랑편사, 한량편사(한출편사), 삼동편사, 남북촌편사, 아동편사 등으로 구분하였고 이 중 터편사·골편·장안편사가 가장 대표적인 편사였음
- 넷째, 편사의 진행절차는 선단(宣單)을 통해 편사를 신청하고, 초중회(初衆會), 재중회(再衆會)등을 통해 응단(應單)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
- 현재 장안편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수됨
- 장안편사: 서울 문 안에 사는 사원들이 1구역의 팀이 되고, 모화관(慕華館)·홍제원(弘濟院)·창의문(彰義門) 밖·남대문 밖·아현(阿峴)이 1구역, 마포·용산·서강·양화진·독섬·왕십리·동대문 밖이 1구역이 되어 3구역이 겨루는 편사
- 한말에는 도성 안쪽에 다섯 군데의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서촌 오사정(西村 五射亭)이라 하였음

58) 정진명(2001), 국궁 대중화의 현황과 과제, 육군참모총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21세기 국궁발전의 방향과 과제; 김이수(2016), 전통 활쏘기의 풍속(風俗)과 사풍(射風)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24(1), 221-237;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현재 장안편사는 황학정(黃鶴亭)에서 행해짐
- 황학정은 1899년 고종(재위 1863~1907)의 명으로 지어진 것으로, 처음에는 경희궁 북쪽에 있었으나 1922년에 서촌 오사정 중의 하나였던 옛 등과정(登科亭)자리로 옮겨지음
- 터편사: 사정(射亭)의 대표끼리 대항하는 편사
- 골편사: 동리 또는 고을의 구역 안에 있는 사정이 연합해서 다른 고을의 연합팀과 겨루는 편사
- 사랑편사(斜廊便射): 활터 관할과 무관하게 사랑의 교유하는 무사들이 편을 짜서 시합
- 사계편사: 역시 활터의 관할과 무관하게 사계(射契) 상호간의 편사
- 남북촌편사: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큰 길을 갈라서 남쪽과 북쪽의 사원들이 겨루는 편사로, 1876년(고종 13)에 시작됨
- 아동편사: 동네 아동들끼리의 시합으로, 궁술 장려를 위한 편사

○ 편사의 절차

- 편사를 발기하는 활터에서 선단(宣單)을 작성하여 사두·선생·행수가 서명한 다음 두 사람이 다른 활터에 가지고 감
- 활터에 이르면 “아무 활터에서 단자(單子)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인사를 받은 활터는 의관을 정제하고 선단을 받고 두 사람에게 “쉬어 가십시오.”라고 권하나 두 사람은 공손히 사양하고 돌아감
- 선단을 받은 활터에서 편사에 응할 수 없으면 3일 안에 거절하는 방단(防單)을 써서 상대 활터에 보내고 편사에 응할 때에는 먼저 사원 가운데서 수패를 정하여 편사에 나아갈 사원을 습사로 우열을 가려 뽑고 준비가 완료되면 상대 활터에 응단(應單)을 보냄
- 응단을 받은 활터에서는 3일 이내에 편사의 날짜를 적어 답장(지일단자, 指日單子)을 보내고 지일단자를 받은 활터에서는 수패를 비롯한 15명의 선수를 최종 선발하며 수패가 선수들에게 주의사항을 훈시함⁵⁹⁾
- 편사 전날 선수들은 자기 활터에서 고사(告祀)를 지냄, 제물은 청주·삼색과일·찹쌀시루떡·쇠머리 또는 돼지머리이며 낮이라도 초 두 자루에 불을 켜서 백지 열여섯 장을 태움, 그 첫 장은 부정소지(不淨燒紙)로 태우고 나머지 열다섯 장은 수패를 비롯한 출정선수들을 위한 소지로 태움, 고사가 끝나면 모두 음복(飮福)하고 초를 열다섯 조각으로 갈라 나누어 가짐

59) “편사 당일에 술을 마시지 말 것, 활터에서는 몸을 단정히 하고 웃거나 잡담하지 말 것이며, 좌우를 돌아보지 말 것이다. 또, 활을 쏠 때에는 기운을 내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조금도 조급하지 말 것이며, 집궁(執弓)·방전(放箭)과 궁체법식(弓體法式)을 심분 명심하고 소홀히 하지 말라”

- 편사를 청한 활터에서는 시합 당일 도청(都廳)을 차려놓고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림, 응사(應射)할 활터로부터는 군막(軍幕)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시지(試紙)와 붓·벼루·먹 등을 준비하는 한편, 군막 앞에 사정기(射亭旗)를 꽂아 세움⁶⁰⁾
- 각 정 대표가 나와 활쏘기시합을 하게 되면 이를 정순(定巡)이라 하고 시합성적을 정시지(正試紙)에 적음⁶¹⁾
- 화살이 과녁을 맞추면 거기한량(擧旗閑良)이 기를 들고 흔들여 보임, 장족한량(獐足閑良)은 과녁 앞에 가서 화살이 맞은 곳을 두들기며 명중사실을 확인함⁶²⁾
- 선단활터와 응단활터가 동점인 경우에는 주최측이 진 것으로 간주함
- 응단활터 상호간에 동점을 얻었을 때에는 다시 15명이 나와 일순(一巡)한 뒤 시수(矢數)를 따져 승부를 결정함
- 우수한 활터가 결정되면 그 군막에 기생과 풍악을 보내어 축하하고, 돌아갈 때에도 우승 활터 선두에는 기를 앞세우고 풍악이 뒤따라 승전을 자랑하며, 기생은 <태평곡>이나 <길군악>을 불러 전승의 기쁨을 뽐냄
- 다시 편사를 원할 때에는 진 쪽이 이긴 편에 대하여 청하게 됨⁶³⁾
- ‘지고 청하는 편사’의 경우에는 편사 당일의 일체 비용을 청한 쪽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응사하는 활터에서는 활과 화살만 들고 오면 되고 군막은 물론 점심까지 대접함⁶⁴⁾
- 시합이 늦어 해가 지면 촛불과 사동을 군막에 보내어 돌아갈 때 거화(炬火)하도록 주선하여야 함, 편사는 참가 활터가 돌아가며 한번 지고 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⁶⁵⁾

○ 관중을 판정하는 규정

- 1. 화살이 과녁에 맞고 나무조각이 떼어졌으나 화살이 과녁에 꽂히지 않은 경우, 그 나무조각의 무게가 3돈쫑(3錢)이면 맞은 것으로 인정함

60) 응사하는 활터가 여럿이면 각기 군막을 치고 깃발을 세움

61) 적는 이를 척관이라 함, 과녁(貫革)에 화살이 명중하면 관중(貫中)이라 하고, 정시지에는 ‘변(邊)’ 또는 ‘중(中)’이라고 적으며 맞지 않으면 ‘실(失)’이라 기록함

62) 기생이 있을 때에는 “아무 서방님 일시(一矢)에 관중이오”라 소리치면서 <지화자>를 부름, <지화자>에 이어 풍악을 울리게 되는데, 1·2중에는 장영산(長靈山) 곡조를, 3중에는 염불곡을, 4·5중에는 타령조를 울림, 본래 5중(中)하였을 때만 부르던 것을 1중에도 부르게 된 것임

63) 청하는 말은 “폐정으로 일차 왕립하오소. 오늘 미진한 정을 창서(暢叙)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함, 청을 받은 활터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고 청한 쪽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합 날짜를 정하여야 함, 이를 ‘지고 청하는 편사(負後更請便射)’라 함

64) 점심 차림은 흰밥·잡탕·나물·김치·깍두기·진찬합·건찬합·주발 그리고 수저 열다섯 벌이고, 술은 제외됨, 점심을 각 군막에 보낼 때는 사원 2명이 가서 “왔습니다.”라고 먼저 인사하면 군막에서 “오시오”라고 대답하고 두 사람이 “점심 가져왔습니다. 찬수는 없사오나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하며 돌아간 뒤, 점심을 마친 군막에서는 “점심을 보내주셔서 잘 들고 감사하오이다”라고 인사함

65) 때론 두 번 지고 청하는 편사(連負再請便射)도 있어 이 경우에는 선수 명단을 바꾸어 시합함

- 2. 과녁에 틈이 있어 화살이 그 틈을 지나가면 맞은 것으로 인정
- 3. 화살이 과녁의 위턱을 치고 나가면 맞지 않은 것으로 함
- 4. 화살이 과녁에 미치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서 과녁에 맞는 경우 점심살이라 하고 과녁에 꽂혔을 때에 맞은 것으로 간주함
- 5. 과녁에 맞았으나 축만 박히고 살대가 땅에 떨어졌을 경우는 맞은 것으로 함

□ 현대의 경기

- 단체전: 편사 방식을 활용함
- 개인전: 활 백일장
- 5발을 1순으로 3순(初巡, 中巡, 終巡) 경기가 기본, 7명이 사대에서 차례로 발사
- 3순, 5순, 9순 외, 단체전은 토너먼트도 가능
- 관중 시 1점
- 최종 동점 시 재경기, 재경기 동점 시는 1발식 승부
- 초단 9순에 25중, 2단 28중, 3단 29중, 4단 30중, 5단 31중 이상
- 5단 이상은 각궁에 즉시 사용, 명궁 칭호
- 射亭별 朔會를 통해 소속 射員의 기량 함양

9) 국궁의 예절

- 등정 시에 正間 배례(과거 신위)를 함
- 활터에 설 때는 연장자가 왼쪽(사두, 고문, 고참자, 연장자 순)
- 좌궁은 맨 오른쪽에, 여무사도 오른쪽(정의 규정에 따름)
- 화살은 한 순분만 지참, 7인씩
- 新射는 사범이 지도함

○ 궁도9계훈⁶⁶⁾

- 仁愛德行 사랑과 덕행
- 誠實謙遜 겸손과 성실
- 自重節操 행위와 절개
- 禮義嚴守 예의범절
- 廉直果敢 청렴결백과 용기
- 習射無言 활 쏠 때 침묵
- 正心正己 몸과 마음을 바르게
- 不怨勝者 승자를 원망하지 않음
- 幕彎他弓 타인의 활을 만지지 않음

○ 집궁8원칙⁶⁷⁾

- 先觀地形 먼저 주변 환경을 살핌
- 後察風勢 바람의 방향과 세기
- 非丁非八 양발의 모양
- 胸虛腹實 가슴을 비우고 복부에 힘을 줌
- 前推泰山 줍손은 태산을 밀듯이
- 後握虎尾 각지 손은 호랑이 꼬리를 당기듯
- 發而不中 관중이 되지 않으면
- 反求諸己 자신을 다시 살핌

○ 활쏘기의 교훈⁶⁸⁾

- 生弓不可必中 익지 않은 활은 맞힐 수 없다
- 生疎不可必中 생소한 활은 적중할 수 없다
- 弓强矢輕不可必中 활이 강한데 화살이 가벼우면 적중할 수 없다
- 弓弱矢重不可必中 활이 약한데 살이 무거우면 적중할 수 없다
- 氣驕志怠不可必中 기가 교만하고 뜻이 게으르면 적중할 수 없다
- 心身恍惚不可必中 마음과 정신이 흐리면 적중하지 못한다
- 射多力疲不可必中 활쏘기가 너무 과하면 힘이 들고 몸이 피로하여 적중할 수 없다
- 見己之病不改不可必中 자기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아니하면 적중하지 못한다

66) 김성일(2011), 한국 궁도의 교육적 의의와 발전과제, 『한국스포츠학회지』 9(1), 43-53.

67) 상계서

68) 황시열(2015), 『국궁』, (주)대원사, 서울

- 好勝之心甚不可必中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심하면 적중할 수 없다
- 怯懦之心生不可必中 겁먹고 나약한 마음이 생기면 적중하지 못한다

10) 국궁 관련 문화재

□ 사적

종 목	사적 제155호
명 칭	아산 이충무공 유허 (牙山 李忠武公 遺墟)
분 류	유적건조물 / 인물사건/ 인물기념/ 순절지
수량/면적	586,992.8m ²
지정(등록)일	1967.03.18
소 재 지	충남 아산시 엄치읍 48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문화재청
관리자(관리단체)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충무공 이순신이 무과에 급제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지금의 현충사이다. 주요시설로는 이순신의 초상화를 모셔놓은 현충사를 비롯하여 이순신이 자란 옛 집, 활을 쏘며 무예를 연습하던 활터, 정문인 홍살문, 셋째 아들 이면의 무덤이 있다. 충무공이순신기념관에는 국보76호 9점(난중일기 7권, 임진장초 1권, 서간첩 1권), 보물 326호 6점(장검 2병, 요대1구, 옥로1구, 도배구대1쌍), 보물 1564호 16점 (선무공신교서, 기복수 직교서 등) 등이 소장되어 있다.

종 목	사적 제320호
명 칭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蔚山 慶尙左道兵營城)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성/ 성지
수량/면적	68,275m ²
지정(등록)일	1987.07.18
소 재 지	울산 중구 서동 149-8번지 외

시 대	조선시대
관리자(관리단체)	중구

경상좌도의 병마절도사가 머물던 성으로, 조선 태종 17년(1417)에 쌓은 해발 45m 이하의 낮은 구릉을 이용해 골짜기를 두른 타원형의 성이다.

초기에는 성벽 위에서 담처럼 생겨 몸을 숨긴 채 총이나 활을 쏘는 시설인 여장을 비롯한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었다. 그 후 세종 때에 이르러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성을 보호하고 공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웅성·적대·해자 등 여러 방어시설을 설치했다.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당시 성의 둘레는 3,723척(약 1.2km)이고, 높이는 12척(약 3.7m)이며, 성 안에는 우물·도랑·창고 등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의 영성(營城)이며, 조선시대 성곽연구에 중요한 유적이다.

※(울산병영성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으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2011.07.28 고시)

종 목	사적 제327호
명 칭	창원 다호리 고분군 (昌原 茶戶里 古墳群)
분 류	유적건조물 / 무덤/ 무덤/ 고분군
수량/면적	104,676㎡
지정(등록)일	1988.09.03
소 재 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237-3번지
시 대	가야
관리자(관리단체)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다호리에 있는 고대국가 형성기의 고분이다. 구릉지와 저습한 평지의 지형 관계로 목제품 유물의 보존이 가능한 지형이다.

1호 목관묘에서 보이는 나무널은 지름 1m의 통나무를 세로로 쪼개어 속을 파서 만든 구유 모양으로, 우리나라 서북지방 나무널과 차이가 난다. 출토유물은 동검, 중국거울(한경)을 비롯한 청동기와 오수전, 철검, 손칼, 부어 만든 도끼(주조철부), 두드려 만든 판상철부 등 철 기제품이 나왔다. 또한 칼집, 활, 화살, 합, 붓, 부채, 칠기와 민무늬토기, 와질토기가 출토되었다. 특히 중국 거울인 성운경과 중국 화폐인 오수전이 출토되어 다호리 고분이 서기 1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1세기 사이의 유적임을 알려주고 있다. 다양한 철기와 중국계 유물의 출토로 보아, 이 지역의 철 생산을 바탕으로 중국·낙랑과 교역한 세력의 지배자 무덤으로 보여진다.

※(의창다호리고분군 → 창원 다호리 고분군)으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2011.07.28 고시)

종 목	사적 제385호
명 칭	구례 석주관성 (求禮 石柱關城)
분 류	유적건조물 / 교통통신/ 교통/ 도로
수량/면적	29,965m ²
지정(등록)일	1993.11.10
소 재 지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산65번지 외 12필지
시 대	고려시대
관리자(관리단체)	구례군

고려 말기에 왜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진을 설치했는데 임진왜란(1592) 때 전라방어사 곽영이 호남지역의 왜적을 막기 위해 옛 진 위에 석주관성을 쌓았다. 성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활이나 총을 쏠 수 있게 갈라놓아 적의 공격으로부터 잘 방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며 성벽 아래쪽과 위쪽의 쌓은 수법에도 차이가 있다.

종 목	사적 제214호
명 칭	산청 전 구형왕릉 (山淸 傳 仇衡王陵)
분 류	유적건조물 / 무덤/ 왕실무덤/ 고대
수량/면적	45,000m ²
지정(등록)일	1971.02.09
소 재 지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16번지
시 대	삼국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사)가락중앙종친회
관리자(관리단체)	산청군

가야 10대 임금인 구형왕의 무덤으로 전해지고 있는 돌무덤으로, 구형왕은 구해(仇亥) 또는 양왕(讓王)이라 하는데 김유신의 증조부이다. 521년 가야의 왕이 되어 532년 신라 법흥왕에게 영토를 넘겨줄 때까지 11년간 왕으로 있었다.

조선 정조 17년(1793)에는 왕산사에서 전해오던 나무상자에서 발견된 구형왕과 왕비의 초상화, 옷, 활 등을 보존하기 위해 '덕양전'이라는 전각을 짓고, 오늘날까지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전구형왕릉 → 산청 전 구형왕릉)으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2011.07.28 고시)

종 목	사적 제392호
명 칭	여수 선소유적 (麗水 船所遺蹟)
분 류	유적건조물 / 산업생산/ 제조업/ 조선소
수량/면적	18,541㎡
지정(등록)일	1995.04.20
소 재 지	전남 여수시 시전동 708번지 외
시 대	조선시대
관리자(관리단체)	여수시

고려시대부터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던 자리이다. 특히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거북선을 만들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도상으로 보면 가막만의 가장 북쪽에 조선소가 있으며 조선소의 바다 입구에는 가덕도와 장도가 조선소의 방패 구실을 하고 있다. 또한 먼 바다에서 보면 육지처럼 보이고, 가까이 봐도 바다인지 호수인지 알아보기 어려워 중요한 해군 군사 방어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곳에는 거북선을 만들고 수리했던 '굴강', 칼과 창을 갈고 닦았던 '세검정', 수군지휘소였던 '선소창', 수군들이 머물렀던 '병영막사', 거북선을 매어 두었던 '계선주', 칼과 창을 만들던 '품못간', 왜군들의 활동을 살피던 '망해루', 말과 수군이 훈련하던 '망마기마대', 창을 던지고 활을 쏘는 연습장인 '궁장사', 일반인의 통행금지를 표시했던 벽수(석인) 등 다양한 관련 유물들이 남아 있으며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 변씨부인을 모셨던 곳인 '자당기거지'가 있다.

□ 천연기념물

종 목	천연기념물 제445호
명 칭	하동송림 (河東松林)
분 류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생물과학기념물/ 생물상
수량/면적	약900여주
지정(등록)일	2005.02.18
소 재 지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번지

소유자(소유단체)	건설부 외
관리자(관리단체)	하동군수

하동송림은 조선 영조 21년(1745) 당시 도호부사였던 전천상이 강바람과 모래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심었던 소나무숲으로, 모두 750그루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노송의 나무껍질은 거북이 등과 같이 갈라져 있어 옛날 장군들이 입었던 철갑옷을 연상케 한다. 숲 안에는 활을 쏘는 장소인 하상정(河上亭)이 있어 군사들의 단련장이 되고 있다.

□ 국가무형문화재

종 목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명 칭	궁시장 (弓矢匠)
분 류	무형문화재 / 전통기술/ 공예
지정(등록)일	1971.09.13

궁시장이란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능과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활을 만드는 사람은 궁장(弓匠),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시장(矢匠)이라 한다.

본래 우리 민족의 활 만드는 기술은 오래전 부터 세계 어느 민족보다 탁월한 기교를 가졌다고 전해진다. 중국에서는 한국 민족을 활을 잘 만들고 잘 쏘는 동쪽의 민족이라는 뜻에서 '동이'라고 하였다. 고구려 활의 형태는 벽화속에서 볼 수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국궁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한국의 전통활은 이때부터 변함없이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시대에도 활쏘기를 중요시했으며, 조선 전기에는 과거시험의 무과과목에 궁술이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부터 조총이 수입되어 활은 전쟁용 무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이 변화하여 현재는 국궁인 각궁(角弓)이 보편화되었다.

활 만드는 재료는 대나무, 뽕나무, 물소 뿔, 소의 심줄이 있다. 한국의 활은 쇠뿔과 쇠심줄을 사용한 각궁(角弓)이란 점이 특징이며, 화살이 멀리 나가는 강궁(强弓)에 속한다. 활짚의 손잡이 부분과 양끝에는 참나무와 뽕나무를 각각 대지만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죽심(竹心)을 넣고 그 안팎에다 쇠뿔과 쇠심줄을 민어부레풀로 접착시켰다. 그러나 민어부레풀은 습기가 많고 기온이 높으면 잘 접착되지 않아 여름철에는 활을 만들지 않는다. 제작도구로는 톱, 대패, 나무망치, 줄, 칼, 송곳, 나무집게, 나무빚, 쇠뿔 등이 있으며 화살의 종류로는 목전, 철전, 예전, 세전, 유엽전 등이 있다. 싸리나무, 대나무, 철, 심줄, 새의 깃, 도피, 아교 등이 주재료이며 계절에 관계없이 계속 만들 수 있다. 다만 오른손잡이는 우궁깃을 왼손잡이는 좌궁깃을 달아야 한다.

보유구분	이름	성별	기예능	인정일	해제일 ⁶⁹⁾
보유자	유영기 (劉永基)	남	시장	19961210	(파주)
보유자	김종국 (金鍾國)	남	시장	20080507	(예천)

보유자	박호준 (朴浩濬)	남	시장	20080507	(부평)
보유자	권영학 (權寧鶴)	남	활 제작 ⁷⁰⁾	20150527	(예천)
전수교육조교	유세현 (劉世鉉)	남	시장	20040320	(파주)
전수교육조교	김윤경	남	공장	20090917	(부천)
전수교육조교	김성락	남	공장	20090917	(예천)
보유자	김박영 (金博榮)	남	공장	19961210	20110411
전수교육조교	김종국 (金鍾國)	남	시장	19870701	20080507
전수교육조교	박호준 (朴浩濬)	남	시장	19841201	20080507
보유자	박상준 (朴商俊)	남	시장	19780223	20010824
보유자	장진섭 (張鎭燮)	남	공장	19710913	19960417
전수교육조교	권오규	남	공장	19841201	19910828
전수교육조교	김기원 (金基源)	남	공장	19820901	19880624
보유자	권영록 (勸寧錄)	남	공장	19710913	19860510
보유자	김장환 (金章煥)	남	공장	19710913	19840705
보유자	이석훈 (李碩薰)	남	시장	19710913	19801211
보유자	조명제 (趙命濟)	남	시장	19780223	19800609

종 목	국가무형문화재 제93호
명 칭	전통장 (箭筒匠) ⁷¹⁾
분 류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지정(등록)일	1989.06.15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69) 활동지역 표시는 연구자 첨기

70) 문화재청 자료를 그대로 인용함

전통(箭筒)은 전쟁을 하거나 사냥을 할때 화살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던 화살통을 말하며, 화살통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전통장(箭筒匠)이라 한다.

우리나라 전통의 역사는 오래되어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쌍영총의 기마도와 수렵도 등의 벽화에서 그 모습이 보이고, 신라와 백제 고분에서는 화살통을 꾸민던 꾸미개가 출토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군인들의 사격연습이 실행되어 군수용품으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총포와 화약의 발달로 활의 중요성이 감소하여 화살통을 만들던 사람들은 직업을 바꾸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활쓰기가 취미생활의 하나가 되었고 화살통 역시 전쟁용에서 운동용으로 변하게 되어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

전통은 재료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대나무로 만든 죽전통, 종이로 만든 지전통, 오동나무로 만든 목전통, 상어가죽으로 만든 교피전통 등이 있으며 때로는 조각이나 나전을 이용해 그 꾸밈새를 화려하게 만든 것도 있다.

전통의 재료는 주로 2년 이상 된 맑은 녹색의 왕대나무를 사용한다. 밑동부터 위로 90~97cm 정도로 자른 대나무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 2년 이상 저장했다가 묶은 양잿물에 3일 정도 담가서 기름(진)을 뺀다. 그 후 몸통 속에 막혀있는 마디를 제거하고 껍질에 문양조각과 칠을 하여 완성한다.

보유구분	이름	성별	기예능	인정일	해제일
보유자	김동학 (金東鶴)	남	전통장(箭筒匠)	19890615	

□ 중요민속문화재

종 목	중요민속문화재 제35호
명 칭	각궁 (角弓)
분 류	유물/과학기술/무기병기류/ 무기무구류
수량/면적	일괄
지정(등록)일	1976.12.31
소 재 지	서울 노원구
시 대	대한제국시대

- 71) 전통을 재료별로 구분하면 대나무로 만든 죽전통(竹箭筒)이 가장 흔했고 오동나무를 사용한 각전통(角箭筒), 뽕나무나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화피전통(花皮箭筒)도 있었고 단순히 종이를 재료로 한 지전통(紙箭筒), 종이를 실처럼 꼬아 만든 지승전통(紙繩箭筒), 종이를 겹겹이 발라서 다시 칠을 해 만든 지칠전통(紙漆箭筒) 등이 있었으며 고급스러운 전통으로는 거북 껍질로 만든 대모전통(玳瑁箭筒), 투갑상어 껍질로 만든 어피전통(魚皮箭筒), 그리고 나전칠기로 장식한 나전칠전통(螺鈿漆箭筒) 등이 있음, 한국의 전통 생산지로 전주·광주·예천·나주·담양·경주 등이 유명했음. (국방일보, 2004. 11. 18)

소유자(소유단체)	대한궁도협회
관리자(관리단체)	육군사관학교

조선시대 고종(재위 1863~1907)이 사용하던 활이라고 전하며, 당시 활 만드는 장인 장문환이 제작하였다고 한다. 활의 전체길이는 124cm이고, 오금너비는 3cm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각궁은 명성이 높고 독특한 자료로 만들었다. 글자 그대로 쇠뿔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한국의 대나무, 물소 뿔, 쇠심, 구지뽕나무, 참나무, 화피의 6가지 재료로 구성된다.

이 각궁은 뱃나무 껍질로 만든 화피 위에 채색을 하였으며, 시위고리를 거는 새코머리는 가죽으로 감싸서 3가지 색의 천으로 발랐고 그 밑에는 아(亞)자 무늬를 새긴 검정색 종지로 감쌌다. 특히 이 활의 검은색 양 단에 각각 '호미(虎尾)' 및 '주연(珠淵)'이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어 특색을 이루고 있는데, '주연'이 고종황제의 호이므로 고종의 활이라는 내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활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각궁이 언제부터 널리 보급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함흥 선원전에 태조 이성계의 유물로서 이 각궁이 보관되어 있었고, 또 『경국대전』에 각궁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이미 각궁의 구밈새가 정형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 목	중요민속문화재 제38호
명 칭	정공청 유품 (鄭公淸 遺品)
분 류	유물/생활공예/복식공예/의복
수량/면적	일괄(12점)
지정(등록)일	1979.01.23
소 재 지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277-0 (신정동, 울산박물관)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정철환
관리자(관리단체)	울산박물관

정공청 장군이 임진왜란(1592)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하면서 착용했던 투구와 갑옷, 장갑, 혁대, 화살 등의 유품이다.

정공청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들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여 울산, 서생포, 기장 등지에서 백여배에 달하는 왜군들과 싸워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공을 세웠으며 이 때문에 그는 1등, 그의 아들은 2등 공신에 책봉되었다.

현재 그의 유물들은 후손인 정철환이 국립경주박물관에 위탁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정장군의 유품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날의 것과 모습이 거의 같은 장갑이다.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활을 쏠때 낀 것으로 보이며 엄지손가락에는 뿔로 만든 깍지가 붙어 있다.

그밖에 가죽으로 만든 길이 80cm, 125cm의 혁대와 일본도와 비슷한 너비 3.5cm, 길이 85cm의 철제로 만든 도검(刀劍), 6개의 화살 등이 남아 있다.

종 목	중요민속문화재 제119호
명 칭	병와 이형상 유품 (瓶窩 李衡祥 遺品)
분 류	유물/생활공예
수량/면적	일괄(59점)
지정(등록)일	1982.08.07
소 재 지	경북 영천시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전주이씨병와공파종중
관리자(관리단체)	전주이씨병와공파종중

병와 이형상(1653~1733)은 효령대군의 10대손으로 숙종 6년(1680)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호조좌랑 등을 역임하고 덕유산에 도적이 많아지자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추천되어 금산군수로 부임, 도적을 평정하고 선정을 베풀었다. 영조 3년(1727) 호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영천에 흥연정을 세워 학문에 열중하였다. 이듬해 가선대부가 되고 후에 한성부윤에 이르렀다.

병와 이형상 유품에는 인장 23점, 호패 9점, 거문고 1점, 화살 9점, 갓끈 5점, 관자 4점, 홀 1점, 옥피리 1점, 칼 2점, 표주박 2점, 버루 1점, 추구통 1점 등이 있다.

□ 시도유형문화재

종 목	유형문화재 제160호
명 칭	윤관 초상 (尹瓘 肖像)
분 류	유물/일반회화/인물화/초상화
수량/면적	2폭

지정(등록)일	1987.03.31
소 재 지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55 가동 209호
관리자(관리단체)	윤춘근

고려 때 명장인 문숙공 윤관(?~1111)의 초상화로, 문·무복 차림을 한 2폭의 전신상이다. 윤관은 고려 문종 때 과거에 합격하여 별무반이라는 특수군대를 창설하고, 탈환한 곳에 9성을 세우는 등 고려가 여진을 정벌하는 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문인복 차림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잡고 있는 좌상이고, 무관의 전투복을 차려입은 모습은 활을 들고 서 있는 전신상이다.

종 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38호
명 칭	서충대친림연회도 (瑞蔥臺親臨宴會圖)
분 류	유물/일반회화/기록화/계회도
수량/면적	1폭
지정(등록)일	1988.09.23
소 재 지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내죽리)
관리자(관리단체)	소수서원
상 세 문 의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관광과 054-639-6063

조선 명종 15년(1560) 9월 19일 왕이 문과와 무과의 여러 신하들을 불러 창덕궁 서충대에 서 연회를 즐기는 광경을 묘사한 그림이다.

이 연회에 대하여는『명조실록』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연회에서 왕은 손수 시의 제목을 내리니 이에 문신들은 시를 짓고, 무신들은 활을 쏘아 그 기량을 보였으며, 왕은 술과 안주를 내리고 또 성적에 따라 호랑이 가죽, 말 등의 상을 주었다고 한다. 이튿날 신하들이 다시 모여 연회 장면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조에 맡겨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는데, 4년 뒤인 명종 19년(1564)에 이 그림이 완성되었다.

종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09호
명 칭	괴원성회록 (槐園盛會錄)
분 류	유물 / 일반회화/ 기록화/ 계회도
수량/면적	1첩

지정(등록)일	2010.06.17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16 고려대 중앙도서관
시 대	조선시대
상 세 문 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02-2241-2652

<괴원성회록>은 집안의 족친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친지들의 아회 광경을 그리고 아회에서 수창된 시부(詩賦)를 합록(合錄)한 시화첩이다.

김재중은 서원아집(西園雅集)의 고사를 따라 화공에게 명하여 모임의 모습을 그리게 하고 참석자의 차운시를 모아 한권의 책을 만들었다. 모임의 시기는 을묘년 여름이었으며 화첩도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김재중과 김재공의 생년 및 그림의 양식으로 보아 을묘년은 1855년(철종 6)으로 추정된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능화자(能畵者) 임치회(林致晦)'인데 지방에서 활동한 직업화가로 생각된다.

그림은 활을 쓰고 바둑을 두거나 담소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을 '之'자형으로 포치된 근경·중경·원경의 구도 안에 묘사하였다. 경사진 지세, 부드럽고 둥근 산과 언덕, 피마준과 호초점, 화보풍 수지법의 나무들, 엷은 담채 등 전형적인 남종화풍의 그림이다. 산과 나무, 인물과 가옥 사이의 비례는 맞지 않으나 화면 우측의 누각, 괴원의 경사진 지세, 주변에 밀집된 가옥의 포치는 괴원의 실제 주변 경관을 담으려고 한 의도로 보인다. 인물들의 모습은 간략하게 묘사되었지만 김재공이 쓴 괴원성회도기(槐園盛會圖記)에 의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다.

□ 시도무형문화재

종 목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제1호
명 칭	전의 궁인 (全義 弓人)
분 류	무형유산/공예기술/목칠공예/목공예
지정(등록)일	2012.12.31
소 재 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방리 116-2번지

궁시장이란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능과 그 기능을 지닌 사람을 일컫는 말로 활을 만드는 사람을 궁장,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시장이라 칭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9월 13일 김장환을 궁시장 중요 무형문화재 47호로 지정하여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주장응은 고 김장환과의 인연으로 그의 문하에 들어가서 40여년 동안 각궁제작에만 전념했고, 현재는 두 명의 수제자를 키워 각각 경기도 안산과 광주에서 각궁을 제작하고 있다.

보유구분	이름	성별	기예능	인정일	비고
보유자	주장응	남	활제작	20121231	고 김장환 궁시장 사사

종 목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6호
명 칭	예천궁장 (醴泉弓匠)
지정(등록)일	1980.12.30
소 재 지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60-3번지
상 세 문 의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관광과 054-650-6902

궁장이란 활을 만드는 기술 또는 사람을 말한다. 활은 삼국시대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었으며 옛날 중국에서는 우리 민족이 '활을 잘 만들고 잘 쏘는 동쪽의 민족'이라 해서 '동이(東夷)'라고 부를 만큼 활제작에 있어서 탁월한 기술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임진왜란(1592) 이후 조총이 수입되기 전까지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운동용으로 국궁인 각궁(角弓)이 보편화 되었다. 오늘날 서양에서 들어온 양궁(洋弓)과 구별하기 위해 국궁(國弓)이라고 부르고 있다.

제작과정으로는 우선 대나무 조각·뽕나무 조각·물소 뿔 등을 다듬는다. 대나무와 뽕나무는 불에 쪼여 구부린 다음 연결시킨다. 대나무 끝을 V자형으로 도려내고 뽕나무 끝은 V자형 반대모양으로 엇물리게 하여 풀칠해서 끼운다. 물소 뿔을 표면에 붙이고 소힘줄을 활에 올리는 '심놓이'작업을 한다. 이와 같은 과정 후에 건조과정(점화관리)을 약 1개월간 거친다. 건조과정이 끝나면 고자깎기를 한다. 고자깎기가 끝나면 활 사용자에게 맞추어 활의 강약을 조절한다. 제작도구로는 톱·대패·나무망치·줄칼·송곳·집게·나무빗·쇠빗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활은 쇠뿔과 쇠심줄을 사용한 각궁이란 점이 특징이며 예천은 우리나라 활의 대표적 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예천궁장은 전통공예기술로서 미적 감각이 뛰어나며 기술이 정교하여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경북 예천에 살고 있는 권영학씨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종 목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7호
명 칭	장안편사놀이 (長安便射놀이)
분 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무예/ 무기술
지정(등록)일	2000.04.20
시 대	조선시대
상 세 문 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02-2148-1823

활쏘기는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과녁을 맞추는 전통무술 또는 경기이다. 활쏘기는 고대부터 주요한 무술의 하나로 사용되었으며,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기품 있는 운동 또는 놀이로 전승되었다.

편사놀이는 편을 짜서 활쏘기 경기를 하는 놀이로 터편사·골편사·장안편사·사랑편사·한량편사

등이 있었으며, 각각 갑을병 3등급으로 나누어 경기를 했다. 이 중 장안편사놀이는 도성 안 이 한편이 되고 변두리 몇 개의 활터가 한편이 되어 경기를 하는 것이다.

활쏘기를 하는 장소를 활터, 사장 또는 살터라고도 하며 활터에는 정자가 있는데 이를 사정(射亭)이라 한다. 조선 전기에는 관청에서 사정을 관리하였으나 임진왜란(1592) 이후 선조(재위 1576~1608)는 경복궁 동쪽에 오운정(五雲亭)을 지어 일반인에게 개방하니 이것이 민간 사정의 시작이었다. 이후 지방에도 많은 사정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성행하게 되었으며, 한말에는 도성 안쪽에 다섯군데의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서촌 오사정(西村 五射亭)이라 하였다.

현재 장안편사놀이가 행해지고 있는 황학정(黃鶴亭)은 1899년 고종(재위 1863~1907)의 명으로 지어진 것으로, 처음에는 경희궁 북쪽에 있었으나 1922년에 서촌 오사정 중의 하나였던 옛 등과정(登科亭)자리로 옮겨지었다.

서촌 오사정이 모두 없어진 오늘날에도 황학정에서는 때때로 장안편사놀이가 거행되어 많은 궁사들이 모이고 장안을 대표하는 활터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옛 무인들의 기개를 보여주고 있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위 문화재에 대한 상세문의는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02-2171-2587)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 목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
명 칭	광양궁시장 (光陽弓矢匠)
분 류	무형유산 공예기술
지정(등록)일	1986.09.29
소 재 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285번지
상 세 문 의	전라남도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 061-797-2224

궁시장이란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활을 만드는 사람을 궁장(弓匠)·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시장(矢匠)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우리 민족이 활을 잘 만들고 잘 쏘는 동쪽의 민족이라해서 동이(東夷)라고 부를 만큼 활제작에 있어서 탁월한 기술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국궁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조선 전기부터 과거시험 무과과목에 궁술이 있었다. 임진왜란(1592) 이후 조총이 수입되기 전까지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서양에서 들어온 양궁(洋弓)과 구별하기 위해 국궁(國弓)이라고 부르고 있다.

활의 제작과정으로는 우선 대나무조각·뽕나무조각·물소 뿔 등을 다듬는데 대나무와 뽕나무는 불에 쪄서 구부린 다음 연결시킨다. 대나무 끝을 V자형으로 도려내고 뽕나무 끝은 V자형 반대모양으로 엮물리게 하고 풀칠하여 끼운다. 물소 뿔을 표면에 붙이고 소힘줄을 활에 올리는 심층이작업을 한다. 이와 같은 과정 후에 건조과정(정화관리) 약 1개월간 거친다. 건조과정이 끝나면 고자깎기를 한다. 고자깎기가 끝나면 활 사용자의 체력에 맞추어 활의 강약을 조절한다. 우리나라의 활은 쇠뿔과 쇠심줄을 사용한 각궁이란 점이 특징이며 제작도구는 톱·대패·나무망치·줄칼·송곳·집게·나무뿔·쇠뿔 등이 쓰인다.

화살의 제작과정은 몸체로 쓸 대나무를 골라 충분히 건조시킨 후 곧게 잡는다. 활 줄을 끼울 오닛과 깃을 다는 작업을 한다. 재료는 대나무·싸리나무·뽕나무·민어부레풀이며 종류로는 목전·철전·예전·세전·유엽전 등이 있는데 현재 사용되는 화살은 대나무로 만드는 유엽전이다.

광양 궁시장은 전통적인 공예기술로서 기술을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전남 광양시에 살고 있는 기능보유자 김기씨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종 목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3호
명 칭	궁장 (弓匠)
분 류	무형유산 / 공예기술/
지정(등록)일	2000.04.20
상 세 문 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공보과 02-2289-1150

궁(弓)은 활을 말하는 것으로써, 선사시대부터 전투용으로 사용되던 활을 전통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궁장이라고 한다.

선사시대에 사용되었던 돌로 된 화살촉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발견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삼국 이전의 부족국가였던 부여, 옥저, 마한, 진한, 변한 등에서 활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활을 만드는데는 약 80일이 걸리며 재료로는 느티나무, 뽕나무, 버드나무와 소뿔을 쓰는데 시기와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다.

궁장은 전통적인 공예기술로서 기능보유자로 권무석씨가 전통 활의 명산지인 경북 예천에서 대를 이어 활을 제작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 시도기념물

종 목	경상남도 기념물 제144호
명 칭	사천읍성 (泗川邑城)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성/ 성곽
수량/면적	27,943㎡
지정(등록)일	1994.09.26
소 재 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관리자(관리단체)	사천시
상 세 문 의	경상남도 사천시 문화관광과 055-830-4226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일대에 있는 사천읍성은 돌과 흙으로 쌓은 성곽으로, 약 1.5km의 둘레 중 현재는 3개 부근 약 300m의 성곽이 남아있다.

이 성은 세종 24년(1442)에 병조참판 신인손이 왕명에 의해 쌓았다고 전해지며, 이로부터 4년 뒤 관청을 짓고 읍을 옮겼다고 한다. 선조 32년(1598) 정기룡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과 명나라 원군이 연합하여 이 성을 탈환하기 위해 혈전을 벌여 왜적을 몰아냈다 한다.

현재 성 안에는 충혼탑, 수양루, 활을 쏘는 관덕정이 있는 산성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다.

종 목	충청남도 기념물 제166호
명 칭	천안 김시민장군 유허지 (天安 金時敏將軍 遺墟址)
분 류	유적건조물 / 인물사건/ 인물기념/ 순절지
수량/면적	1,765m ²
지정(등록)일	2004.04.10
소 재 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460-1번지 외 2필지
관리자(관리단체)	안동김씨학압중중, 백전마을
상 세 문 의	충청남도 천안시 문화관광담당관실 041-521-2034

임진왜란시 3대 대첩 중의 하나인 '진주성대첩'의 명장인 김시민 장군의 생가지와 사사처(射蛇處)인 유허지이다.

사사처는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 9세의 어린 나이에 활을 쏘아 이무기를 잡았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장소이며, 충무공의 상무정신과 용맹함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가 마을 입구에 있다.

『구암집』 등의 사료에 의하면 목천면 백촌리(현 병천면 가전리)에서 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장군이 9세 때에 동네 앞 백전천의 이무기를 잡기 위해 활로 쏘았다는 사사처가 보존·관리되고 있다.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역사의 교육장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

종 목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9-1호
명 칭	곤을동환해장성 (곤을동環海長城)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성/ 성곽
수량/면적	140M
지정(등록)일	1998.01.07
소 재 지	제주 제주시 화북1동 4373번지 외 4필지 선
시 대	고려시대
관리자(관리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 세 문 의	제주도 제주시 문화예술과 064-728-2731~5

배를 타고 들어오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해안선을 따라가며 성을 쌓았는데 이를 환해장성이라 한다.

현재 남아 있는 곤을동 환해장성의 성벽 길이는 약 140m이다. 성벽은 바깥쪽으로 배가 부른 형태로, 성 위에는 총이나 활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여장이 있다.

□ 시도문화재자료

종 목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호
명 칭	어사대 (御射臺)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궁궐·관아/ 관아
수량/면적	1기 / 1.3m ²
지정(등록)일	1990.11.09
소 재 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사대로 20 (계산동)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리자(관리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
상 세 문 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공보실 032-450-5874

조선시대 정조(재위 1776~1800)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에 참배하러 가는 도중에 잠시 들러 휴식하던 곳으로 욕은지(浴恩池)와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원래 욕은지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고종 24년(1887)에 수리하면서 이곳으로 옮겨 왔다고 한다. 정조는 활쏘기를 즐겨 신하들에게도 활을 쏘게 하였다는데, 어사대에서 활을 쏘고 욕은지에서 손을 씻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종 목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6호
명 칭	천양정 (穿楊亭)
분 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조경건축/ 누정
수량/면적	1동
지정(등록)일	1984.04.01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196번지
관리자(관리단체)	김래진
상 세 문 의	전라북도 전주시 전통문화시설과 063-281-2168

이 정자는 조선시대에 한량들이 활쏘기 연습을 위해 활터에 세운 것이다. 천양정은 숙종 38년(1712)에 다가천 서쪽 냇가에 세웠으나 얼마 후 홍수로 떠내려 가버렸다. 그 뒤 경종 2년(1722)에 다가산 밑에 다가정(多佳亭)이란 정자를 짓고 활터로 사용했다. 순조 30년(1830)에는 이곳에 또 다른 정자를 세우고 옛 이름을 따서 천양정이라 했다. 이후 북향인 다가정은 젊은 한량들 전용으로, 아늑한 골짜기에 남향으로 자리잡은 천양정은 주로 노인층이 사용하게 되었다. 다가정·천양정의 활쏘기 모임은 군자정의 모임과 함께, 일제식민지 때 강압에 의해 하나로 통폐합되었다. 「천양(穿楊)」이란 뜻은 버들잎을 화살로 꿰뚫는다는 것으로, 신묘한 활 솜씨로 이름 높았던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종 목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59호
명 칭	백호정 (白虎亭)
분 류	유물
수량/면적	118.3㎡
지정(등록)일	2014.06.26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27-12
소유자(소유단체)	사유
상 세 문 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02-2148-1823

인왕산 다섯 활 터 가운데 하나로 역사적 유래가 깊은 백호정을 상징하는 각자바위로, 문헌상 숙종조의 명필인 엄한봉이 쓴 것으로 전해진다. 필획이 웅글차고 결구가 치밀한 매우 뛰어나며, 조선 중기 이후의 대자(大字) 글씨에서 느낄 수 있는 기식을 가진 수작이다.

11) 우리나라의 양궁 발전의 개요⁷²⁾

- 1959년 이후 체육교사 석봉근의 양궁 보급
- 1962년 미군 M. E. Elotte 중령, 장충단공원 석호정에서 최초 양궁 시범
- 1963년 서울 성동중학교 궁도부 창설(석봉근)

72) 대한양궁협회, <https://www.archer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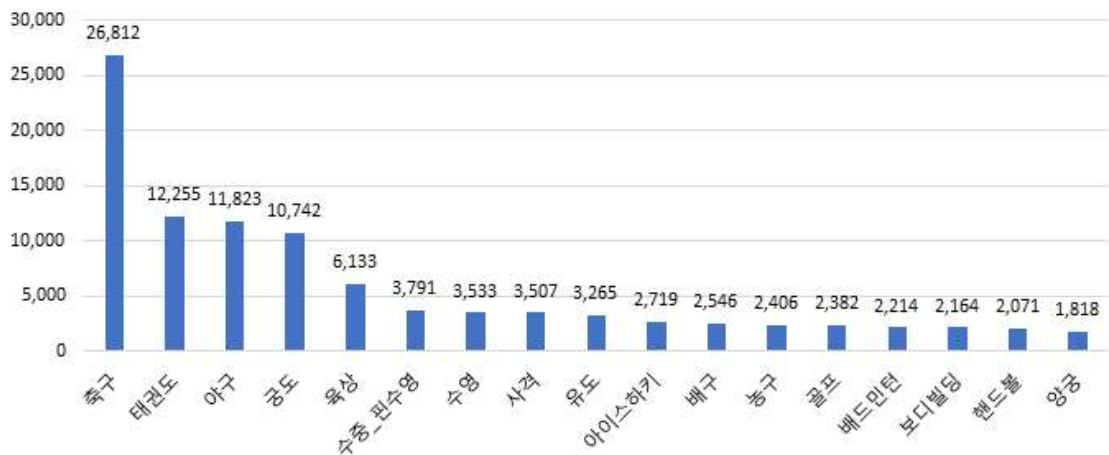
- 1963년부터 국궁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양궁경기 실시
- 1963년 7월 27일 국제양궁연맹에 정회원국으로 가입
- 1963년 9월 제11회 서울시 체육대회 경기종목(20m) 채택
- 1963년 10월 제6회 전국활쏘기대회 경기종목(30m) 채택
- 1966년 최초로 양궁장 개장 및 양궁강습회 개최
- 1966년 10월 전국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 창설
- 1967년 11월 전국남녀양궁종합선수권대회 창설
- 1970년 전국여자고등학교 양궁 시범대회 개최
- 1972년 10월 제53회 전국체육대회 양궁 정식종목 채택
- 1974년 한·일 친선 양궁경기
- 1974년 제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 정식종목 채택
- 1978년 제8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양궁 정식종목 채택 및 국제대회 처음 출전(김진호 금메달과 단체 준우승)
- 1978년 아시아양궁연맹(AAF, 현 WAA) 창립 및 가입
- 197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
- 1983년 대한궁도협회에서 분리하여 대한양궁협회 설립
- 1983년 양궁 최초 상비군 결성
- 1983년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창설
- 1984년 올림픽경기대회(제23회 LA) 최초 참가, 서향순 금메달
- 2009년 울산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

12) 우리나라의 양궁장(18개소)

- 태릉선수촌양궁장(서울시 노원구): 국가대표 훈련장(비개방)
- 서울시양궁장(경기도 하남시): 시내대회장/훈련장(조건부 개방)
- 계양아시아드양궁장(인천광역시 계양구): 국내/국제대회장(조건부 개방)
- 강서양궁장(부산광역시 강서구): 시내대회장/훈련장 (개방)
- 앞산양궁장(대구광역시 남구): 시내대회장/훈련장(조건부 개방)
- 상리양궁장(대구광역시 서구): 시내대회장/훈련장(비개방)
- 염주양궁장(서향순양궁장, 광주광역시 서구): 시내/국내대회장(조건부 개방), 체험장 운영
- 광주국제양궁장(광주광역시 남구): 국제/국내대회장(조건부 개방), 체험장 운영
- 문수국제양궁장(울산광역시 남구): 국제/국내대회장(조건부 개방), 체험장 운영
- 월평양궁장(대전광역시 서구): 훈련장(조건부 개방)
- 수원시양궁장(경기도 수원시)
- 코오롱양궁장(경기도 안산시): 꿈나무 양궁교실 운영
- 여주시청양궁장(경기도 여주시)
- 원주양궁장(강원도 원주시): 훈련장 별도 운영
- 김수녕양궁장(충청북도 청주시): 훈련장 별도 운영
- 진천선수촌양궁장(충청북도 진천군): 2017년 완공
- 예천진호국제양궁장(경상북도 예천군): 국제/국내대회장(조건부 개방), 체험장 운영
- 팔마양궁장(전라남도 순천시)

13) 활 체육 인구

- 등록된 궁도 선수는 2016년 11월 현재 10,742명으로 60개 종목 중 4위이고 양궁은 1,818명으로 17위로 나타남



<대한체육회 등록선수>

- 등록된 궁도 동호인은 2016년 11월 현재 833개 클럽에 33,048명이고 전체 131개 종목 중 31위이고 양궁은 43개 클럽에 676명으로 109위로 나타남

14) 기타 활문화 콘텐츠

- (사)대한궁술협회: 국궁문화의 대중화와 국제교류 위해 2001년 설립된 체육법인
- 국궁신문: 2000년에 창간된 인터넷 전용 매체로 국궁에 관련된 정보와 소식을 전함⁷³⁾
- 궁시공방: 활제작 인터넷 카페로 2006년 설립되었고 현 회원은 34,366명으로 우리나라 궁시의 제작정보와 제작강좌 등을 공유함⁷⁴⁾

73) 국궁신문, <http://www.archerynews.net>

74) 궁시공방, <http://cafe.naver.com/thecrossbow>

- 온각지궁사회: 전통 활쏘기를 계승을 표방한 인터넷 카페로 2000년 설립되었고 80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궁관련 정보를 교류를 함⁷⁵⁾
- 국궁문화연구회: 국궁문화의 연구와 교류를 위한 인터넷 카페로 2013년 설립되었고 21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몽골, 중국 등과 교류를 함
- 현충원 수양벚나무: 병자호란 이후 효종이 북벌계획을 세우면서 활을 만드는데 재료로 만들기 위해 많이 심은 나무
- 신라 태종무열왕 7년(660) 황산전투에 참전한 관창(官昌)을 묘사하면서 “16세에 화랑이 된 관창은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자(能騎馬彎弓)였는데, 어느 사람이 국왕에게 천거해 백제 공격에 참전시켰다”고 기록함
- 신라 문무왕 원년(661) 평양 부근에 접근한 당군에게 군량을 보급하는 작전에 투입된 열기(裂起)와 구근(仇近) 등 15인의 특수임무부대가 적진을 뚫고 전진할 때, 그들은 “활과 칼을 가지고 말에 탄 채 달려갔는데(持弓劍走馬), 고구려군이 바라만 볼 뿐 이를 막지 못했다”라고 기록함
- 신라 문무왕 15년(675) 당의 조종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말갈족이 신라의 북쪽 아달성을 공격했다. 성 안으로 적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소나(素那)는 적을 맞아 싸웠는데, 적이 소나의 위용을 두려워해 접근하지 못하고 활만 쏘았다. 소나도 이에 화살을 쏘았는데, “마치 벌 떼가 날아가는 것 같이 소나가 쏜 화살이 날아갔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다 전사했는데, 그의 몸에 화살이 박힌 것이 마치 고슴도치와 같았다”라고 표현함
- 우리 역사에서 가장 통쾌한 기마전의 승리는 고려 말 우왕 5년(1379) 남원 운봉의 황산대첩 기록에 나타난다. 하삼도(충청·전라·경상)를 침범한 왜구들은 운봉에 진을 치고 천인공노할 살육과 분탕질을 일삼았다. 당시 왜장은 16세의 어린 아지발도(阿只拔都·아기바투)로 신출귀몰하는 병법과 둔갑술로 고려군을 유린했다. 하삼도 도순찰사로 통두란(1331~1402) 장군과 함께 고려군 대열 맨 앞에서 적진을 살피던 이성계(1335~1408)가 군령을 내렸다.

75) 온각지궁사회, <http://www.onkagzy.com>

“통 장군, 내가 저 녀석의 투구꼭지를 맞춰 벗겨 버릴 테니 장군은 아지발도의 목을 관통시키도록 하시오.”

군령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이성계의 백우전(白羽箭)이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날았다. 아지발도의 투구가 벗겨지며 드러난 목젖에 통두란의 신궁이 여지없이 명중했고 기고만장하던 아지발도는 선혈을 쏟으며 즉사했다. 장수를 잃은 왜구들은 순식간에 지리멸렬해 괴멸되고 말았다. 이후 왜구에 의한 백성들의 피해는 현저히 줄어들었다.⁷⁶⁾

- 한국전통무예연구소: <http://www.muYe24ki.com/>
- 무형문화재 47호 보유자로 지정된 인물은 활에서는 김박영(74) 공장, 화살에서는 유영기(70) 시장이 있다. 부천 활박물관 명예관장을 맡고 있는 김박영 공장은 예천 계보로 입문, 중간에 부천 활의 대표격인 김장환의 문하생으로 들어간 인물이다. 김씨는 한국 공장의 양대 산맥인 예천 활과 부천 활의 전통을 모두 계승한 인물⁷⁷⁾
- 한국무예사료총서: 삼국시대 이래 일제 강점기까지 우리나라 전통무예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13권으로 정리(국립민속박물관 발간)
- 국립민속박물관 발간: 「무예문헌자료집성」, 「한국 무예의 역사 문화적 조명」, 「한국의 무예 실기 해제」, 「무술-중국을 보는 또 하나의 창」, 「전국 무예단체 조사현황 보고서」, 「활터조사보고서: 전국의 활터, 덕유정」
- 김홍도의 행려풍속도 8폭 병풍의 ‘가두매점’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활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궁의 고자(평고자 형태)의 형태와는 다른 선고자 활로 군용(軍用)으로 추정됨(가두매점의 원본은 프랑스의 국립기예박물관에서 소장) 그밖에도 여러 풍속화에서 활의 모양이나 사법을 확인할 수 있음⁷⁸⁾

76) 국방일보, 2013.08.08.

77) 국방일보, 2006.10.18.

78) 국궁신문, 2012.12.09.



<김홍도 풍속화 '가두매점'>

아래 오른쪽에 삼지를 감은 활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임, 확대 그림에서 고자의 모양도 확인할 수 있음(자료: 국궁신문, 2012.12.09)

2. 세계의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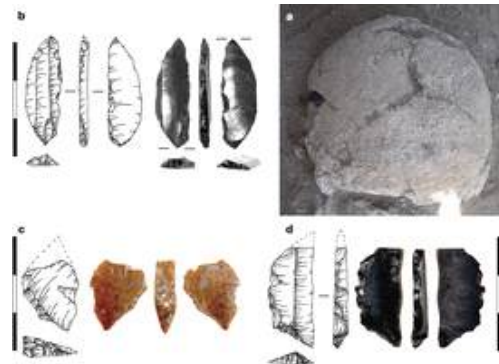
1) 활의 기원과 변천

□ 활의 기원

- 세계의 역사에서 초기 활은 최소 전, 중기 구석기시대(BC 7만~1만년)에서 사용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됨⁷⁹⁾
-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구석기시대 동굴벽화(프랑스 라스코, Lascaux, 동굴벽화 등)에서 활이 발견되고 구석기 유물에서 화살촉 등의 유물도 발견됨
- Nataruk(Kenya의 Turkana 호수의 늪지대)에서 발견된 흑요석 화살촉이 박힌 천 년 이전의 두개골 발견⁸⁰⁾



<돌화살촉이 박힌 Nataruk의 두개골>
자료: The New York Times(2016. 1. 23). *Is Warfare in Our Bones?*



<Nataruk의 돌화살촉 외>
자료: Lahr *et al.*(2016). 「Figure 3: Lithics found in direct association with human remains at Nataruk」 in *Inter-group violence among early Holocene hunter-gatherers of West Turkana, Kenya*

- 마지막 빙하기 이 후(BC 1만년)호주대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륙에서 활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79) E. Wayman은 남아프리카 Pinnacle Point 동굴에서 발견된 작은 돌화살촉을 근거로 71,000년 전에 활과 화살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함(Early Bow and Arrows Offer Insight Into Origins of Human Intellect, 2012, 11. 07, <http://www.smithsonianmag.com>)

80) M. Mirazón Lahr, F. Rivera, R. K. Power, A. Mounier, B. Copsey, F. Crivellaro, J. E. Edung, J. M. Maillo Fernandez, C. Kiarie, J. Lawrence, A. Leakey, E. Mbua, H. Miller, A. Muigai, D. M. Mukhongo, A. Van Baelen, R. Wood, J.-L. Schwenninger, R. Grün, H. Achyuthan, A. Wilshaw & R. A. Foley(2016). Inter-group violence among early Holocene hunter-gatherers of West Turkana, Kenya, *Nature* 529 (7586): 394-398. doi:10.1038/nature16477.

○ 실물로 전해지는 오래된 활⁸¹⁾

- 독일의 Hamburg 근교 Stellmoor에서 온전하게 발견된 활로 1만2천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됨
- 독일의 Mannheim에서 발견된 소나무 활의 조각(40cm, 110cm 추정)으로 11,700년 전의 것으로 추정
- 덴마크의 Holmegård(Holmegaard)에서 발견된 BC 7천년 이전인 중석기시대의 느릅나무 재질의 환목궁(丸木弓, self bow) 5개가 발견되었고 청동기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전체 길이 1.5m)⁸²⁾



<Holmegaard Bow(덴마크 국립박물관 소장)>

자료: <http://en.natmus.dk>

- 활과 화살은 역사 이전시대부터 화약류가 널리 보급된 16세기 무렵까지 수렵과 전투의 주요한 도구로 사용됨

□ 세계 여러 지역의 활

- 이집트의 활은 약 5천년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테베의 무덤의 벽화에는 활쏘기를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함⁸³⁾
- 미주대륙에는 BC 6천년경 알라스카를 통해 활이 전해진 것으로 추정됨⁸⁴⁾
- 중국의 활
 - 창시자로 복희(伏羲)나 예(羿) 등 여러 이름이 거명되고, 만궁의 제작자는 황제(黃帝, BC 74~49) 혹은 그의 신하 휘(揮)가 제작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짐⁸⁵⁾

81) Christoph Baumer(1012). *The History of Central Asia: The Age of the Steppe Warriors*, I.B.Tauris, pp. 35-39.

82) Comstock, P (1992). *Ancient European Bows, The Traditional Bowyers Bible Volume 2*. The Lyons Press, ISBN 1-58574-086-1, pp. 87-88

83) Wilson, J.(1956). *The Culture of Ancient Egyp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86.

84) <http://en.natmus.dk>; Blitz, J. H.(1988). Adoption of the Bow in Prehistoric North America, *North American Archaeologist*, 9(2).

85) 시노다 고이치(2009). 「무기와 방어구(중국편)」, 신동기 역, 도서출판 들녘

- 당나라 병력은 활로 무장하였고 이때 궁술 전문서적이 나오고 청나라 말기까지 주요 무기로 사용됨⁸⁶⁾
- 고대 중국의 육예(六藝)의 하나로 활쏘기를 가르쳤다고 함(상나라에서 시작하여 주나라시기에 정착됨)⁸⁷⁾

○ 최초의 복합궁은 BC 2,350년경 메소포타미아 최초 통일국가를 건설한 아카드왕국의 4대왕 나람신(Naram-Sin·기원전 2254~2218)이 단궁⁸⁸⁾을 개량하여 만들었다고 전해짐



<훈족의 활>

자료: 국방일보(2013. 01. 05). 역사 속 신무기<44>훈족의 활, 계동혁

○ 영국의 웨일즈에서 유래한 활로 백년전쟁을 전 후한 AD 13~16세기에 영국에서 널리 사용된 롱보우(long bow)는 주로 주목(朱木)으로 만들어졌으며 전체길이가 150~180cm 이상이고 무게 0.6~0.8kg인 전투용 활⁸⁹⁾

○ 아시리아는 BC 13C 인류 최초 기병부대인 궁기병과 창기병을 운영함⁹⁰⁾

86) 상계서

87) 중국전통활연맹, <http://www.chinaarchery.org>; 중국 고대의 육예 교육은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를 의미함(이경자(2010). 중국 고대의 육예(六藝)교육, 『윤리교육연구』 22, 157-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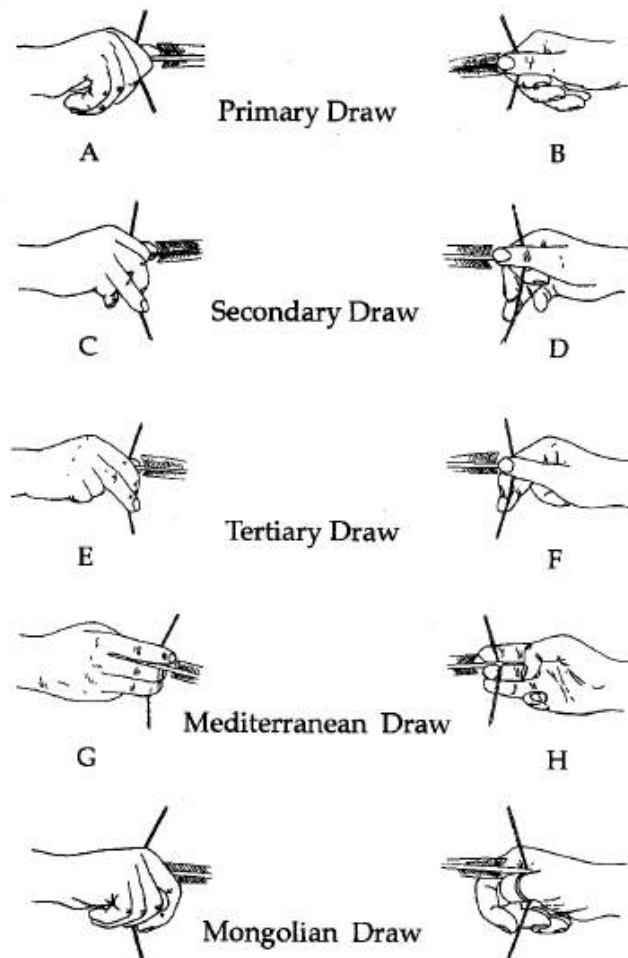
88) 활의 전체 길이가 1m이하이고 무게가 1kg(대부분 0.5~0.8kg)을 넘지 않는 활(계동혁, 2009, 『역사를 바꾼 신무기』, 플래닛미디어)

89) 유사한 활은 같은 시기 노르만이나 중국, 기타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길이의 활을 찾아볼 수 있음. 강철로 된 화살의 길이는 75~100cm, 무게는 0.5~0.7kg 미만을 사용하였고 10초 이내의 속사가 가능함(국방일보, 2008.02.25)

90) 국방일보, 2007.03.19

□ 활의 이용 배경⁹¹⁾

- 창에 비해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고 은폐가 용이함
- 과거 무기에 비해 정확도가 높음
- 창에 비해 가벼워 동시에 많은 화살의 운반이 용이함
- 속도가 빠르고 사용이 간편하여 어떤 지형이나 자세에서도 공격이 용이함
(은폐, 엄폐가 가능해짐)



<지역별 사법>

자료 : Wachsmann, S.(2009). On Drawing the Bow, In *Eretz-Israel 29 (In Honor of Ephraim Stern)*. J. Aviram, A. Ben-Tor, I. Eph'al, S. Gitin and R. Reich, ed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38-257.

91) Christoph Baumer(2012). 상계서

□ 세계 지역별 사법⁹²⁾

- 핀치형(Pinch Style): 화살을 엄지와 인지로 잡고 쏘는 방식, 미주대륙의 지역 토착민들이 사용
- 지중해형(Mediterranean Style): 인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손가락으로 당기는 방식, 유럽이나 지중해 인근지역에서 주로 사용
- 몽고형(Mongolian Style): 엄지와 인지의 아귀로 화살 끝을 잡고 엄지로만 당기는 방법, 몽고계 인종들이 주로 사용

2) 세계 활의 종류와 구조

□ 활의 구조적 기능

- 활의 구조적 기능을 단순화 하면 탄성과 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음
- 활의 시위를 당기면 내재화된 힘은 활대에 옮겨지고 시위를 놓는 순간 활대가 복원되는 힘에 의해 화살이 발사됨
- 원리적으로는 활의 크기를 늘리거나 시위를 최대한 많이 당겨 복원시킬 수 있으면 화살이 발사되는 높은 힘을 확보할 수 있음
- 따라서 예로부터 활의 탄성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재료의 선택과 크기의 변형 등 새로운 제작 방법을 시도하게 됨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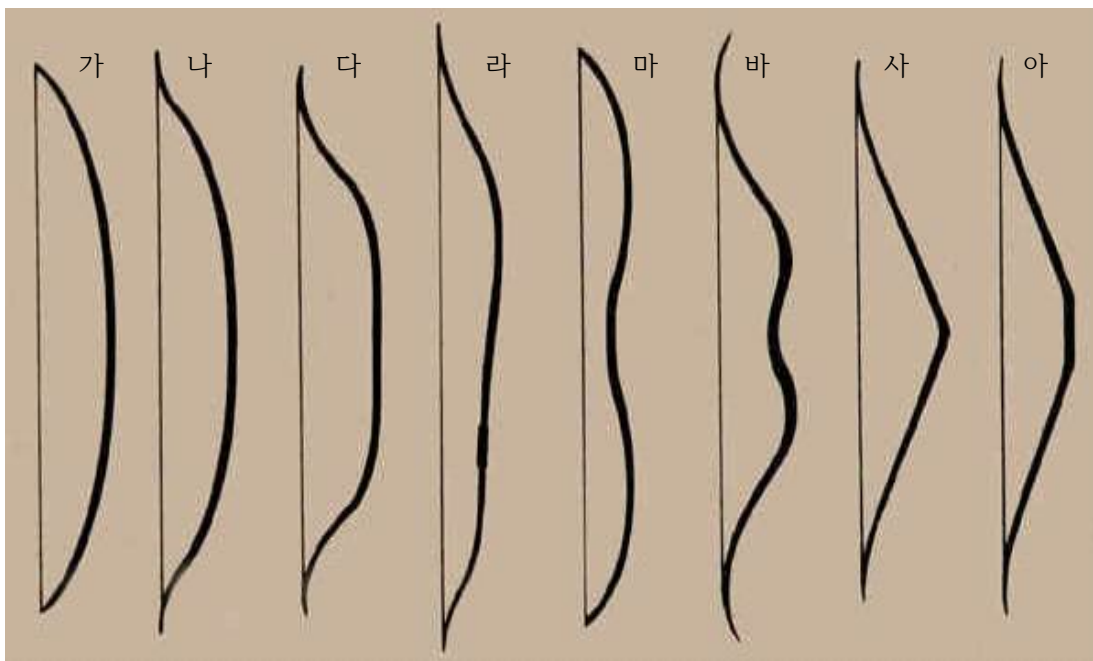
□ 활의 모양

- 전통활의 형태: 활대의 구부림 형태와 활대 끝(고자)의 모양으로 구분함
 - 가. 곧은 활
 - 나. 뿔형 곧은 활

92) 미국 인류학자 E. S. Morse의 분류 (김정행, 1997, 「무도론」, 297, 대한미디어; <https://www.archery.or.kr>)

93) 현대에는 fiberglass and carbon-fiber 조합을 사용하고 있음

- 다. 두 번 구부림 활
- 라. 비대칭 활
- 마. 양 끝 구부림 활
- 바. 네 번 구부림 활
- 사. 삼각형 활
- 아. 손잡이 삼각형 활



자료: Lithuanian Archery Association, <http://www.strele.lt>

□ 전통 활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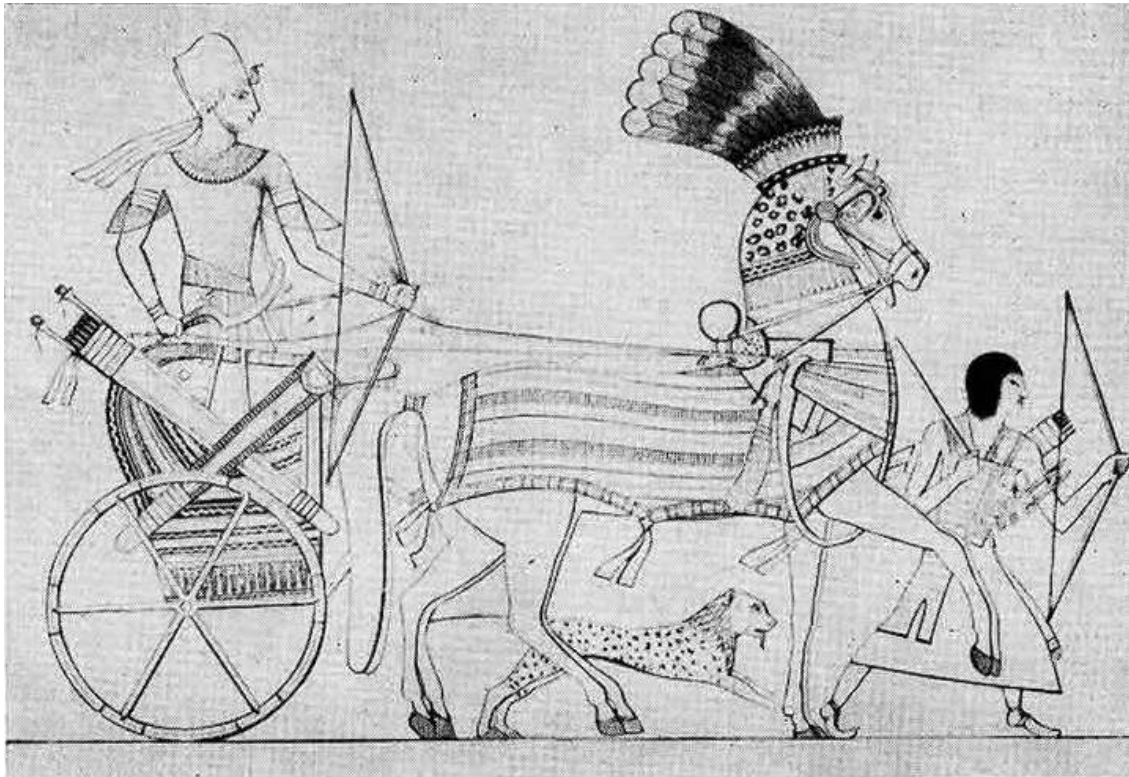
○ 초기의 활

- 이집트 활: 이집트 전차에는 합성궁(Composite Bow, 짐승의 뿔, 힘줄, 나무 등을 혼합해 만든 활)을 든 병사를 태웠음⁹⁴⁾
- 영국 롱보우(longbow): 주목으로 만들어진 중세의 활, 길이는 150~180cm, 무게는 0.6~0.8kg 정도, 화살의 길이는 75~100cm 정도, 무게는 0.5~0.7kg 미만⁹⁵⁾
- 덴마크 활(Holmegaard bow)

94) 김용만(2010). 「세상을 바꾼 수레」, 도서출판 다룬.

95) 남혜승(2011). 「무기와 방어구(서양편)」, 도서출판 들녘.

- 북미 원주민 단궁, 장궁(2m)
- 아마존 원주민 장궁
- 인도 철궁(Naraca)
- 피그미 활



<전차를 타고 있는 람세스 3세 왕>

이집트 사원의 조소, 왕과 궁수가 복합궁을 들고 있음

자료: Robinson E.(1951). The Egyptian composite bow, *Archery* April,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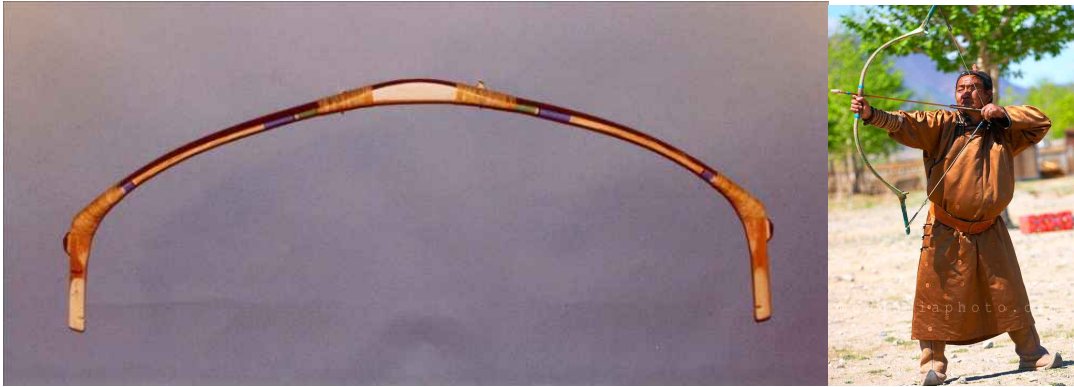


<투탕카멘(Tutankhamun)의 복합궁>

자료: McLeod, W.(1970). Composite Bows from the Tomb of Tut'ankhaman. Oxford: Griffith.

○ 복합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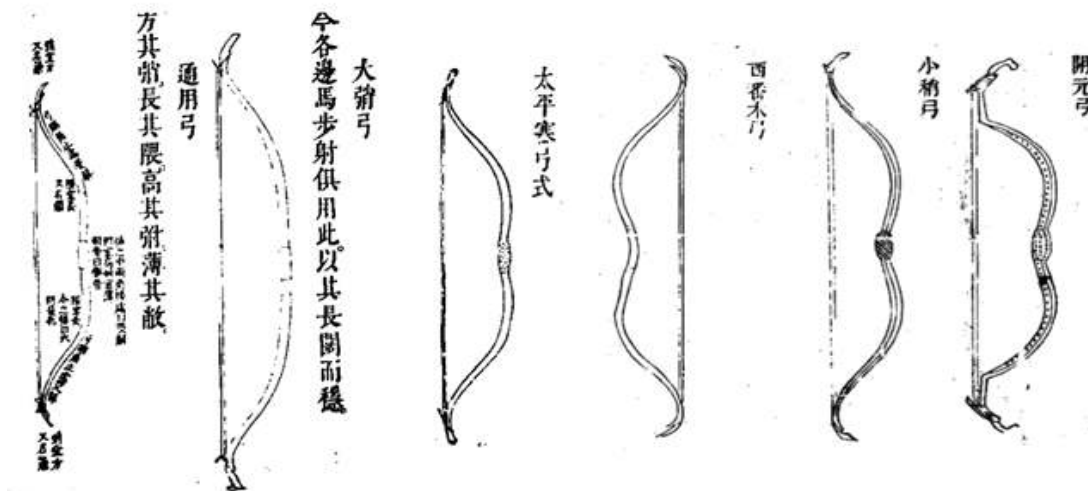
- 몽고 활: 한국 활과 유사한 각궁이나 염소뿔을 사용하고 고자 부분 꺾여 일자형에 가까운 활



<몽고 활과 궁사>

자료: Asian Traditional Archery Research Network(ATRAN), <http://www.atarn.org>
 PhotoMongolia, <http://mongoliaphoto.com>

- 중국 활: 시대별, 민족별 다양한 활이 사용됨, 청조(만주인)의 것은 각궁 중 제일 길어 1.6m에서 1.8m에 이르렀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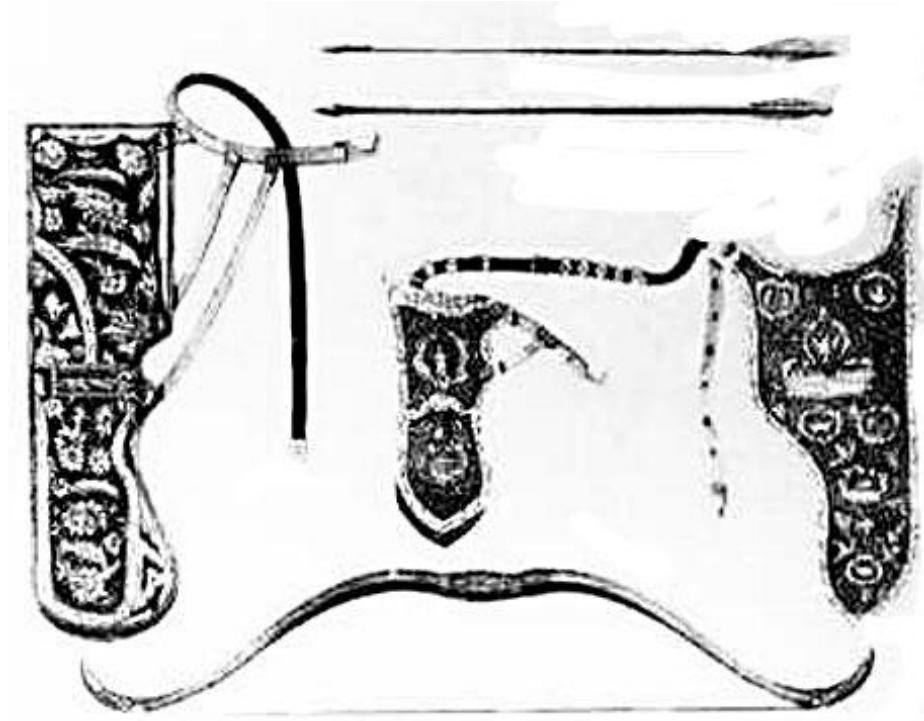


<중국 명대의 전쟁용 활>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general-purpose bow (通用弓), big-siyah bow (大稍弓), Taiping Village bow (太平寨弓), Xifan wooden bow (西番木弓), small-siyah bow (小稍弓), and Kaiyuan bow (開元弓). (Wu Bei Yao Lue (1638) and Wu Bei Zhi (17th century CE))

자료: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

- 한국 활(각궁)
- 러시아(타타르, 스키타이) 활



<중세 러시아 활과 장비>

궁사는 saadak 또는 sagadak 활은 luk 궁대(활집은) naluch 또는 naluchie 불리며 왼편으로 매는 형태임

자료: Xenophon Group International, <http://www.xenophon-mil.org>

- 인도페르시아 활: Hidayat al-rami라는 활쏘기 교본이 전함(대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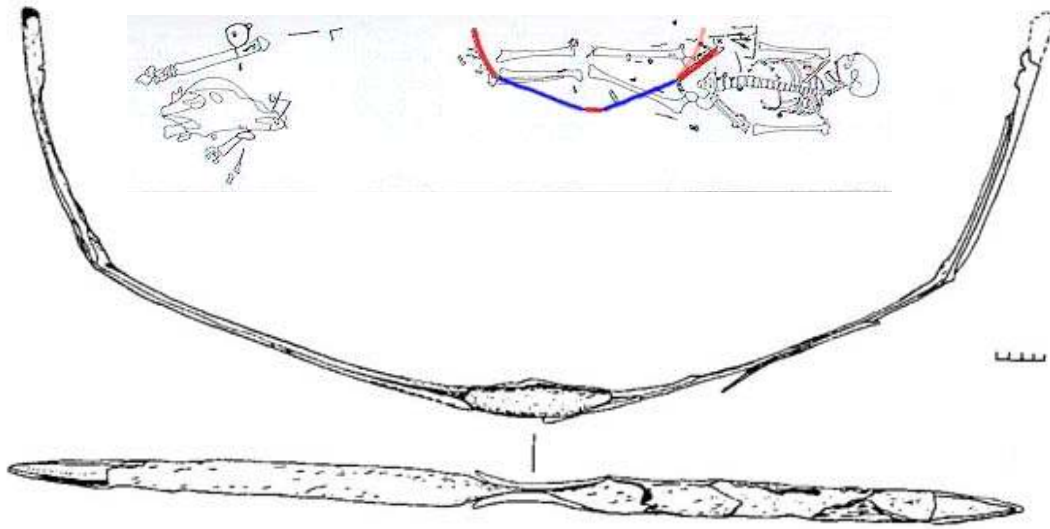


<인도페르시아 활>⁹⁶⁾

자료: GoAntiques, <http://www.goantiques.com>

96) 17-18 세기 이슬람 인도페르시아의 전쟁용 복합궁. 이 활의 스타일은 터키인, 타타르 족, 동유럽

- 헝가리 활: 훈족의 활로 영향을 받은 복합궁



< 헝가리 활 >

Moshchevaya Balka(헝가리 북부 Caucasus)에서 8세기 전반기 것으로 추측되는 거의 완벽한 두 개의 각궁이 무덤에서 발견됨(아래), 헝가리 Karos 근교에서 발굴된 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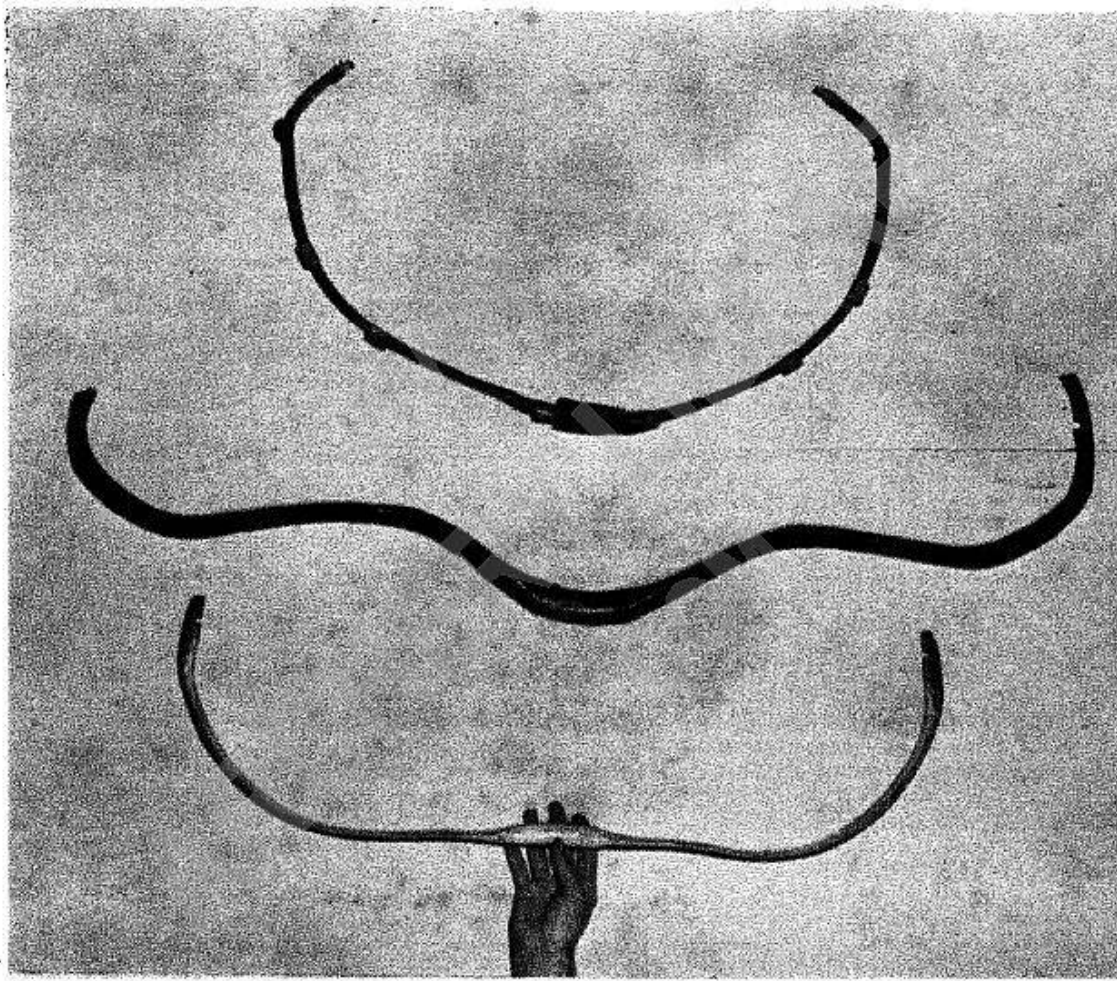
자료: ATRAN, http://www.atarn.org/magyar/magyar_2/bow.htm

- 훈, 흉노, 스키타안 활: 비대칭형의 합성 만곡궁이고,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만들어진 짐, 한국 고대(고구려)의 활과 유사성이 많음, 헝가리 및 터키 활과도 연결됨⁹⁷⁾
- 터키 활: 각궁으로 한국 활과 유사성이 높음, 오스만 제국에서 유래 함, flight bow(menzil), war bow(tirkesh), target bow(puta) 등이 있음
- 북미 원주민(인디안) 활: 기원을 200 또는 734 CE 경으로 추정,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힘줄을 사용한 복합궁이었고 경우에 따라 사슴뿔이나 산양뿔을 사용함, 크기는 기마에 적합하도록 작은 편에 속함(90~100cm)⁹⁸⁾
- 이누이트 활: 나무, 고래수염, 뿔, 사슴 뿔 등을 힘줄을 사용하여 엮는 복합궁
- 일본 활(화궁): 아래가 짧은 비대칭형 활로 나무와 대나무 옷칠 등을 이용한 복합궁
- 아시리아 활: Assyria 왕 Ashurnasirpal II의 전쟁 장면(875 BC)을 묘사한 벽면 조소에서 복합궁으로 추정되는 여러 활을 확인할 수 있음

인, 페르시아인 및 북 인디언들이 사용하였음. 전형적인 인도 활 카만 (Kaman)과는 모양이 약간 다름. 복합궁은 이슬람, 타타르 및 동유럽 군대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고 세대를 이어 물려줌. 크기: 47.5 cm (18 inch) - 29 cm (11 3/8 inch)

97)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 보스톤코리아, 2014.12.29; 경북매일, 2013.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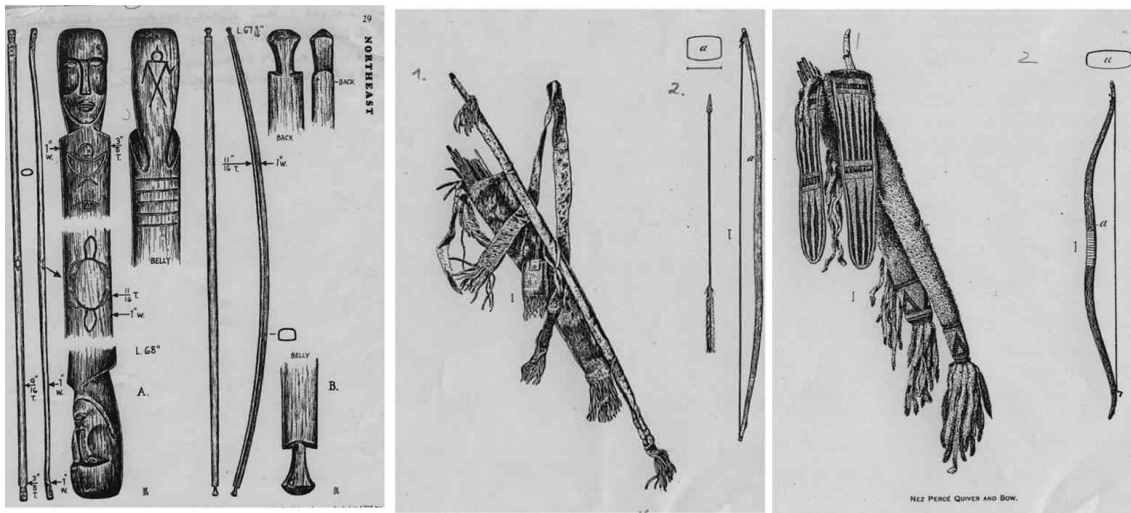
98) 영집궁시박물관, <http://www.arrow.or.kr>



<활 비교>

한국 활(상), 파키스탄(Sind) 활(중), 터키 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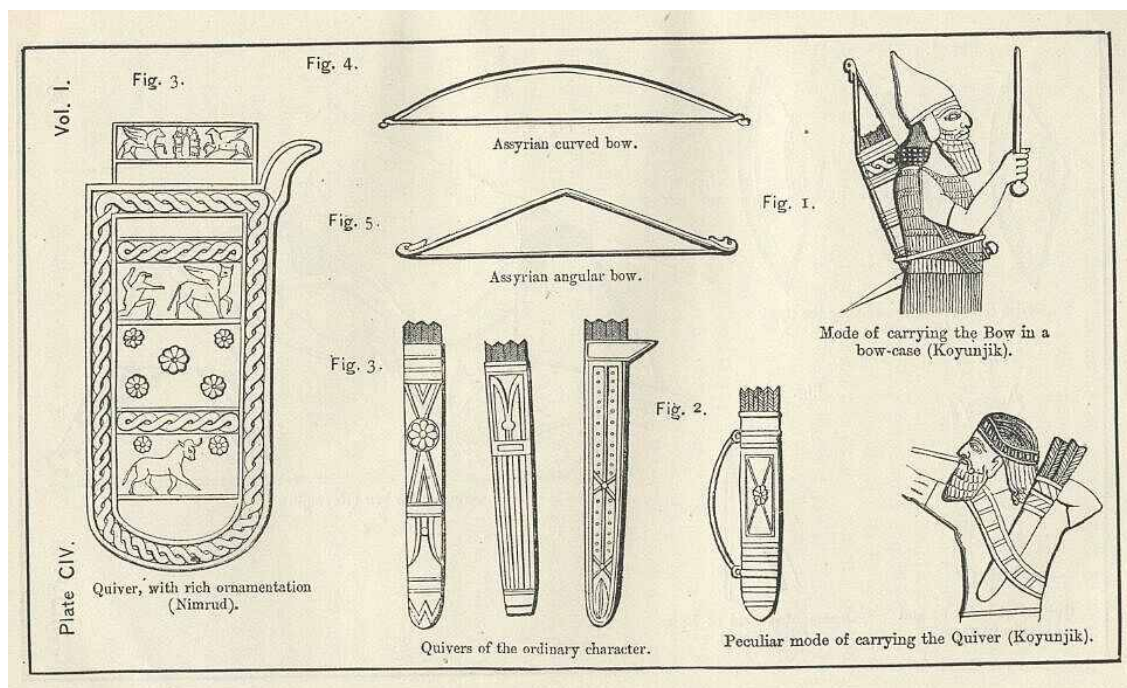
자료: The Archery Library, <https://www.archerylibrary.com>



<북미 원주민 활>

알공칸 활(왼쪽), 대평야지대의 활들(가운데), 네즈퍼스족의 뿔활(오른쪽)

자료: Allely, S. & Hamm, J.(1999). *Encyclopedia of Native Bows, Arrows and quivers 1*, The Lyons Press: New York, 29, 178; Mason, O. T.(1995). *North American Bows, Arrows and Quivers*. Amereon House: Mattituck, New York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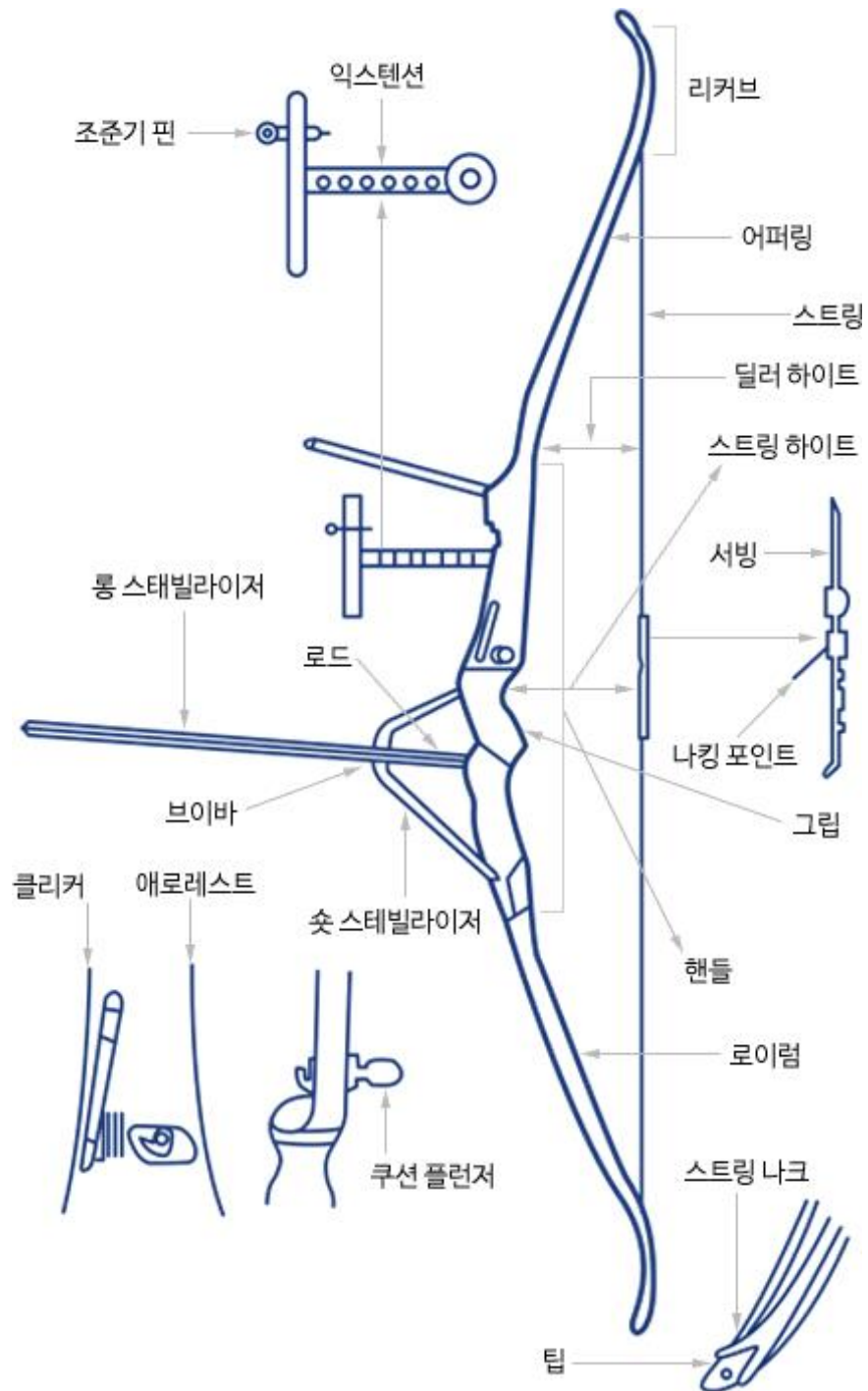
<아시리아 활>

자료: Zoroastrian Heritage, <http://www.heritageinstitute.com>

99) 영집궁시박물관, <http://www.arrow.or.kr>

□ 현대의 활

○ 양궁(Recurve bow)



<양궁: 활의 부분 명칭>

자료: 대한양궁협회, <https://www.archery.or.kr>

○ 현대식 전통활

- 수렵(field)용 리커브활
- 현대식 롱보우

○ 복합궁(compound bow, 컴파운드 활)

- 디플렉스형(Deflex style)과 리플렉스형(Reflex style)
- 활대 끝 캠 장착 활
- 활대 기저 캠(도르래) 장착 활

3) 양궁¹⁰⁰⁾

○ 양궁의 변천

- 지중해형 활에서 유래
- 1538년 영국의 헨리 8세가 오락용으로 활쏘기 대회를 개최한 데서 비롯됨
- 1673년 이래로 영국 요크셔 지방에서 양궁대회를 개최
- 1879년 국제양궁협회(National Achery Association) 창설
- 1900년 프랑스 파리 제2회 올림픽경기대회 양궁종목 포함
-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제3회 올림픽경기대회 여자 선수 참가
- 1931년 8월 폴란드에서 제1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
- 1931년 9월 국제양궁연맹(FITA, 현 WA) 창설(폴란드·프랑스·스웨덴·체코슬로바키아·미국·헝가리·이탈리아 등 참여)
- 세계선수권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시 중단된 뒤 1946년부터 매년 개최되었고 1953년부터 2년마다 홀수 연도에 개최됨
- 1972년 제20회 독일 뮌헨 올림픽경기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

○ 양궁의 종목

- 표적경기(target archery): 올림픽라운드와 그랜드라운드, 더블라운드, 싱글라운드, 세트제 등
- 수렵활경기(field archery): 최장 75m, 최단 6m인 14개의 여러 코스를 인코스과 아웃코스로 설정 총 28코스에서 코스당 4발씩 총 112발을 쏘아 점수를 합산함(국제양궁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를 2년마다 짝수 해에 개최)

100) 세계양궁협회 <https://worldarchery.org>; 대한양궁협회, <https://www.archery.or.kr>

- 컴파운드경기(compound archery): 레저용 활로 세계선수권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경기방식은 표적경기 방식과 같음
- 실내경기(indoor target Archery): 실내에서 개최
- 원사경기(flight archery): 멀리 쏘기
- 스키경기(ski archery): 스키를 타며 표적 쏘기
- 런아처리(run archery): 달리며 표적 쏘기
- 3D경기(3D Archery): 동물모양 표적 쏘기

○ 양궁 대회

- 하계올림픽경기대회 양궁경기 4년마다, IOC
- 세계선수권대회 2년마다(홀수 해), WA
- 세계필드양궁선수권대회 2년마다(짝수 해), WA
- 주니어세계선수권대회(1990년 창설) 2년마다(짝수 해), WA
- 세계대학선수권대회(1996년 창설) 2년마다(짝수 해), WA
- 월드컵(2006년 창설) 매년, WA
- 하계유니버시아드 양궁경기,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 아시아경기대회 양궁경기 4년마다,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 아시아선수권대회 2년마다(홀수 해), WAA(아시아양궁연맹)
- 코리아국제양궁대회(1994년 창설) 2년마다(홀수 해), 대한양궁협회

○ 수렵활경기(field archery)

- 경기는 대체로 International Field Archery Association(IFAA)이나 the World Archery Federation(WA)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각 국가 해당 협회규칙에 따라 이루어짐(영국의 National Field Archery Society(NFAS)나 미국의 the National Field Archery Association(NFAA) 등의 경우)

4) 활 이야기

○ 중국의 고전

-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다툼이 없으나 활쏘기에서는 반드시 다툼다. 읍하고 겸양하여 사대에 오르고 내려와서는 술을 마신다. 이런 다툼이 군자의 다툼이다” 함
- 중국에서는 유명한 신궁(神弓)으로 태양을 쏘아 떨어뜨린 후예(后羿)의 이야기 그리

고 활을 쏘아 호랑이 모양의 바위를 꿰뚫었다는 서한(西漢)시대의 이광(李廣) 비장군(飛將軍)의 이야기가 전해짐¹⁰¹⁾

- 그중 후예는 요나라 시절의 인물로 활쏘기가 뛰어나 하늘에 뜬 10개의 태양 중 아홉 개를 떨어뜨리고 한 개만 남겨 강과 바다가 마르는 가뭄과 금수와 뱀의 출몰로 고생하던 수많은 백성들을 구하고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산해경(山海經)과 '회남자(淮南子)에 전함¹⁰²⁾

○ 이집트의 고전

- 고대 이집트 제3왕조의 파라오 Djoser가 스피크스 형상으로 외부의 적을 상징하는 아홉 개의 활을 깔고 앉아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투탕카멘(Tutankhamun)의 샌들 등 여러 곳에서 활 형상이 등장함¹⁰³⁾
- 이집트의 전쟁의 신 Neith(또는 Nit)는 밤중에 배회하는 요괴(妖怪)나 악인(惡人)을 화살로 잡재우는 신으로 보통 머리에 관을 쓴 채 손에 활과 화살을 든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때로는 방패를 꿰뚫고 날아가는 두 개의 엇갈린 화살로 표현됨¹⁰⁴⁾

○ 그리스의 신화: 아폴론의 활¹⁰⁵⁾

- 아폴론이 다프네를 사랑한 것은 사랑의 신 에로스(로마에서는 큐피트)가 쏜 사랑의 화살(이 화살은 아폴론의 것이다)에 맞았기 때문
- 아폴론의 무기는 태양광을 상징하는 활과 화살로 과녁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김없이 맞히며 치명상을 주지만 그 화살은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음
- 아폴론 무기의 원형은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가 지상에 쏘았다는 눈동자의 빛에서 찾을 수 있음
- 아폴론은 수천 줄기의 빛의 화살을 괴수인 피토스에게 쏘아 격퇴하고 승리를 기념하는 8년에 한 번 벌어지는 경기대회인 피티아 축제에 전승되었음
-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편에 가담했던 아폴론은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인 발뒤꿈치(아킬레스건)에 명중시킴
- 아폴론과 쌍둥이 자매인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Artemis)의 활은 달빛과 은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함
- 헤라클레스의 화살은 히드라의 독이 묻어 있어 어떤 적이라도 사살할 수

101) 정신을 집중하여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중석몰촉(中石沒鏃)이라는 고사성어로 전해짐(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102) 풍국초(2005). 「중국 상하오천년사」. 이원길역. 신원문화사.

103) Ancient Egypt and Archaeology Web Site, <http://www.ancient-egypt.co.uk>

104)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105) 사토 도시유키(2000). 「신검전설」, 이규원 역, 도서출판 들녘

있는 무서운 무기(시위를 당기는 모습은 그림과 조각으로 자주 등장)

○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의 활¹⁰⁶⁾

- 하늘의 활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대장장이 신이 전쟁의 여신을 위해 만든 활이지만 그것을 우연히 얻은 인간영웅과 그 활을 되찾으려는 여신의 싸움이 우가리트의 신화로 전해짐
- 우가리트는 시리아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도시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히타이트 등이 번성하던 기원전 17~12세기에 함께 번영한 페니키아의 도시국가
- 전쟁의 여신 아나트에게 대장장이의 신 코타르가 활을 만들어 전하려고 지상 세계를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인간이 사는 집에 신세를 지게 되고 귀중한 하늘의 활을 그 집에 두고 돌아오게 됨
- 집 주인은 신의 선물이라고 기뻐하며 아들 아크하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알게된 여신은 되찾으려 하지만 아크하트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결국 부하 앓판을 시켜 강제로 활을 빼는 과정에서 아크하트가 죽고 아나트와 대지는 저주에 걸리게 됨
- 아크하트의 누이동생 푸가트는 남장을 하고 오빠를 죽인 범인 앓판을 찾아 죽이자 여신 아나트의 저주가 풀리고 바알 신이 대지에 다시 비를 뿌려 기근이 풀리고 죽었던 아크하트도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됨
- 하늘의 활은 여신 아나트에게 돌아가 하늘의 성좌가 됨
- 이 이야기가 널리 퍼졌을 기원전 13세기경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는 복합궁이 사용되고 있었음

○ 인도의 신화: Brahma, Ramachandra, Shiva의 3대 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 이야기가 전수됨¹⁰⁷⁾

- 파괴의 신 Shiva는 Pinaka라는 무지갯빛의 최고의 활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활은 7개의 머리를 가진 맹독성의 이빨을 지닌 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활로 한 방에 악마를 궤멸시킴
- Parasurama¹⁰⁸⁾는 그의 제자인 Kama에게 승리의 신성한 활 Vijaya Dhanush를 하사함
- Gandiva는 인도 서사시 Mahabharata의 남자 주인공이자 힘과 정력의 화신인

106) 상계서

107)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

108) 인도의 신 Vishnu가 악마로부터 신과 인간들을 구원하고 세계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10 화신(化身, avatar) 중 여섯 번째 형상

Arjuna의 활로 창조의 신 Brahma가 만들었음

- 유지의 신 Vishnu¹⁰⁹⁾의 7번째 화신이자 인도의 서사시 Ramayana의 주인공인 Ramachandra(또는 Rama)는 Kodandam이라는 활과 화살을 든 형상으로 나타남

○ 페르시아(이란)¹¹⁰⁾

- 페르시아의 궁사 Arash는 Persia와 Tooran의 경계를 정하는데 활을 사용함, 그의 화살은 3일 동안 날아갔다고 함

○ 북유럽 신화¹¹¹⁾

- Ichaival은 게르만 민족 숭상하는 아사 신족의 최고신인 Odin의 활이라고도 하고 야산을 누비는 수렵의 신 Ullr에게서 유래한 것이라고도 함, 한꺼번에 10개의 화살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함

5) 세계 활 관련 박물관

- 이탈리아의 볼차노(Bolzano)의 남부티롤 고고학박물관(The South Tyrol Museum of Archaeology)에는 5,300여 년 전 싸움 중에 화살에 맞아 숨진 'Ötzi'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냉동 남자미라와 그가 사용한 1.82m의 활, 화살, 전동 등을 전시하고 있음¹¹²⁾

- 영국 Manchester 대학의 맨체스터박물관(Manchester Museum): 전 세계에서 수집된 활과 관련된 유물을 4,000여점 보유함¹¹³⁾

- 미주 인디언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인디언의 다양한 활과 화살, 전동(箭筒), 활집 등을 전시하고 있음(소재지는 Washington DC와 New York)¹¹⁴⁾

- 미국 미주리대학 컬럼비아에 위치한 미주리대학의 인류학 박물관(Museum of Anthropology)에는 5,000여점의 다양한 활과 활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음(Grayson Collection)¹¹⁵⁾

109) Vishnu의 활은 Sharanga 임

110)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

111) 다케루베 노부아키(2000), 「켈트 복구의 신들」, 박수정, 도서출판 들녘.

112) South Tyrol Museum of Archaeology, <http://www.iceman.it>

113) Manchester Museum, <http://www.museum.manchester.ac.uk>

114) the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http://www.nmai.si.edu>

115) Museum of Anthropology, <https://anthromuseum.missouri.edu>(현재 전시관 이전을 준비 중)

- 미국 Pennsylvania주 Philadelphia에 있는 펜실베니아대학 인류고고학 박물관(University of Pennsylvania Museum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전 세계의 다양한 활과 화살, 전동, 활집 등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음¹¹⁶⁾
- 미국 뉴욕의 Brooklyn 박물관에는 미주와 아프리카 중심으로 활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음¹¹⁷⁾
- 활사냥 박물관(Museum of Bowhunting):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활사냥의 역사를 정리한 소규모 박물관¹¹⁸⁾
- 뉴질랜드 Auckland 전쟁기념박물관(Auckland War Memorial Museum)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활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음¹¹⁹⁾
- 부천 활박물관: 국궁(國弓) 관련 자료 33점, 초대궁시장 김장환 유품 240점, 기타 98점 등 총 338점을 전시¹²⁰⁾
- 영집궁시박물관: 파주시 탄현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다양한 활과 화살, 궁시보조기구 등을 다수 보유함¹²¹⁾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군사용물을 중심의 박물관으로 전국의 다양한 활과 관련 유물 전시(활 특별전도 개최)¹²²⁾
- 황학정 국궁전시관: 황학정의 역사, 우리민족과 활, 그림 속 활, 궁시 제작, 우리활의 우수성 등의 전시 및 활쏘기 체험¹²³⁾
- 프랑스 전통활 박물관(Patrick Carrel): 파리 북서쪽 프랑스를 대표하는 활 중심 도시 레피발루아시에 있는 전통활 박물관, 옛 성을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활과 관련된 유물 수천 점을 보유함

116) University of Pennsylvania Museum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http://www.penn.museum>

117) Brooklyn Museum, <https://www.brooklynmuseum.org>

118) Museum of Bowhunting, <http://www.pope-young.org>

119) Auckland War Memorial Museum, <http://www.aucklandmuseum.com>

120) 부천박물관, <http://www.bcmuseum.or.kr>

121) 영집궁시박물관, <http://www.arrow.or.kr>

122)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http://museum.kma.ac.kr>

123) 황학정 국궁전시관, <http://gallery.karchery.org>

6) 세계 활 축제

- National Archery Festival: Ireland의 전통, 현대 활쏘기 대회
- NFAA¹²⁴⁾ World Archery Festival: The Vegas Shoot, 미국 중심의 실내 활쏘기 대회
- Naadam: 씨름, 경마, 활쏘기 등 3가지 경기를 중심으로 한 몽고의 전통 축제(세계무형유산)
- 아오이 축제: 일본 교토의 축제, Yabusame(流鏑馬, 기마궁술) 재현
- Kamakura Festival: 일본의 Kanagawa현의 가마쿠라시의 중세 무사들의 승마궁술(기사) 등이 재현됨
- Kolli Hills Festival: 남부 인도의 축제로 활쏘기가 하이라이트
- the Bedfordshire Medieval Fayre, the East Anglian Medieval Fayre, the Sussex Medieval Festival and the Christchurch Medieval Festival: 영국의 여러 중세 축제에는 활쏘기가 주요 프로그램임
- Native American Festival: 미국 Florida주의 Flagler County의 전통 축제로 춤과 활쏘기 등이 펼쳐짐
- 예천세계활축제: 2014년, 2015년 두 차례 세계 개최되었음, 활쏘기 체험 과전시를 중심으로 한 종합축제¹²⁵⁾
- 제1회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 장소: 청주시
 - 시기: 2016. 09. 02 ~ 09. 08
 - 주최: 충청북도, 청주시
 - 주관: (재)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사)세계무술연맹(WoMAU)¹²⁶⁾

124) The National Field Archery Association, <https://www.nfaausa.com>

125) 본 연구 35쪽 참조

126) 2002년 10월 28개 나라의 다양한 문화권을 대표하는 전통무술 단체들이 무술을 통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무술단체간에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창설한 국제무술기구, 2008년 11월 유네스코로부터 NGO 자문기구 후보로 인가, 2009년 5월 문화 관련 '실무관계 NGO'로 공식 확정, 현재 41개국 61개 단체 가입(<http://www.doopedia.co.kr>, <http://womau.org>)

- 참가: 81개국 1,940명의 선수단
- 관람객: 59,390명
- 내용: 6종목의 기사(horseback archery)경기 등 17종목(정식 종목 15개, 특별종목 2개)의 무예를 겨룸
- 행사를 통해 WMC(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창립¹²⁷⁾

○ 제12회 세계기사선수권대회

- 장소: 속초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 기간: 2016.09.01.~05
- 세계무술연맹, 세계기사연맹(WHAF) 주최
-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 주관
- 한국, 일본, 몽골 등 22개국 150명
- 한국식(단사, 속사, 연속사, 단체전)과 터키식(퀴바크)으로 개최
- 마상격구 체험
- 2005년 첫 대회 개최

○ 세계민족궁대축전

- 2007년 1회 대회 개최
- 2012년 6회 대회에서 세계민족궁연맹(WTAF)¹²⁸⁾ 창설: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 2015년 9회 청주대회 그리스, 네팔, 대만, 미국, 독일, 브라질, 몽골, 러시아 등 35개국 600여 명의 선수 참가
- 시연대회, 민족궁 경기(개인전, 국가대항전), 원사(멀리쏘기) 및 집중사 경기
- 민족궁 경기: 헝가리, 터키, 중국, 일본, 몽골, 미국, 한국
- 초, 중, 고, 일반부 및 여자부
- 국제학술세미나

127) 초대 위원장인 충청북도지사를 포함하여 국제무예단체, 대한체육회 등 총 36명 참여

128) 2015년 현재 43개국 정식 가맹

7) 세계 활 단체

○ 세계양궁연맹¹²⁹⁾

- WA(World Archery Federation)
- 공식명칭: FITA(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Tir à l'Arc)
- 설립: 1931년 9월
- 사무국: 스위스 로잔
- 회원국: 156 국가와 협회
- 소속: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IFAA(International Field Archery Association, 국제수렵활경기협회): 1970년에 설립되었고 국가나 지역의 48개 협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소속자격이 유예된 상태임¹³⁰⁾

○ NFAS(National Field Archery Society) in UK¹³¹⁾

- 설립: 1973년
- 운동의로서 수렵활경기를 권장함
- 경기는 숲에서 이루어지고 3D 또는 그림 동물 타깃을 사용함
- 경기형식(10종): Primitive, Longbow, American Flatbow, Hunting Tackle, Bowhunter, Barebow, Freestyle, Crossbow, Compound Limited and Unlimited
- 각 6체급으로 구성: Gents, Ladies, Junior Boys, Junior Girls, U12 (Cub) Boys, U12 (Cub) Girls

○ NFAA(National Field Archery Association) in the USA¹³²⁾

- 설립: 1970년
- 참가국: USA, Sweden, England, Scotland, Wales and Canada
- 회원국: 45개국 5만여 회원
- 소속: TAFISA(The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Sport for All)¹³³⁾

129) 세계양궁협회, <http://www.worldarchery.org>

130) International Field Archery Association, <http://www.ifaa-archery.org>

131) National Field Archery Society, <http://www.nfas.net>

132) National Field Archery Association, <http://www.ifaa-archery.org>

133) 1991년 설립되었고 167개국이 가입된 IOC후원 국제적 스포츠협회로 사회생활체육인의 협회

3. 시사점

1) 한국의 활

- 한반도는 선사시대부터 활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고대시대부터 각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활의 제작과 사용에 뛰어났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다수 확인됨
- 나라에서 활쏘기를 권장하고 향사와 같이 마을의 잔치를 열고 활쏘기를 하는 풍습이 있었음
-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육례 중의 하나로 국가에서는 대사례를 행하고 지방에서는 향사례가 장려됨(예천의 권오복이 지은 「향사당기」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근대의 갑오경장 이후 활쏘기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지속되었고 일제 강점 기에도 활제작과 활쏘기가 억제되었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국궁관련 단체의 설립, 대회개최 등 활쏘기가 지속됨
- 사장의 설치는 고려시대에 기록이 나타나고 조선시대에는 관설사정과 민간사정 다수 설치되었으나 갑신정변, 갑오경장 시기를 중심으로 쇠퇴하거나 폐쇄되었다가 황학정의 설치를 기점으로 부흥되었다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을 지나며 축소되었다가 이후 다시 부흥하게 됨
- 우리나라의 활은 각궁 외에도 용도에 따라 다양한 활과 화살이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심신수련의 습사를 위한 각궁의 제작 기술과 유엽전을 중심으로 몇몇 화살 제조 기술이 전하고 있음
- 조선시대에 궁시의 개발은 기계식 활이나 화약추진 화살로도 발전하였음
- 제작의 효율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바탕으로 개량궁과 카본시가 개발됨
-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서로 다른 과녁을 사용하였고 현재 모양의 국궁과녁은 1948년에 제정됨

- 우리나라 사법은 몽고형으로 분류될 수 있고 나뭇의 자세와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심신수련의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였음
- 전쟁의 무기였던 활쏘기는 군사훈련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활쏘기 방법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입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조선시대에는 육례에 따라 임금이 주관하는 대사례와 대부나 지방관이 주관하는 향사례가 이루어졌고 시문집인 향사당기를 통해 향사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향촌의 지배체제를 확인할 수 있음
- 과거의 대표적인 활쏘기 경기는 편사로 이루어졌고 그 참여 내용에 따라 다양한 편사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장안평사만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국궁 관련 문화재는 궁시와 전통의 제작 외에도 활터 등의 사적 그리고 유품 등 여러 형태가 산재함
- 우리나라 양궁은 60년대 초 자생적으로 시작되었고 국궁과 함께 습사와 대회가 실시되었고 70년대 초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70년대 말 예천 출신의 김진호선수가 세계 최상의 성적으로 제패를 함
-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엘리트 체육으로 유지되고 있음
- 대한체육회 등록된 궁도선수는 종목 중 4위를 차지하고 있고 동호인의 수도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지만 양궁은 등록 선수도 적고 동호인의 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많은 궁도인 수에 비례하여 다양한 민간단체와 온라인 카페, 블로거 등의 활동이 확인됨
- 고대, 중세, 근대까지 활에 관련된 많은 일화나 작품을 찾을 수 있고 풍속화 등에 나타난 전통 활의 모습이나 사법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 세계의 활

- 활을 만들고 공유하고 전승하는 문화는 전 세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남
- 활의 시작은 신석기에서 중기 구석기(BC 7만~1만년)까지 거슬러 올라감
- 활의 사용은 유적에서 발굴된 화살촉으로 짐작함, 이는 활은 탄력성을 이용하기 위해 유기물질로 만들어진 까닭으로 여겨짐
- 활은 수렵과 전쟁의 도구로 사용됨
- 활은 휴대의 편의성과 원거리 사격을 위해 고안됨
- 활은 개인용 소총이 발명되기 전까지 전쟁과 수렵의 핵심적 도구였고 그 이후에는 심신 수련의 도구로 활용됨
- 활은 크게 단일 재료로 제작한 단순궁과 여러 재료가 결합하여 제작한 복합궁으로 나눌 수 있음
- 단순궁은 대체로 전체 길이가 긴 장궁이고 복합궁은 크기가 비교적 짧은 단궁인 경우가 많음
- 복합궁 중에서도 뿔을 중심 재료로 활용한 복합궁을 각궁이라고 함
- 아시리아, 몽고, 터키, 헝가리, 고구려 등 각궁을 사용한 민족이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현대 스포츠인 양궁은 영국에서 유래하고 올림픽경기 형태 외에도 다양한 경기 방식이 있고 특히 수렵활경기(field archery)는 일반의 생활체육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음
- 동서양에서 활은 통치 권력의 힘 또는 신에게서 부여받은 힘으로 묘사됨
- 해외의 활 박물관은 역사박물관, 고고학박물관, 전쟁기념관, 활전문박물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소규모 박물관이나 소규모 유물전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적으로 활 관련 축제는 활쏘기대회로 치러지거나 종합적인 무술축제나 전쟁역사축제 안에서 주요 테마로 다루고 있음
- 단일한 국제조직인 세계양궁연맹과 수렵활대회와 관련된 3개의 국제조직이 활동하고 있음

3) 결론

- 세계적으로 전통 활 문화는 궁시유물과 유적, 궁시의 제작, 전통 활 대회나 축제 그리고 역사적 문헌과 전승일화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세계적으로 양궁은 현대의 스포츠로 정착하여 수렵활쏘기와 같은 동호회나 개인적인 여가활동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로써의 전문적인 체육활동으로 나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활 문화도 전통 활 문화의 구분과 양궁의 스포츠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우리나라 궁시유물과 유적
 - 단양 수양개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돌화살촉이 발견되었고 광주 신창동에서는 목재 활이 출토됨
 - 황학정 국궁전시관, 부천 활박물관, 육군박물관, 영집궁시박물관 등의 전문 박물관과 역사박물관에 활 관련 유물이 전시되고 있음
 - 여러 지역에서 궁궐, 산성 포함된 활터 유적을 찾아볼 수 있음
- 우리나라 궁시의 제작
 - 우리나라의 궁시의 제작은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중심으로 전승됨(전수회관 및 개인공방)
 - 우리나라의 각궁과 화살의 제작기술은 타국에 비해 잘 보존되고 있음(궁시장의 서로 다른 제작방식의 비디오 자료 포함)
 - 근현대의 궁시제작은 주요 사정의 수요량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음
 - 근현대의 개성, 부천, 예천과 같은 집단적 궁시제작촌은 소멸하였음

○ 우리나라 전통 활 대회나 축제

- 국궁은 전국 각지의 사정을 중심으로 습사와 대회가 개최되고 있고 궁사는 장년층이 많음
- 예천세계활축제, 세계기사선수권대회, 세계민족궁대축전 등 전통 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축제가 타국에 비해 많이 개최됨

○ 우리나라 역사적 문헌과 전승 일화

- 우리나라 고대 활 문화의 흔적은 중국의 사서를 비롯하여 국내 역사서와 실록, 개인문집 등 다양한 형태와 장르를 통해 일화가 전해지고 있고 벽화, 풍속화, 조형 등을 통해서도 여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양궁은 수렵활쏘기와 같은 동호회나 개인적인 여가활동은 매우 저조하고 초등학교부터 엘리트 스포츠로써의 전문 체육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음

IV. 유사 활용사례

1. 인류무형문화유산

1) 인류무형문화유산 개요¹³⁴⁾

☐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정의 (협약 제2조 1항)

-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 문화 공간

☐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협약 제2조 2항)

-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공연 예술(전통음악, 무용 및 연극 등)
-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 전통 기술

☐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협약 제2조 1항)

-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
- 인간과 주변 환경,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
-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 부여
-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증진
- 공동체 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¹³⁵⁾

134) UNESCO, <http://heritage.unesco.or.kr>: 2003년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음

2)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¹³⁵⁾

□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기준

- 기준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 기준2, 관련 공동체나 집단, 개인 또는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 위험에 처해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준3,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없으면 곧 소멸될 정도로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
- 기준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이 계속 실연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기준5,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 기준6,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 위의 기준과 별도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인 경우 무형유산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해당 유산을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에 등재할 수 있음

□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 기준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 기준2,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 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135) 국제 인권 관련 규범과 양립

136) UNESCO, <http://heritage.unesco.or.kr>

- 기준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기준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 기준5,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 인류무형유산 등재절차

○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 등재절차

- 준비: 제출 준비를 위한 국제원조 신청(신청 전년도 3월31일까지)
- 제출: 신청서 사무국 제출 마감(1차년도 3월 31일까지)
신청서 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 공지(1차년도 6월 30일까지)
당사국의 신청서 보완 마감(1차년도 9월 30일까지)
- 심사: 심사(1차년도 12월 ~ 2차년도 5월)
최종심사 회의(2차년도 4월 ~ 6월)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및 온라인 게시(국가간위원회 몇 주 전)
- 결정: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신청서 최종 심사 및 등재 여부 결정(2차년도 11월)

○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절차

- 제출: 신청서 사무국 제출 마감(1차년도 3월 31일까지)
신청서 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 공지(1차년도 6월 30일까지)
당사국의 신청서 보완 마감(1차년도 9월 30일까지)
- 심사: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대표목록 심사보조기구에서 심사(1차년도 12월 ~ 2차년도 5월)¹³⁷⁾
최종심사 회의(2차년도 4월 ~ 6월)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및 온라인 게시(국가간위원회 몇 주 전)
- 결정: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신청서 최종 심사 및 등재 여부 결정(2차년도 11월)

137) 대표목록 등재 심사보조기구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24개 위원국 가운데 각 지역별로 1개국씩 전체 6개국으로 구성됨(UNESCO, <http://heritage.unesco.or.kr>)

○ 문화재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절차

단계	시기	추진주체	내용
01		시도지사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문화재청에 신청
02		문화재청	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03		문화재청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확정
04		문화재청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05		문화재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매년 2~4개 유지)
06	등재신청연도 전전년12월말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2개)
07	등재신청연도 전년7월말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
08	등재신청연도 전년8월말까지	시도지사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문화재청에 제출
09	등재신청연도 전년9월30일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10	등재신청연도 2월1일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최종본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11	등재신청연도 8~9월	유네스코 자문기구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
12	등재신청연도 9~12월	유네스코 자문기구	유네스코 자문기구 보충자료 요구
13	등재신청연도 익년4월경	유네스코 자문기구	유네스코 자문기구 심사결과를 유네스코에 통보
14	등재신청연도 익년6~7월경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효과

○ 등재의의와 효과

-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에 등재되면 무형유산협약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금 및 관련 전문 기구를 통해 유산 보호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국제적인 지명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고용기회, 수입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국제적으로 해당 유산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짐
- 관련 공동체의 자긍심이 고취됨으로써 무형유산의 보호에 크게 기여함

-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될 경우, 대표목록에 등재된 유산보다 가시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국제원조를 받을 수 있음
-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은 국가별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집대성을 의미함

○ 등재 유산의 관리책임

- 긴급보호목록 또는 대표목록에 등재되어도 해당 유산의 관리는 이전과 변화가 없음 (당사국 국내법의 적용)
- 무형유산위원회는 당사국이 세계유산을 적절하게 보호 및 관리하고 있는 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음

○ 등재 유산의 국제협력 및 지원

-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에 등재되면 무형유산협약에 따라 설치된 무형문화유산기금에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음¹³⁸⁾

3) 인류무형문화유산 현황¹³⁹⁾

☐ 긴급보호무형유산 목록

- 24개국 43건(2015년 12월 현재)

☐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 119개국 342건(2016년 12월 현재)

☐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 간 공동등재 목록(24개)

- 2001년, 자파라족의 구전 유산과 문화적 표현물(에콰도르, 페루)
- 2001년, 겔리드 구전유산(나이지리아, 베냉, 토고)

138) 이 기금은 당사국의 의무적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 해당 유산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유네스코에 기금 신탁으로 저개발국 유산 보존에 기여)

139)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2003년, 발트 지역 국가들의 ‘노래와 춤의 축전’(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2003년, 샤쉬마콤 음악(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 2005년, 축제 퍼레이드에 쓰이는 거인상 - 거인과 용(벨기에, 프랑스)
- 2005년, 우르틴 두 - 장가(몽골, 중국)
- 2005년, 칸쿠랑, 멘딩지방의 입문의례(감비아, 세네갈)
- 2005년, 구레 왁쿠루(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
- 2008년, 가리푸나족의 언어, 무용, 음악(벨리즈,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 2009년, 탱고(아르헨티나, 우루과이)
- 2009년, 노브루즈, 노우루즈, 누루즈, 나브루즈, 나우로즈, 네브루즈(아제르바이잔, 인도, 이란,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터키, 우즈베키스탄)
- 2012년, 매사냥(대한민국, 모로코, 몽골,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오스트리아, 체코, 카타르, 프랑스, 헝가리)
- 2012년, 말리,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의 세누포 공동체의 발라폰 관련 문화 관습과 표현(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 2012년, 베두인족의 전통 시가 낭송(알 타그루다, 아랍에미리트, 오만)
- 2013년, 투아레그 족의 임자드 관습 및 지식(알제리, 말리, 니제르)
- 2013년, 남성들의 콜린다트 모임, 크리스마스 풍습(루마니아, 몰도바)
- 2013년, 지중해식 식문화(키프로스, 크로아티아,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모로코, 포르투갈)
- 2014년, 오만술탄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의 전통 공연예술, ‘알 아이알라’(오만, 아랍에미리트)

- 2014년, 키르기스 족과 카자흐 족의 유르트(투르크 족의 이동식 주거) 제작에 관한 전통 지식 및 기술(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2015년, 너그러움의 상징 ‘아랍 커피’(아랍에미리트연방,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 2015년, 문화사회적 공간, Majlis(아랍에미리트연방,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 2015년, 전통음악 Marimba과 춤(콜롬비아, 에콰도르)
- 2015년, 피레네 산맥의 하지 불 축제(안도라, 에스파냐, 프랑스)
- 2015년, 줄다리기(캄보디아, 필리핀, 대한민국, 베트남)

□ 우리나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총 19건)

- 2001년, 종묘 및 종묘제례악
- 2003년, 판소리
- 2005년, 강릉단오제
- 2009년, 강강술래, 남사당,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 2010년, 가곡, 대목장, 매사냥(공동등재)
- 2011년,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짜기
- 2012년, 아리랑
- 2013년, 김장문화
- 2014년, 농악, 줄다리기(공동등재: 대한민국·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 2016년, 제주해녀문화

□ 현재 활과 관련된 인류무형문화유산

- 2012년 활쏘기놀이가 잠재목록에 등재 됨(범주는 사회적 관습·의식 및 축제행사)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관으로 인가된 우리나라의 NGO

-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사)세계무술연맹, 세계탈문화예술연맹 등

4) 유사 사례

□ 유교 책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성공 사례)

- 등재시기: 2015년 10월 6일
- 추진주체: 한국국학진흥원, 안동시
- 선정기준: 명확한 대상과 주제, 기록유산적 가치, 진정성, 대체불가능성, 완전성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됨
- 등재 추진과정
 - 준비기간 12년 (2001년 ~ 2013년)
 - 선정기간 2년 (2013년 ~ 2015년)
 - 2001년 목판 10만장 수집운동
 - 2013년 8월~9월 : 문화재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모 신청 접수
 - 2013년 12월 : 12건 공모 접수 심사에서 선정
 - 2014년 1월 :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심의 보완, 영문번역
 - 2014년 3월 31일 :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본부 제출
 - 2015년 10월 : 세계기록유산자문위원회의 최종 등재 결정 발표

□ 한국의 전통 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정(통합추진 사례)

○ 한국의 전통 산사를 공동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과정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2011.04.08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 - 국가브랜드위원회	
2011.05.02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추진 전문가협의회 구성 - 전국적 등재 후보 사찰 선정 등	
2012.06.26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 1차 회의 - 한국 사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안) 설명 - 추진위원회 기능 및 향후 운영방안 논의	
2012.08.10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관계기관 연석회의 - 사찰 선정 설명 및 향후 일정, 재원 조달 방안 확정	
2012.09.21~23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회의 - 내용 : 한국사찰의 세계 유산적 가치	국제학술회의
2013.08.30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문화재청 제출	
2013.10.18, 24, 11.5, 11.6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현지조사(4차)	현지조사
2013.11.26	■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잠정목록 등재 대상 확정	
2013.12.12	■ 잠정목록 등재	
2013.12.13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 - 추진위원회 구성안 합의, 2014년 분담금 확정	행정위원회의
2013.12.17	■ '한국의 전통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014.01.23	■ 조계종 총무회의 의결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안	
2014.04.07	■ '한국의 전통산사' 제2차 행정위원회의 - 문화재청, 12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총무원	행정위원회의
2014.08.06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발족식	
2014.08.28~29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세부사업계획 검토	
2014.12.12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국내학술회의 - 세계유산과 한국의 불교문화	국내학술회의
2015.04.23~24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회의 - 한국사찰의 세계 유산적 가치	국제학술회의
2015.06.02~06	■ '한국의 전통산사' 해외비교유산 답사 - 세계유산 비교연구(미얀마 불교유산 비교연구)	
2015.08.26	■ '한국의 전통산사' 행정위원회의(15년 1차)	행정위원회의

	- 세계유산등재 보존관리계획 수립	
2015.09.04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학술회의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적 가치	국내학술회의
2015.11.19~20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적 가치	국제학술회의
2015.12.07	■ '한국의 전통산사' 행정위원회의(15년 2차) - 2016년 추진사업 계획 협의, 사업예산편성	행정위원회의
2015.12.11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의 - 2016년 추진사업 계획 협의, 사업예산편성	
2016.02.17	■ '한국의 전통산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 보존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2016.03.30	■ '한국의 전통산사' 행정위원회의(16년 1차) - 2016년 주요 추진업무 협의	
2016.04.29	■ '한국의 전통산사' 제3차 국내학술회의 - 한국전통산사의 불교유산적 가치	국내학술회의
2016.06.07~11	■ '한국의 전통산사' 해외비교유산 답사 - 세계유산 비교연구(중국 불교유산 비교연구)	
2016.10.06~07	■ '한국의 전통산사' 제3차 국제학술회의 - 봉정사, 부석사 답사 및 연속유산의 보존관리 활용방안	국제학술회의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정(실패 사례)

○ 한국의 서원을 공동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과정

년월일	추진내용	비고
2009. 09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검토 자문회의 - 한국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협의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청 제안	
2010. 10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간담회(1차) - 한국 서원 세계유산 등재 로드맵 사업계획 워크숍	
2010. 11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간담회(2차) - 로드맵 및 통합관리단 구축 논의	
2011. 01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간담회(3차) - 문화재청장,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재관련 조언 및 지원 요청	
2011. 02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간담회(4차) - 로드맵 및 주요사업 계획 협의 - 서원 대표자 심포지움 개최	

2011. 03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간담회(5차) -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협의	
2011.04.08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통령 보고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	
2011.04.14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 한국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기능 및 향후 운영방안 논의	서원 소재 지자체 동참
2011.06.11~12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 현지조사 - 도산, 병산서원 포함 9개 서원	
2011.08.25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자료 제출	
2011.09.22	■ 서원 세계유산 등재 관계기관 협의회의 개최 - 2012년 예산확보 방안 협의	
2011.09.30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 - 대도산서원, 병산서원 잠정목록 신청서 자료	
2011.10.27~29	■ 서원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회의 - 장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 인류가 공유해야 할 교육·문화유산적 가치	
2011.12.12	■ 한국 서원 보존관리를 위한 학술회의 개최	전문가 워크샵
2011.12.	■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확정 - 대상 : 도산, 병산서원 포함 9개 서원	
2012.03.08	■ 한국의 서원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2012.04.03	■ 세계유산 등재 관계기관 연석 회의 - 발족식 및 향후 추진계획 협의	
2012.04.18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발족식, 회의 -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보존관리 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도출	전문가 워크샵
2012.05.31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1차 행정위원회 회의(16개 기관단체장)	행정위원회의
2012.06.15	■ 3차 전문가 학술회의 - 서원의 교육(강학)과 제향의례	전문가워크샵
2012.09.05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2차 행정위원회 회의(16개 기관단체장)	행정위원회의
2012.11.09	■ 4차 전문가 학술회의 - 서원 현판류 자료의 문화사적 가치	전문가워크샵
2012. 08~09	■ 등재신청서 및 보존관리계획서 작성 학술용역	
2013.01.29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3차 행정위원회 회의(16개 기관단체장)	행정위원회의
2013.02.15.~19 (일본), 20~24(중국)	■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세계유산 유산 답사 - 한국의 서원 세계 교육유산 차별성 검토	
2013.03.15	■ 5차 전문가 학술회의 및 4차 행정위원회 회의 - 대상 서원 보존관리계획	전문가워크샵 행정위원회의

2013.04.18~19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학술회의 - 한국 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협의회 발족	국내학술회의
2013.05.23~24	■ 서원 세계유산 등재 2차 국제학술회의 - 전통 사회교육 시설의 세계유산적 가치	국제학술회의
2013.06.11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5차 행정위원회 회의(16개 기관단체장)	행정위원회의
2013.06.24.~7.1	■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세계유산 유산 답사 - 이슬람문화권의 교육유산과 비교 답사	
2013.08.	■ 서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초안 문화재청 제출	
2013.11.25	■ 서원 세계유산 등재 서원총서 발간 - 관련 자료(고전적·제향·현판 등) 제작	
2013.11.26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우선 등재 대상 선정	세계유산분과위원회
2014.01.23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6차 행정위원회 회의(16개 기관단체장)	행정위원회의
2014.03.19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7차 행정위원회 회의(16개 기관단체장)	행정위원회의
2014.04.06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감수 현지답사	
2014.04.18	■ 서원 국내학술회의 - 서원문화의 계승발전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	국내학술회의
2014.10.24	■ 서원 세계유산 등재 3차 국제학술회의 - 국외교육유산의 이해와 한국서원의 비교 - 한국국학진흥원(장판각), 도산서원, 소수서원 답사	국제학술회의
2014.12.09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8차 행정위원회 회의(16개 기관단체장) -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위원회(가칭)' 검토 및 확정	행정위원회의
2015.01.30	■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 등재신청서 및 보존관리계획	
2015.03.30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9차 행정위원회 회의(16개 기관단체장) - 2014년 보고 및 2015년 업무계획, 실사협의	행정위원회의
2015.04.17	■ 한국의 서원 현지실사 대비 1차 워크숍	전문가워크숍
2015.04.26~29	■ 한국의 서원 1차 예비실사	
2015.05.27~28	■ 한국의 서원 현지실사 대비 2차 워크숍	전문가워크숍
2015.06.08~12	■ 한국의 서원 2차 예비실사	
2015.07.17	■ 한국의 서원 현지실사 대비 3차 워크숍	전문가워크숍
2015.08.21	■ 한국의 서원 현지실사 대비 4차 워크숍	전문가워크숍
2015.09.15~19	■ 한국의 서원 현지실사	본실사

2015.10.30	■ 현지실사 보완자료 제출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구역 지정 재검토 - 9개 서원 대표성, 변별성	
2015.11.18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10차 행정위원회 회의(16개 기관단체장) - 현지실사 보완자료 제출 및 통합관리단 설립 협의	행정위원회의
2015.12.04	■ ICOMOS 1차 패널회의 참석 - 한국서원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경계 재설정 - 연속유산 근거 설명(670개 서원 중 9개만 선정하여 신청하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 - 국외유산 비교 연구 보완 등	
2015.12.14	■ ICOMOS 1차 패널회의 결과에 대한 관련기관 대책회의 - 문화재청 : 국제협력과장, 보존정책과장, 담당자 - 지자체 : 충남 등 14개 지자체 과장 또는 담당자 - 한국의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간사 - 회의내용 · 이코모스 패널회의 권고사항 공유 · 유산구역 재설정 관련 논의 · 후속대책 관련 향후계획(안) 제시	
2016.01.04~06	■ 한국의 서원 유산구역 확장을 위한 현지답사 - 9개 서원 유산구역 재지정을 위한 현지실사	
2016.02.28	■ 1차 패널회의 요청자료(유산구역 재조정) 제출 - 보완자료 제출 - 유산구역 확대 도면 및 관련자료 제출	
2016.03.09~13	■ ICOMOS 2차 패널회의(최종, 비공개회의) - 신청유산에 대한 보완자료 최종 검토 - 패널 검토 결과 유네스코 보고서 제출	
2016.05.12	■ 한국의 서원 행정위원회 회의(16개 기관단체장) - 등재신청서 철회 결정	
2016.07.06	■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워크숍 - 재추진에 따른 워크숍	
2016.08.16	■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제1회 이사회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재추진 결의	

2. 국가무형문화재 기능(공예) 관련 전시관

○ 국가무형문화재 공예분야 48건 중 관련 전시관이 설립된 경우는 21건 (44%)으로 조사됨

번 호	명 칭	설 명	박물관
제4호	갓질	갓 만드는 기술(자)	○
제10호	나전장(螺鈿匠)	나전을 만드는 기술(자)	○
제14호	한산모시짜기(韓山 모시짜기)	충남 한산지방의 모시짜기	○
제22호	매듭장(매듭匠)	실·노끈 등을 다양하게 맺거나 술을 다는 전통 매듭의 기술이 있는 장인	○
제31호	낙죽장(烙竹匠)	인두를 대나무나 나무에 지져서 무늬·그림·글씨를 그려 새기는 전통적 기법을 지닌 장인	○
제32호	곡성의돌실나이(谷城의돌실나이)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에 전승되는 극세의 삼베를 짜는 기술	
제35호	조각장(彫刻匠)	금속의 기면에 무늬·글씨 등을 새기는 일을 담당하는 장인	
제42호	악기장(樂器匠)	한국 전통 악기를 제작할 수 있는 장인	
제47호	궁시장(弓矢匠)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	○
제53호	채상장(彩箱匠)	대나 버들·갈대·왕골 등으로 상자 모양의 기물을 제작하는 기술 또는 기술자	○
제55호	소목장(小木匠)	나무로 여러 가구를 전통기법을 이용해 만드는 전문 목수	○
제60호	장도장(粧刀匠)	호신과 장신구를 겸한 장도의 제작을 담당하여온 장인	○
제64호	두석장(豆錫匠)	놋쇠나 백동장식을 만드는 기능공	
제65호	백동연죽장(白銅煙竹匠)	담뱃대를 만드는 기술자	
제66호	망건장(網巾匠)	망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제67호	탕건장(宕巾匠)	탕건의 전통적인 제조기법을 가지고 있는 장인	
제74호	대목장(大木匠)	대목 일에 능한 장인	○
제77호	유기장(鑪器匠)	전통적인 기법으로 놋쇠를 다루어 여러 기물을 만드는 장인	○
제78호	입사장(入絲匠)	흑철·백동 등의 기물 표면을 정으로 쪼아 은·금·오동을 끼워넣거나 덧씌워 무늬를 놓는 전통기술의 기능보유자	
제80호	자수장(刺繡匠)	한국 전통의 수를 놓는 기술자	○
제87호	명주짜기	전통적인 길쌈으로 명주를 생산하는 일	○
제88호	바디장(바디匠)	바디를 만드는 기술 또는 그 기술자	
제91호	제와장(製瓦匠)	재래식 전통 기와를 만드는 기술 또는 기술자	
제93호	전통장(箭筒匠)	화살 넣는 통을 만드는 기술(자)	
제96호	옹기장(甕器匠)	옹기 굽는 전통적인 기술을 전수받아 이 일에 종사해 온 장인	

제99호	소반장(小盤匠)	소반을 만드는 전통적 기법을 전수받은 장인	○
제100호	옥장(玉匠)	옥을 갈고 다듬는 공예기술	
제101호	금속활자장(金屬活字匠)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각종 서적을 인쇄하는 기술 또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	○
제102호	배첩장(裱貼匠)	서화에 종이·비단 등을 붙여 족자·액자·병풍 등을 만드는 공예기술 또는 기능보유자	
제103호	완초장(莞草匠)	왕골로 돛자리 등의 기물을 만드는 공예기술 또는 장인	
제104호	서울새남굿	서울지역의 전통적인 망자 천도굿	
제105호	사기장(沙器匠)	사토 등으로 그릇을 만드는 기술 또는 그 기능을 가진 사람	
제106호	각자장(刻字匠)	목판에 글자를 새기는 기능을 가진 장인	
제107호	누비장(繡排匠)	누비기술을 전수받아 이 일에 종사해 온 기술(자)	
제108호	목조각장(木彫刻匠)	불교 목조각의 전통적인 기술을 전수받아 이 일에 종사해온 장인	○
제109호	화각장(華角匠)	화각공예 기능 및 그 전승자	
제110호	윤도장(輪圖匠)	풍수가나 지관이 사용하던 나침반을 만드는 기술 또는 기술자	
제112호	주철장(鑄鐵匠)	일정한 틀에 쇳물을 부어 여러 기물을 만드는 기술이나 그 장인	○
제113호	칠장(漆匠)	옷나무의 수액인 칠을 다루는 장인	
제114호	염장(簾匠)	전통 발을 만드는 장인	○
제115호	염색장(染色匠)	천연염료로 옷감을 물들이는 장인(匠人)	○
제116호	화혜장(靴鞋匠)	한국 전통의 가죽신을 만드는 장인 또는 전문 기술자	
제117호	한지장(韓紙匠)		○
제119호	금박장(金箔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금박을 만들던 장인	
제120호	석장(石匠)		
제124호	궁중채화(宮中綵花)	전문적인 장인이 비단, 모시 등으로 제작한 꽃	
제128호	선자장(扇子匠)	부채 제작법	

○ 관련 전시장이 설립된 시기는 1970년대 1곳, 1990년대 6곳, 2000년대 9곳, 2010년 이후 2건으로 조사되어 200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건립된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전시장이 설립된 장소는 서울,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에 각각 3곳씩, 충남이 2곳, 경남, 경북, 대구, 제주 등은 각각 1곳씩으로 조사됨

- 설립 주체는 공립이 72%(13건), 사립이 28%(5건)로 조사됨
- 전시관의 총 건평은 39,685㎡로 평균 2,205㎡로 나타남
- 전시관의 주요 기능은 국가무형문화재 작품, 작업기구, 유물 등의 전시, 공방의 운영이나 공방 모형의 설치, 체험교육관의 운영, 작품의 판매 등이고 기타로 수장고, 공연장, 강연장,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나타남
- 공방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는 전체의 39%(7건)였고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시관은 전체의 89%(16건)로 나타남
- 전시관은 단일한 국가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설립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여러 국가무형문화재를 복합적으로 수용한 경우는 전체의 17%(3건)으로 나타남
- 궁시장 관련 전시관은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부천박물관 내 활박물관과 사립으로 설립된 영집궁시박물관 2곳으로 조사됨
- 부천 활박물관은 궁시장 전수조교인 김윤경의 도움으로 활 만들기과 활쏘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
- 영집궁시박물관은 궁시장 전수조교인 유세현이 중심이 되어 전시관 및 공방을 운영하고 다양한 활 만들기과 활쏘기와 더불어 각종 시연이나 무술공연 등도 개최하고 있음

1) 부천 활박물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2004. 12. 14.	
운 영	부천시	
관련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弓矢匠)	
전시내용	故김장환 유품 240여점, 기타 98점 등 총 338점	
프로그램	- 대나무활 만들기 - 활쏘기	궁시장 전수조교 김윤경
위 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규 모	연건축면적 531m ²	
연 락 처	032-614-2678~9	
홈페이지	http://www.bcmuseum.or.kr	

2) 영집궁시박물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2001. 5. 19.	
운 영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弓矢匠) 유영기	
관련 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弓矢匠)	
전시내용	활, 쇠뇌, 화살, 궁시보조기구, 화약병기, 기타 무 기 등 100여점	
프로그램	- 활, 화살, 쇠뇌 만들기 - 전통활 쏘기, 쇠뇌 쏘기 - 활 관련 시연회 - 무술 등 공연	궁시장 전수조교 유세현
위 치	경기도 파주시 탄원면 국원말길 168	
규 모	부지면적 4,000m ² , 연건축면적 200m ²	
연 락 처	032-944-6800	
홈페이지	http://www.arrow.or.kr	

3) 갯전시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2009. 5. 22.	
운 영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갯일	
전시내용	갯 전시(고구려부터), 체험실, 영상실, 공방	
프로그램	선비체험(관복 착용 외)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904	
규 모	부지면적 2,645m ² , 연건축면적 999.21m ²	
연 락 처	064-782-8778	
홈페이지	http://www.gatkorea.org	

4) 전통공예전시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1998. 3. 23.	1988. 9. 1. 전통공예관 (경복궁 내) 후신
운 영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단	
관련 문화재	기능, 예능 관련 국가무형문화재, 서울무형문화재	
전시내용	공예기능보유자와 그 맥을 잇고 잇는 전승자, 전통 공예단체의 작품 발표	
프로그램	- 풍류(공연장): 상설 풍류한마당, 대관공연 - 교육 - 독서당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규 모	2층 전시관(결) 300m ² , 3층 전시관(울) 265m ²	
연 락 처	02-3011-2163	
홈페이지	http://www.chf.or.kr/c4/sub1.jsp	

5) 통영전통공예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2001년 10월	
운 영	통영전통공예관운영위원회(경상남도, 통영시)	
관련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螺鈿匠)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小木匠)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小盤匠)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염장(簾匠)	통제영 12공방
전시내용	통영나전칠기 외 통영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생 산 공예품	
프로그램	나전칠기 체험 외	
위 치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281	
규 모	부지면적 4,064m ² , 연건축면적 676m ²	
연 락 처	055-645-3266	
홈페이지	http://www.craft12.co.kr/shop/m_page.php?ps_pname=page_sub02	

6) 한산모시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1993. 8.	
운 영	서천군	
관련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전시내용	한산모시 전시관, 토속관, 모시매기공방, 전통농 기구전시장, 모시각, 한산모시홍보관 등	
프로그램	- 모시한지 - 생활용품 제작 - 모시염색 - 모시옷 입어보기 - 다례	한산모시문화제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089	
규 모	부지면적 85,000m ² , 연건축면적 5,410.48m ²	
연 락 처	041-950-4750	
홈페이지	http://www.hansanmosi.kr	

7) 동림매듭박물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2004. 4.	
운 영	사단법인 한국공예예술가협회	노동부 매듭기능 전승자 심영미
관련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매듭기능전승자 제2009-03호	
전시내용	전통관, 현대관, 문화상품관	
프로그램	매듭 1일 체험 매듭교실(초급에서 전문가)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2길 10	
규 모	연건축면적 110m ²	
연 락 처	02-3673-2778	
홈페이지	http://shimyoungmi.com	

8) 한국대나무박물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1998. 3.12.	
운 영	담양군	
관련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31호 낙죽장(烙竹匠)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 전남무형문화재 제23호 죽렴장(竹簾匠) 전남무형문화재 제15호 참빗장(眞梳匠)	채상장이 운영하는 전시관이 별도로 있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
전시내용	전시실, 체험교육관, 영상홍보관, 대나무산업관, 명인관 및 외국관, 판매장 등 (국내외 죽 제품 1,800여점)	
프로그램	나무곤충 만들기, 애벌레 키우기, 애벌레향토피리 만들기, 건표본 만들기, 대숫비누 만들기 등	담양대나무축제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35	
규 모	부지면적 46.650m ² , 연건축면적 3,625m ²	
연 락 처	061-380-2901~9	
홈페이지	http://www.damyang.go.kr/museum/	

9) 광양장도박물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2006. 1. 24.	
운 영	광양시	
관련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粧刀匠)	
전시내용	박용기 장인의 대표작 200여점 및 해외 도검 외 100여점, 작업실, 체험학습실, 아트샵 등	
프로그램	장도 만들기, 장승 만들기, 솟대/나비 만들기, 토 분 색칠하기, 탈 만들기, 부채 만들기, 떡살염색, 칠보공예, 탁본 등	
위 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771	
규 모	부지면적 2,645㎡, 연건축면적 1,322㎡	
연 락 처	061-762-4853	
홈페이지	http://www.jangdo.org	

10) 한국고건축박물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1998. 10.	
운 영	전홍수 대목장	
관련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大木匠)	
전시내용	제1·2전시관을 비롯하여 사대부(양반) 가옥, 평민 가옥, 초가삼간, 연수원, 중국관, 일본관, 야외공원장, 사진전시관 등	
프로그램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홍덕서로 543	
규 모	부지면적 16,500㎡, 연건축면적 3,600㎡	
연 락 처	041-337-5877	
홈페이지	http://www.ktam.or.kr	

11) 대구방짜유기박물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2007. 5. 25.	
운 영	대구광역시	
관련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鑪器匠)	
전시내용	유기문화실, 기증실, 재현실, 기획전시실 등 (상설전시 275종 1,480점)	
프로그램	- 체험장 - 영상교육 - 야외 공연	
위 치	대구광역시 동구 도장길 29	
규 모	부지면적 17,880m ² , 연건축면적 3,758m ²	
연 락 처	053-606-6171	
홈페이지	http://artcenter.daegu.go.kr/bangjja	

12) 한국자수박물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1976. 11.	'91 을지로에서 이전
운 영	박영숙·허동화	
관련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刺繡匠)	
전시내용	전통자수, 보자기, 의상 등 3천여점	다 수 문화재 보유
프로그램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2길 34, 4층	
규 모	전시실 66m ²	
연 락 처	02-515-5114~6	
홈페이지	http://www.bojagii.com	
비 고	동양자수박물관(강릉소재) http://www.orientalembroidery.org	

13) 경주시전통명주전시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2010. 10. 1.	
운 영	경주시	
관련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87호 명주짜기	
전시내용	명주전시관, 명주작업관, 명주염색관	
프로그램	명주짜기 체험, 명주짜기 과정별 재현, 천연염색 체험	
위 치	경북 경주시 양북면 명주길 154	
규 모	부지면적 5,171m ² , 연건축면적 780m ²	
연 락 처	054-777-3492	
홈페이지	http://www.gyeongjusilk.com/	

14) 청주고인쇄박물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1992. 3. 17.	
운 영	청주시	
관련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金屬活字匠)	
전시내용	신라 및 고려·조선시대의 목판본, 금속활자본, 목 활자본 등의 고서와 흥덕사지 출토유물, 인쇄기구 등 650여 점	
프로그램	인쇄 체험, 인쇄교육프로그램, 공연	청주직지축제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규 모	부지면적 40,990m ² , 연건축면적 4,868m ²	
연 락 처	043-201-0001	
홈페이지	http://jikjiworld.cheongju.go.kr	

15) 목아박물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1993. 6. 12.	
운 영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관련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木彫刻匠)	
전시내용	목조각전시실, 유물전시실, 야외전시실에 유물 및 작품 6,000여 점(연장류 500여 점 외)	다 수 문화재 보유
프로그램	전통회화, 캐릭터 양초, 동전지갑, 텀블러 전통회화, 도자기복원, 탈 꾸미기, 부채 만들기, 나무 목걸이, 나무 문패, 꼭두 만들기 등	
위 치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이문안길 21	
규 모	부지면적 12,502m ² , 연건축면적 5,891m ²	
연 락 처	031-885-9952~4	
홈페이지	http://www.moka.or.kr	

16) 종박물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2005. 9.	
운 영	진천군	
관련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鑄鐵匠)	
전시내용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의 한국범종 유물, 세계의 종, 제작기술 등	
프로그램	탑본 부채 만들기, 금속풍경 만들기 등	
위 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504-12	
규 모	부지면적 10,383m ² , 연건축면적 2,858m ²	
연 락 처	043-539-3847~8	
홈페이지	http://www.jincheonbell.net	

17)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2006. 9. 15.	
운 영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관련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染色匠)	
전시내용	염색의 역사, 천연염색 기본/실제/미래, 기획전시, 뮤지엄샵, 문화콘텐츠 홀 등	천연염색문화재단, 천연염색공방,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사업(표주)시설 등 연계
프로그램	염색체험, 도자기 만들기, 쪽염색 등	
위 치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379	
규 모	부지면적 9,000m ² , 연건축면적 3,100m ²	
연 락 처	061-335-0091	
홈페이지	http://www.naturaldyeing.or.kr	

18) 괴산한지체험박물관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2013. 1.	
운 영	영농조합법인 신평한지마을	
관련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韓紙匠)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7호	
전시내용	한지유물, 공예품, 전통문화 관련 전시 (유물실, 기획전시실, 공예실, 한지체험실 등), 판매	
프로그램	한지뜨기체험, 한지공예체험, 인출체험, 도자기공예, 천연염색, 귀주떡 만들기, 개구리체험, 산양체험 등	캠핑, 괴산한지문화축제
위 치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로 233	
규 모	부지면적 9,380m ² , 연건축면적 1,326m ²	
연 락 처	043-832-3223	
홈페이지	http://www.museumhanji.com	

3. 국내 결성 세계연맹

□ (사)세계무술연맹(WoMAU)¹⁴⁰⁾

- 창립: 2002년 10월 2일
- 창립단체: 28개국 28개 단체
- 2016년 현재 가맹단체: 41개국 61개 단체
- 사무국 위치: 세계무술공원 세계무술박물관 내
- 유네스코 공식 자문기구(2009년 5월)¹⁴¹⁾
- 창립배경: 충주세계무술축제¹⁴²⁾
- 창립목적: 무술 솜씨와 기술을 발전시키고, 세계무술계가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고무함을 목적으로 회원단체들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일을 수행함
- 주요사업:
 - 전통무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교환 및 전파
 - 전통무술에 관한 세미나와 학술회의 등 조사연구 사업
 - 국내·국제무예대회 개최 및 지원
 - UNESC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 국제무예센터 등 무술관련 국내기관과의 협력 사업
 - 충주세계무술축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의 참가와 행정적, 기술적 지원
 - 기타 사업: 문화동반자사업, 연수교육 등
- 회원가입:
 - 연맹의 회원자격은 모든 나라 무술의 전국적 무술단체에 개방된다. 회원은 한 나라에서 3 단체로 제한
 -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본 협약에 서명된 국별 단체들은 연맹의 원회원

140) 세계무술연맹, <http://womau.org>

141) PES(Physical Education and Sport)의 TSG(Traditional Sport and Games) 영역

142) 1998년부터 충청북도 충주시에 해마다 개최

- 원 회원이 아닌 회원의 가입은 총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
- 한 나라에 한개 이상의 무술단체가 각기 독특한 무술전통을 대표하면 이들 단체가 독립적으로 회원이 될 수 있음(이미 한 개 이상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나라에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나라의 기존회원 단체의 동의서 첨부)

○ 조직:

- 결정기구: 총회와 총재, 이사회
- 실행기구: 사무국과 사무총장,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학술위원회

□ 세계기사연맹(WHAF)¹⁴³⁾

○ 창립: 2006년 8월 22일

○ 2013년 현재 가맹단체: 31개국 34개 단체

○ 사무국 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9-27

○ 창립배경: 세계기사선수권대회¹⁴⁴⁾

○ 세계무술연맹(WoMAU) 가맹단체(2010년 9월)

○ 창립목적:

- 기사의 경험과 기술 향상 그리고 세계조화에 이바지하는 기사공동체의 확장을 목표로 회원단체 간의 인적교류와 정보교환을 위해 활동함

○ 주요사업:

- 기사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교환 및 관련 유물과 자료의 보존
- 기사에 관한 학술연구, 교육, 훈련, 출판, 국제교류 사업
- 교육자, 심판, 선수 양성
- 세계기사선수권대회, 전통기사대회 개최

143) 세계기사연맹, <http://www.whaf.net>

144) 또는 세계기사챔피언십(WHAC)은 2004년 10월부터 시작됨, 2016년 제12회 세계기사대회는 22개국 150명 참가함, 2011년 제7회 대회부터 유네스코 공식 후원대회로 개최됨(강원신문, 2016.08.29)

- 회원가입: 연맹의 회원자격은 한 나라 대표 기사단체로 제한
- 조직: 대회조직과 연맹조직으로 구분됨

□ 세계탈문화예술연맹(IMACO)

- 창립: 2006년 9월 29일
- 창립단체: 24개국 40개 회원 및 단체
- 2016년 현재 가맹단체: 56개국 131개 회원 및 단체
- 사무국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욱사로 239
- 유네스코 공식 자문기구(2014년 6월)¹⁴⁵⁾
- 창립배경: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¹⁴⁶⁾
- 창립목적:
 - 탈문화 보급과 전승에 관한 활동과 탈과 탈춤 문화 콘텐츠 연구, 조사, 보존, 관리, 전 세계 탈 관련 아카이브 자료화, 학술대회, 탈 전시회 등의 활동을 통한 인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탈과 상징문화를 연구, 국내외 탈 관련 유관단체와 탈춤과 상징문화와 연계한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주요사업:
 - 탈문화 국가 및 도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사업
 - 세계 탈 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자료정리 작업
 - 세계 탈 문화단체, 연구소, 개인 네트워크 체제 구축
 - 세계 탈 센터 역할 수행 (IMACO 사무국)
 - 탈 관련 축제 지원활동
 - 세계 탈 전시 체험전을 통한 탈문화 홍보
 - 세계 탈 콘텐츠 구축 및 아카이브 작업
 - 유네스코 국가자문기구 활동

145) PES(Physical Education and Sport)의 TSG(Traditional Sport and Games) 영역

146) 1997년 10월 1회 축제 개최 2016년 9월 20회 축제 개최

- 회원가입: 연맹의 회원자격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사단체로 제한
- 조직: 회장, 대륙별이사, 국내이사, 사무총장, 문화교류팀, 콘텐츠팀

□ 세계민족공연맹(WTAF)

- 창립: 2012년
- 2015년 현재 가맹단체: 35개국
- 사무국 위치: 충남 천안시 영성동 53-25 2층
- 창립배경: 세계민족궁대축전
- 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4. 시사점

1) 인류무형문화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대상이 되는 무형문화유산은 인류 공동체에 의해 생산, 공유, 전승되는 문화로 문화 간의 대화에 기여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기술적인 기준은 당사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함
-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의 절차가 2년 정도 소요되고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심사와 결정이 이루어짐
- 심사의 핵심적인 과정은 유네스코 심사보조기구의 심사와 자문기구의 현지실사를 통해 이루어짐
-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의의는 무형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과 관심의 확보 그리고 국제적 가시성의 획득을 통한 사회문화적 자긍심과 경제적 활용성 제고라고 할 수 있음
- 2015년 12월 현재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은 24개국 43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104개국 336건이 등재 됨
- 여러 국가가 함께 등재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총 14건이 나타남
-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총 19건이 등재됨
- 유네스코 문의 결과 현재 활과 관련된 인류문화유산은 등재 또는 잠정목록은 없음

2) 국가무형문화재 기능(공예) 관련 전시관

- 국가무형문화재 공예분야 48건 중 관련 전시관이 설립된 경우는 21건

(44%)으로 조사되었고 2000대 가장 활발하게 설립되었고 70%정도가 공립으로 나타남

- 전시장의 주요 구성은 전시, 공방, 체험 그리고 판매 등으로 조사되었고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3) 국내 결성 세계연맹

- 충주세계무술축제의 개최를 기반으로 세계무술연맹을 창립함
- 세계기사선수권대회를 기반으로 세계기사연맹을 창립함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기반으로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을 창립함
- 세계무술연맹과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유네스코 자문기구로 승인 활동하고 있고 세계기사연맹은 세계무술연맹의 가맹단체로 가입함
-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유교문화권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는 교두보로 역할하고 한국(하회별신굿탈놀이)의 탈놀이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V. 예천 활문화 발전방안

1. 종합적 시사점

1) 예천의 활문화

□ 국궁

- 예천은 최대 400년 조궁의 역사를 지녔다는 주장이 있고 군창지와 향사 당터 유적, 일제강점기 전조선궁도대회, 한천사장 등을 고려할 때 전통적 조궁과 활쏘기에 대한 역사적 기반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짐
- 최근의 역사에서 조궁이 활발하였던 시기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약 30여 년간이고 그 중반경인 1981년 ‘무형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예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궁장 20명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 시기가 우리나라 각궁의 제작이 경기궁과 예천궁으로 양분된 전성시기라고 할 수 있음
- 전성기 후반에 예천의 조궁술은 권영록 궁시장의 계보의 전수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일부는 경기 조궁술과도 결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전성기 이후 개량궁의 개발과 궁도협회의 공식사용 등을 포함하여 각궁에 대한 수요가 극감하고 주요 전수자들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계보를 직접 잇지 못하게 됨으로써 현재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예천 조궁 계보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음
- 활쏘기 측면에 있어서도 일제강점기 국궁의 억제 시기에도 예천을 중심으로 국궁대회가 열릴 정도로 국궁의 중심지였고 조궁의 전성기까지는 한천사장, 무학정을 중심으로 국궁의 습사와 대회가 빈번하였으나 그 이후 국궁인구가 급격히 줄게 되었음, 2014, 15년 세계활축제를 계기로 관심이 고조되고 다시 활기를 찾고 있음

□ 양궁

- 예천의 양궁의 시작은 예천 조궁의 전성기와 맞물려 있음
- 당시 김진호 선수 등도 예천에서 활제작과 활쏘기가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함
- 김진호 선수를 시작으로 세계정상의 양궁인을 다수 배출함
- 예천 양궁은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으로써의 기반과 동호회 활동은 부족한 실정임

2) 한국과 세계의 활문화

□ 한국의 활

- 우리 민족은 고대국가에서부터 각궁을 사용하였고 대사례, 향사례, 편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활쏘기가 지속적으로 활발하였으며 제작과 사용에 뛰어났음이 문헌으로 확인됨
- 예천의 권오복이 지은 「향사당기」에 향사례의 의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남
- 개화기에 이르러 한 때 중지되고 일제 강점기에는 억제되었지만 우리나라 활쏘기는 민간을 중심으로 면면히 이어짐
-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단순히 군사훈련이나 운동 또는 유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심신을 수련하고 공동체와 고을 간의 화합 그리고 군신의 예를 다지는 의식의 수단으로 활용됨
- 우리나라 양궁은 외국기술의 도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60년대 초 자생적 노력으로 시작됨
- 70년대 말 김진호를 시작으로 세계정상의 위치에 이르고 있음

- 전국적으로 궁도의 저변은 넓은 편이지만 양궁은 엘리트 양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세계의 활

- 시간적으로 신석기에서 중기 구석기(BC 7만~1만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활은 어느 특정 민족의 것이 아닌 인류 공통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음
- 활은 제작 방법에 따라 크게 단순궁과 복합궁으로 나눌 수 있고 대체로 복합궁을 다룰 수 있는 민족의 활이 우수하게 평가받았고 특히 각궁을 다루는 민족이 위협적이었던 것으로 기록됨
- 역사적으로 각궁을 다룬 민족은 아시리아, 몽고, 터키, 헝가리, 고구려 등으로 나타남
- 현대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양궁은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리커브활과 더불어 컴파운드활을 활용한 수렵활경기(field archery)가 일반의 생활체육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음

3) 활문화 중심지 예천

□ 인류무형유산의 전승지

- 원시 인류로부터 함께한 전통 궁시 제작의 원류
- 특히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 각궁의 집단 제작촌
- 현대에 전국적으로 각궁의 제작기술을 전파한 진원지
- 경기궁과 예천궁을 결합한 각궁제작
- 전국궁술대회를 개최한 한천사장과 무학정

□ 활문화 창조의 저력 보유

- 세계수준의 양궁선수 배출의 요람
- 예천진호국제양궁장 통한 국내외 양궁대회의 개최와 양궁체험
- 예천국궁전수관 등을 통한 궁시 제작 전통의 재건 노력
- 세계활축제 개최 등을 통한 세계의 활문화 중심지화 노력

□ 활문화 비전의 실천 의지

- 활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 제고를 위한 실체적 토대 마련
- 활문화의 세계적 구심점으로써의 연계망 구축
- 세계 활문화 원형의 발굴과 전승, 비전을 실천하는 중심지 구축
- 세계인과 함께하는 활문화 활동의 창조적 실천

2. 예천할문화전시관

1) 설치의의

- 궁시 제작에 대한 과학적 체계화(원리, 재료 그리고 과정)
- 전통 궁시 및 제작도구의 수집과 보전
- 활 관련 전통의례와 소품 등의 발굴과 연구
- 궁시제작 기술과 활 관련 의례 등의 교육과 홍보
- 세계의 활과 국궁의 비교 연구
- 예천과 우리나라 활 역사의 기록과 관련 유물의 수집과 보전

2) 추진방향

- 제1종 박물관 규모 이상의 전시품목 확보¹⁴⁷⁾
- 조궁과 활쏘기의 역사적, 과학적 연구를 위한 인적, 물적 토대 마련
- 할문화에 대한 입체적 체험이 가능한 공간 구현
 - 국내외 유물, 과거와 현재, 기술의 비교: 가변적 첨단 전시기술 활용
- 국궁과 양궁의 조화
 - 활의 원리와 기술적 시원에서 현대적 스포츠까지 포괄

3) 추진단계

- 설치 타당성 조사
 - 제1종 또는 제2종 박물관 등의 규모 결정
 -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147) 제1종 박물관은 종합 박물관, 전문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이 해당되고 소장품 목이 100점 이상이고 100㎡ 이상의 전시실이나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수장고, 연구실, 자료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제2종 박물관은 소장품목이 60점 이상이고 82㎡ 이상의 전시실 외 기타시설을 갖추어야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 추진조직 구성 및 유관기관 회의
- 부지선정, 전시품 목록 조사와 수집
- 전시관 설계 공모
- 전시관 설립 및 운영

4) 전시관의 구성

- 전시장
- 수장고
- 정보관(도서관, 강당 등)
- 연구시설과 공방
- 실내외 공방체험, 활쏘기 체험(국궁, 양궁)
- 판매시설(기념품, 매점, 식당 등)
- 기타 지원시설
- 세계전통활연맹본부(사무국)

3.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의의

- 전통활문화의 인류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재정 및 기술적 지원과 공조의 확보
- 전통활문화의 국제적인 지명도와 관심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용기회 증진과 관광수익의 창출 등의 긍정적인 경제효과 획득
- 국제적으로 활문화 유산에 대한 가시성 제고
- 예천의 활문화 공동체의 자긍심이 고취됨으로써 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크게 기여함

2) 등재 가능성

- 전통활문화는 인류가 공유하는 공동의 역사적 문화유산
 - 다른 국가와의 연대 가능성
- 우리민족 공동체만의 독특한 전통활문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각궁을 중심으로 한 조궁의 독특성
-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통의 기술을 전승 보전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있음
 - 궁시장, 전통장 등 전통활문화 관련 제작기술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대사례, 향사례, 편사 등 전통의례의 전승과 복원
 - 장안편사 등의 무형문화재와 유형유산

3)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부합성

○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점점 소멸하는 제작기술, 전통 활쏘기 기술과 의례

○ 문화 간 대화에 기여

→ 세계활축제와 세계전통활연맹 등을 통한 교류와 성과 도출

○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 입증

→ 민족마다의 다양성과 궁시제작과 활쏘기 의례에서의 창조성을 확인

○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마련

→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로 보호함: 궁시, 전통장, 장안편사 등

○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동의하고, 최대한 신청과정에 참여함

→ 관련 지자체와 국가의 적극적 참여: 가시적 증거의 제시

○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

→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에 포함됨

→ 협력 지자체와 각 국의 상황도 고려하여야 함

4)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

☐ 등재 대상에 대한 목표 설정

- 전통 궁시 등의 전통 제작기술
- 활쏘기 의례(복식 포함): 대사례, 향사례, 편사, 군례 등
- 전통궁술: 궁도9계훈, 집궁8원칙, 활쏘기10훈 등 포함

☐ 등재 대상에 따른 공동등재 협력

- 공동등재는 각 국가에 대한 등재 배분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지자체 간 협력과 국가 간 협력 추진
- 세미나, 심포지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학술적 전문화의 과정
- 유네스코 자문기구들과 사전 협력

☐ 전통활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 공동협약 체결 및 국가 간 협의회 결성
- 공동등재 신청
- 공동등재
- 전통활문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 관리와 교류

4. 세계전통활연맹

1) 세계 전통활연맹 결성의 의의

-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써의 전통활문화 전승과 발전을 위한 연계망 구축
- 세계 전통활문화에 대한 자료의 발굴과 연구 및 상호 정보 교류
- 소멸 위기 전통활문화의 발굴과 지원
- 개인 심신수련, 공동체 유대강화 등의 인류공동의 가치 구현

2) 세계연맹 결성과 실천 방향

- 전통활문화를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국가나 단체와의 연계
 - 국가적 경계보다는 공유하는 문화적 경계 고려
 - 세계 전통 공시의 유형, 재료 등 제작기술의 비교
 - 세계 전통 공술과 관련된 의례 및 복식의 비교
 - 세계 전통 공술의 활쏘기 기술과 경기방법의 비교
- 세계 전통활문화의 발전을 위한 학술적, 실천적 기반조성
 - 공동 조사·연구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세계 전통활 축제의 개최
 - 세계 전통활 대회의 개최(전문, 아마추어)
-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통한 인류 공동가치의 공식적인 발현
- 세계 전통활문화의 다양성 발굴, 보호, 재현, 전승의 지원
- 세계활축제와 세계전통활대회의 개최

5. 세계활축제

1) 세계활축제의 개최성과

- 활의 도시 예천군민의 자긍심 고취
- 예천군이 지니고 있는 활문화의 가치와 저력의 확인
- ‘세계의 활 중심도시 예천’으로써의 가능성 발견
- 활에 대한 지역적, 전국적 수준의 잠재적 참여동기의 견인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브랜드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2) 세계활축제의 발전방향

□ 조직분야

- 조직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개최를 위한 축제조직의 상설화
 - 장기적 비전과 전략의 수립과 실천
 - 세계전통활연맹의 창설과 연계한 공동조직으로 운영(사무, 연구, 축제, 대회 등)
 - 리커브, 컴파운드, 수렵활 등의 양궁분야도 조직에 포함
 -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의 제고 그리고 자생력 촉진을 위한 조직의 법인화
 - 군민 참여 및 역할 확대 모색

□ 프로그램

- 세계활축제와 세계전통활대회의 동시 개최를 통한 문화적인 규모의 경제 달성
 - 단일 행사에 최소한의 문화원천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확장 표현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참여와 파급효과를 거두고자 함
 - 세계 활문화의 다양성 전시 수준을 높이고 체험을 강화함
 - 전문적 경기 외에도 아마추어가 중심이 되는 이색적인 활대회 등도 개최하여 모두가 쉽게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본질적 의미를 제고함으로써 구심력을 높임

- 대사례, 향사례, 편사 등의 전통의례와 사법과 경기 등을 고증, 복원, 재현함으로써 활문화 전승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 전통 활과 현대 활을 연결하는 국제적 교류 촉진자로서의 역할 강화
 - 양궁선수의 국궁 활쓰기 시범대회 등(은퇴 선수 활용)
 - 전통활과 현대활(또는 양궁과 국궁)을 교차하는 국제적 심포지엄 개최 등의 학술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의 장 마련
 - 활문화에 대한 정보와 이론을 축적하는 국제적 아카이브와 터미널 역할 수행
- 국제청소년활문화캠프 개최를 통한 저변 확대와 미래세대 준비
 - 다양한 활문화 체험과 심신수련을 통한 청소년의 국제적 교류

<참고문헌>

- Allely, S. & Hamm, J.(1999). Encyclopedia of Native Bows, Arrows and quivers
1, The Lyons Press: New York, 29, 178
- Ancient Egypt and Archaeology Web Site, <http://www.ancient-egypt.co.uk>
- Asian Traditional Archery Research Network , <http://www.atarn.org>
- Auckland War Memorial Museum, <http://www.aucklandmuseum.com>
- Blitz, J. H.(1988). Adoption of the Bow in Prehistoric North America, North
American Archaeologist, 9(2).
- Brooklyn Museum, <https://www.brooklynmuseum.org>
- Christoph Baumer(1012). The History of Central Asia: The Age of the Steppe
Warriors, I.B.Tauris, pp. 35-39.
- Comstock, P (1992). Ancient European Bows, The Traditional Bowyers Bible
Volume 2. The Lyons Press, ISBN 1-58574-086-1, pp. 87-88
- GoAntiques, <http://www.goantiques.com>
- International Field Archery Association, <http://www.ifaa-archery.org>
- International Horn Bow Society, <http://www.webring.org>
- Lithuanian Archery Association, <http://www.strele.lt>
- M. Mirazón Lahr, F. Rivera, R. K. Power, A. Mounier, B. Copsey, F .
Crivellaro, J. E. Edung, J. M. Maillo Fernandez, C. Kiarie, J.
Lawrence, A. Leakey, E. Mbua, H. Miller, A. Muigai, D. M. Mukhongo,
A. Van Baelen, R. Wood, J.-L. Schwenninger, R. Grün, H.
Achyuthan, A. Wilshaw & R. A. Foley(2016). Inter-group violence
among early Holocene hunter-gatherers of West Turkana, Kenya,
Nature 529 (7586): 394-398. doi:10.1038/nature16477.
- Manchester Museum, <http://www.museum.manchester.ac.uk>
- Mason, O. T.(1995). North American Bows, Arrows and Quivers. Amereon
House: Mattituck, New York
- McLeod, W.(1970). Composite Bows from the Tomb of Tut'ankhaman. Oxford:
Griffith.
- Museum of Anthropology, <https://anthromuseum.missouri.edu>

- Museum of Bowhunting, <http://www.pope-young.org>
National Field Archery Society, <http://www.nfas.net>
PhotoMongolia, <http://mongoliaphoto.com/index-265-one.html>
Robinson E.(1951). The Egyptian composite bow, Archery April, 4.
South Tyrol Museum of Archaeology, <http://www.iceman.it>
The Archery Library, <https://www.archerylibrary.com>
The National Field Archery Association, <https://www.nfaausa.com>
the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http://www.nmai.si.edu>
UNESCO, <http://heritage.unesco.or.kr>
University of Pennsylvania Museum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http://www.penn.museum>
Wachsmann, S.(2009). On Drawing the Bow, In Eretz-Israel 29 (In Honor of Ephraim Stern). J. Aviram, A. Ben-Tor, I. Eph'al, S. Gitin and R. Reich, ed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38-257.
Wilson, J.(1956). The Culture of Ancient Egyp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86.
Xenophon Group International, <http://www.xenophon-mil.org>
Zoroastrian Heritage, <http://www.heritageinstitute.com>
경기신문, 2013.08.08.
경북매일, 2013.10.02.
경북일보, 2015.10.08.
경상북도문화재, <http://www.chis.go.kr>
국궁신문, 2012.12.09.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국립무형유산원, <http://www.nihc.go.kr>
국방일보, 2004.08.12, 2004.08.19., 2004.09.23., 2004.11.25., 2006.10.18., 2007.03.19., 2008.02.25., 2010.03.04., 2013.08.08., 2013.11.13.
궁시공방, <http://cafe.naver.com/thecrossbow>
권창훈(2004). 경북 예천 궁도가 한국 궁도계에 미친 영향, 석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김병륜(2006. 10. 18). 한국의 군사문화재 순례<137> 궁시장. 국방일보.

- 김성일(2011), 한국 궁도의 교육적 의의와 발전과제, 『한국스포츠학회지』 9(1), 43-53.
- 김아네스·최선헌(2009).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신원문화사
- 김영석·전미경(2013). 문화콘텐츠체험이 지역브랜드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7(2), 221-242.
- 김용만(2010). 「세상을 바꾼 수레」, 도서출판 다른.
- 김이수(2016). 전통 활쏘기의 풍속(風俗)과 사풍(射風)에 대한 연구, 『국체육철학회지』 24(1), 221-237.
- 김정행(1997). 「무도론」, 297, 대한미디어
- 김창남(2010).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택규(1981). 「무형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경북도, 매일원색정판사.
- 김현구(2000). 국궁 세계화 방안, 육군참모총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21세기 국궁발전의 방향과 과제」
- 남혜승(2011). 「무기와 방어구(서양편)」, 도서출판 들녘.
- 뉴스천지 2012.02.27.
- 다케루베 노부아키(2000). 「켈트 복구의 신들」, 박수정, 도서출판 들녘.
-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korean.visitkorea.or.kr>
- 대한양궁협회, <https://www.archery.or.kr>
- 데일리안, 2008.05.13.
- 덴마크 국립박물관, <http://en.natmus.dk>
- 동아일보, 1991.07.12., 1991.07.25.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매일신문, 2014.07.11., 2014.08.27. 2014.09.03., 2014.10.15., 2016.10.22.
- 모창배·정진명(2007), 국궁 사법의 원형에 대한 실태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1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 보스톤코리아, 2014.12.29
- 부천박물관, <http://www.bcmuseum.or.kr>
- 사토 도시유키(2000). 「신검전설」, 이규원 역, 도서출판 들녘.
- 서울무형문화재, <http://www.seoulmaster.co.kr>

- 세계기사연맹, <http://www.whaf.net>
- 세계무술연맹, <http://womau.org>
- 세계양궁협회, <https://worldarchery.org>
- 시노다 고이치(2009). 「무기와 방어구(중국편)」, 신동기 역, 도서출판 들녘
- 안산 관덕정, <http://cafe.naver.com/kwangdukjung/512>
- 영집궁시박물관, <http://www.arrow.or.kr>
- 예천군청(2010). 예천체육사.
- 예천군청, <http://www.ycg.kr>
- 예천신문 2005.12.23.
- 예천인터넷방송 2007.09.18., 2006.10.02.
- 온각지궁사회, <http://www.onkagzy.com>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http://museum.kma.ac.kr>
- 이경자(2010). 중국 고대의 육예(六藝)교육, 『윤리교육연구』 22, 157-176.
- 이기현·우형진(2011). 「콘텐츠의 문화적 향유 확대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이왕무(2014). 조선전기 軍禮의 정비와 射禮의 의례화, 『동양고전연구』 54, 319-348.
- 이용희(2001). 각궁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육군참모총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21세기 국궁발전의 방향과 과제」.
- 인문콘텐츠학회(2006). 「문화콘텐츠입문」, 서울: 북코리아.
- 장호찬·라선아(2010). 「관광행동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정재성(2011). 전통시대 활쏘기 문화의 특성 소고, 『무예연구』 5(1), 71-89.
- 정재성·최미애(2011). 한국 활쏘기 문화의 현황적 특성, 『스포츠인류학 연구』 6(2), 173-188.
- 정진명(2001). 국궁 대중화의 현황과 과제, 육군참모총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21세기 국궁발전의 방향과 과제」
- 중국전통활연맹, <http://www.chinaarchery.org>
- 최석규(2014). 국궁과녁의 변천과 정체성, 육군참모총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21세기 국궁발전의 방향과 과제」
- 풍국초(2005). 「중국 상하오천년사」. 이원길역. 신원문화사.
- 한국문화재단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fpcp2010>

한국문화재단, <http://www.chf.or.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국전통무예연구소, <http://www.mu ye24ki.com>

황시열(2015), 「국궁」, (주)대원사, 서울

황학정 국궁전시관, <http://gallery.karchery.org>

예천 활문화 조사 및 발전적 방안 연구 보고서

발 행 인 이현준

발 행 처 예천군청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Tel. 054-654-3801

연구기관 (사)환동해문화연구소

인 쇄 일 2016년 12월 20일

발 행 일 2016년 12월 29일

인 쇄 처
